#### 등록 및 개회식

09:30 ~ 09:40 대회사 성낙수(외솔회회장) 09:40 ~ 10:00 축 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강현화(세종학당 이사장)

#### 사회 김슬용(세종국어문화원)



#### 제1부

#### 전문 분야의 용어 사용 실태와 순화의 방안

10:00 ~ 10:30 이용 · 미용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10:30 ~ 11:00 건축 분야 용어의 순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 및 순화 실천 방안 11:00 ~ 11:30 출판 · 인쇄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11:30 ~ 12:00 의복 · 양재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 사회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발표 김진희(경남대학교 교수) 발표 윤천탁(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발표 이재성(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발표 권경일(연세대학교 강사)





#### 방송에서의 말 · 글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

14:00 ~ 14:30 방송의 예능 뉴스 등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문제점

14:30 ~ 15:00 방송극에서 나타나는 말과 글의 문제점

13:30 ~ 14:00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문제점

#### **사회** 박형우(한국교원대학교) ★

발표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발표 이종구(방송인)

발표 오세곤(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 제3부

#### 남 · 북한 국어학 용어의 통일 방안

15:20 ~ 15:50 남·북한의 '형태론·통사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15:50 ~ 16:20 남 · 북한의 '음운론 · 의미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16:20 ~ 16:50 남·북한 맞춤법 차이점과 그 통일 방안 -두음법칙 사이시옷 뛰어쓰기를 중심으로-**발표**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6:50 ~ 17:30 **종합토론 : 취소**(비대면 강의 준비시간으로 대체)

17:30 ~ 17:40 **폐회식 폐회사 :** 성낙수(외솔회 회장)

####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발표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2020년 10월 6일(회)  $09130 \sim 17140$ 회관 403호







### 인사의 말씀

외솔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분들,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74 돌이 되는 바, 우리 회의 <집현전 학술대회>도 12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을 전후하여 '세계기록유산'인 우리 한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예술을 통해 재발견하려는 문화예술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창립 50돌을 맞은 우리 '외솔회'에서는, '우리말 사용의 실태 그리고 순화와 표준화'라는 대 주제를 내걸고, 사계의 권위있는 학자들을 모셔, 바람직한 우리말 사용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소주제로 첫째, 일본어 등 낯선 외국어의 잔재가 남아있는, 일부 직종의 용어 사용 실태 및 순화방안, 둘째, 방송 말·글의 문제점과 순화 방안, 셋째, 남·북한 국어 관련 전문 용어의 통일방안을 찾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표 참여를 허락하여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는 바처럼 금년에는 예기치 못했던 제반 사정으로 함께 모여 발표하고 토론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비대면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여러분께서 해량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대회에 참여해 주시고, 발표를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함과 감사함을 표합니다.

2020. 10. 6.

(재) 외솔회 회장 성낙수

###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를 축하합니다

외솔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마련한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574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잔치라 더욱 더뜻이 깊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학술대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께서는 반듯한 이론과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말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셨습니다. 나라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말글을 지키고 가꾸는 실천 운동에도 온힘을 다하셨습니다. 이러한 외솔의 학문과 정신을 이어나가는 중심에는 외솔회가 있습니다. 그간 외솔회는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바르게 펴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집 현전 학술대회를 마련하여 이론과 실천에서 우리 말글을 지켜왔습니다. 올해로 벌써 열두 번째를 맞이합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나날이 헝클어지고 거칠어가는 우리말을 바로 지키는 일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말글의 실태를 알아보고 다듬고 표준을 마련하는 연구는 꼭 필요하고도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우리말 사용의 실태 그리고 순화와 표준화"로 삼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일상 생활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그 도구가 제 구실을 하도록 각 분야 전문용어, 방송 언어, 남북 언어의 실태를 살피고 가다듬고 표준을 세울 방향을 제시하 는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한글이 목숨'이라고 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신 외솔의 말글 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말과 글, 그리고 얼을 드높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하고 준비한 외솔회 성낙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2020. 10. 6.

#### 574돌 한글날 기념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 축사

- 2020.10.6(화) / 비대면 학술대회 -

안녕하십니까.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입니다.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74돌 한글날, '우리말 사용의 실태 그리고 순화와 표준화'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외솔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께서는 우리의 말과 글을 보존하는 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덕분에 해방 후 우리는 한국인만의 고유한 사고와 문화를 담은 언어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21세기에 이르러 한국어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학당 또한 2007년 13개소였던 것에서 올해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로 약 2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올해 세종학당 신규지정 공모에는 역대 최다인 50개국 101개 기관이 신청하여, 이제 한국어가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언어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늘어가는 우리말·글의 오용 사례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일반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속의 전문어와 방송 언어의 오용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세종학당재단은 해외에서 잘못 사용되는 한국어의 사례를 모아, 이를 바로잡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재단은 국내는 물론 국외의 많은 외국인들이 올바른 우리의 말·글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우리말·글 사용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혂화** 

### 574돌 한글날 기념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

대 주제: '우리말 사용의 실태 그리고 순화와 표준화'

	등록 및 개회식 사회: 김슬옹(세종국어문					
09:30 ~ 09:40	대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40 ~ 10:00	축 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강현화(세종학당 이사장)					
제1부	주제1:	전문 분야의 용어 사용 실태와 순화의 방안	사회: 김슬옹(세종국어문회원)			
10:00 ~ 10:30	이용·미용	용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김진희(경남대학교 교수)			
10:30 ~ 11:00	건축 분( 순화 실점	야 용어의 순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 및 천 방안	윤천탁(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1:00 ~ 11:30	출판·인소	배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이재성(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1:30 ~ 12:00	의복·양지	H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권경일(연세대학교 강사)			
12:00 ~ 13:30	점 심					
제2부	주제2:	방송에서의 말·글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	사회: 박형우(한국교원대학교)			
13:30 ~ 14:00	방송 프	로그램 제목의 문제점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14:00 ~ 14:30	방송의 (	계능 뉴스 등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이종구(방송인)			
14:30 ~ 15:00	방송극어	서 나타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오세곤(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15:00 ~ 15:20	휴 식					
제3부	주제3:	남북한 국어학 용어의 통일 방안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15:20 ~ 15:50	남·북한의	의 '형태론·통사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15:50 ~ 16:20	남·북한의	의 '음운론·의미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6:20 ~ 16:50	남·북한 맞춤법 차이점과 그 통일 방안 -두음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16:50 ~ 17:30	종합토론	. : <b>취소</b> (비대면 강의 준비시간으로 대체)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17:30 ~ 17:40	폐회식	폐회사 :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대회사	성낙수(외솔회 회	회장)
축사 ·		회장)
축사 ·	·····································	사장)

# 우리말 사용의 실태 그리고 순화와 표준화



### 제1부\_전문 분야의 용어 사용 실태와 순화의 방안

이용 · 미용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김진희(경남대학교 교수)1
건축 분야 용어의 순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 및 순화 실천 방안
윤천탁(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9
출판·인쇄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이재성(서울여자대학교 교수)4
의복·양재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권경일(연세대학교 강사) 56



### 제2부\_방송에서의 말·글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문제점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67
방송의 예능 뉴스 등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이종구(방송인)	88
방송극에서 나타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오세곤(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	99
제3부_남·북한 국어학 용어의 통일 방안	
남·북한의 '형태론·통사론' 분야 용어의 사용실태와 통일 방안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	13
남·북한의 '음운론·의미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46
남·북한 맞춤법 차이점과 그 통일 방안	
- 두음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61

### 제1부

# 전문 분야의 용어 사용 실태와 순화의 방안

사회 :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 이용 · 미용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김진희(경남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국어순화는 대체로 대한제국 말기 혹은 광복 전후에 시작했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1) 국어순화 정책의 시작을 대한제국 말기로 보는 입장은 1894년 한글전용의 칙령(제1호 제14조) 반포, 1907년 국문연구소 설치, 1909년 국문연구의정안 작성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과 함께 독립신문의 한글 쓰기나 주시경 선생의 우리말 용어쓰기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관점으로 이는 한자문화의 구질서에 탈피하는 운동의 성격을 가진다(허재영 2015, 김재원 2019, 허철구 2019 등). 한편 해방 직후로 보는 입장으로 본다면 국어순화 정책이 광복직후 1948년 미군정청 문교부에서 『우리말 도로 찾기』모음집 발간과 함께 우리말에서 일본어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운동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다(허만길 1994, 최용기 2003 등). 국어순화 정책의 시작은 어디서보든지간에 국어순화의 역사는 범국민적인 운동 차원에서 우리말을 회복하고 순화하고자 한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국어순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는 순화 대상어를 한자어와 일본어로 보고 이를 우리말로 바꾸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 나라와의 문화적 교류가 급증하고 또 지식의 형성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어를 비롯해 새로운 용어

<sup>1)</sup> 최현배(1954)에서는 국어순화 운동의 목표로 깨끗하게 하기, 쉽게 하기, 바르게 하기, 풍부하게 하기, 너르게 번지도록 하기를 내세웠다. 김석득(1983)에서는 국어순화가 필요한 이유를 들어온 말과 외국 말을 가능한 한 우리 토박이말로 재정립한다는 것, 비속한 말과 틀린 말을 고운 말과 표준 발음, 표 준말, 표준말본으로 바르게 하자는 것이며 또한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치는 것도 포함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허웅(1980)에서는 국어 순화를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을 가려 쓰는 운동이라 정의하였다. 이로 볼 때, 국어순화는 외국말, 비속어, 틀린 말, 어려운 말을 곱고 바르고 쉬운 말로 고치는 운동이라 볼 수 있다.

들이 범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상용어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용어의 혼란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전문 용어는 특정 분야에 속한 전문가들이 업무를 하면서 축적한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 가치, 문화 등과 관련한 용어이다. 전문용어는 전문가 사이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시작하지만, 이제는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용어는 언중의 언어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국민 생활의 공공성 차원에서 순화의 대상이 되었다.<sup>2)</sup>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국어 순화 정책을 실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정부 차원과 별개로 각 지자체나 민간 기관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이 늘고 있다.<sup>3)</sup>

그간의 전문용어의 순화에 대한 성과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전문 분야와 학술 분야로 나누어 국어순화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전문 용어를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학술 용어를'학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직업어를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수하게 발달된 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이용·미용 분야의 용어는 전문용어나 학술용어 보다는 직업어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국어순화를 위해 선정된 전문 분야 중 이용·미용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용어는 전문용어를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사용하는 일상어가 아닌 사용자가 전문인들로 제한되어 있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 본다면, 일상어에 대립되는 용어들은 모두 전문용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우·김성원 201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는 순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용·미용 분야는 이용업(理容業)과 미용업(美容業)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공중위 생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sup>2)</sup> 김아영(2018)과 김미형(2019)에서는 전문용어의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의 개념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김아영(2018)에서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범위를 '전문용어의 순화(어려운 한자어, 낯선 외래어 등을 쉬운 말로 표준화)', '전문용어의 통일(의미의 표준화)', '전문용어 자원의 관리(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로 설정하였다. 김미형(2019)에서는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다듬는 것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자 하는 표준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일한 양식이므로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전문용어의 순화가 자동적으로 포함된다고 하였다.

<sup>3)</sup> 국어 순화의 전개 과정은 허철구(2019)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 순화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관 주도의 국어순화 작업은 1950년대 각종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 1969년 한글 농업 용어 개선 고시(농촌진흥청 농업용어한글전용연구위원회), 1970년대 국어 순화 자료 및 학교 교육용 국어 순화 자료 고시(문교부), 1980년대 행정 용어(총무처), 법령 용어(법제처) 순화 편람고시, 1990년대 이후 행정, 미술, 건설, 언론, 임업, 금융경제, 운동경기, 영화 등의 분야의 국어 순화 작업(국립국어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대부터는 행정안전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전문용어의 국어순화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갈수록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허철구 2019).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오늘날의 이용·미용 산업은 사회의 발달과 경제 성장과 함께 개인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대중들이 찾은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용·미용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뿐 아니라 대중들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용어가 된지 오래다.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 사용 실태 분석과 관련한 연구로는 문혜진(2012), 서명주(2013), 허미혜(2013), 김현숙(2015), 조미자(2017), 이영아·이재숙(2019)이 있다.4) 이 연구들은 미용 분야 중에서 머리(헤어), 화장(메이크업), 얼굴(피부) 중의 한영역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의 사용 실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은 주로교과서에 제시된 전문용어였으며 국어 순화의 측면 보다는 교과서와 편수자료의 용어불일치에 한정하여 논의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통해 이용·미용사가 상당부분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용·미용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에 대한 분석과 국어 순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용·미용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순화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전문용어의 국어 순화 작업에서 배제되었던 이용·미용 분야의 용어가 어떠한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는 동시에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일이 된다.

#### 2. 이용 · 미용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

#### 2.1. 이용 · 미용 분야의 전문용어 선정 방법

4)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 사용 실태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연구 내용
문혜진(2012)	특성화 고등학교 헤어 미용 교과서의 전문용어 사용 실태 분석
서명주(2013)	특성화 고등학교 국정 미용 교과서의 전문용어 사용 실태 분석
허미혜(2013)	미용사(일반)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의 전문용어 분석
김현숙(2015)	특성화 고등학교 피부미용 교과서의 전문용어 사용 실태 분석
조미자(2017)	미용사(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의 메이크업 전문용어 분석
이영아 · 이재숙(2019)	국내 헤어 논문 외래어 오류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용·미용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사용된 전문용어를 조사하였다. 분석 대상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이용·미용사 자격증(이용사(일반), 이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미용장)의 필기시험 문제집 총 6권이다. 각 문제집은 최신에 출간된 문제집으로서 판매량이 높고 분량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목록은 <표1>과 같다.

저자(출판 연도) 자료 이름 출판사 진민준(2020) Win-Q 이용사-이용장 포함 시대고시기획 에듀웨이 R&D연구소(2020) 기분파 미용사 일반 - 미용장 포함 에듀웨이 김종란 · 노영희(2019) 이기적 헤어미용사 영진출판 정연선 · 전현진 · 이혜경(2020) 3일 만에 끝내는 피부 미용사 시대고시기획 김민우(2020) 한권으로 합격하기 미용사 메이크업 크라운출판사 이진영 · 정홍자(2020) 미용사 네일 시대고시기획

〈표 1〉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 선정을 위한 분석 대상

분석 방법은 먼저, 연구자가 이용·미용 국가기술자격시험 주요 항목 중 이용·미용 개론(이용과 미용(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의 이해, 주요 기초 이론, 기기·도구 및 제품, 시술)에서 전문용어를 찾아 첫소리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가 정리한 용어 목록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교육과 학부생 2명과 한국어교육 박사과정 연구원 1인이 충분한 전문용어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전문가 검토를 위해 헤어 미용사 1인과 피부 미용사 1인이 전문용어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분석 용어를 확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확정한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의 예시 및 개수는 <표 2>와 같다.

⟨± 2⟩	연구	내상	용어	예시	닟	개수

용어 첫소리	예시	개수
٦	가위, 강찰법, 그러데이션	44
L	눈썹칼, 남성형 탈모증, 네일 베드	27
E	돌려 깎기, 다공성모,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	30
ㄹ	면체술, 레이어 커트, 라운드형	45
П	머리감기, 메이크업베이스, 미니 가위	41

Н	발톱, 발광등, 버티컬 웨이브	55			
人	솎음 깎기, 세발시술, 섀기 커트	109			
٥	인모가발, 오니코아이코시스, 엔더몰로지기	118			
ス	짧은 목, 정중선, 젤라이너	34			
え	처녀모, 처킹, 친목 메이크업	11			
≒	클리퍼, 큐티클, 코로미톨식 와인딩	36			
E	투명층, 토닉 샴푸, 틴트	19			
<u>II</u>	파상모, 프라이머, 포인트형	68			
ঠ	후처치, 헤어파팅,호상블리치제	44			
기타(영어 약자)	AHA, T.P.O, PH	9			
	계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으로 확정된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 용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나눈 뒤 이에 나타난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국어 순화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2.2. 이용 · 미용 분야의 전문용어 사용 양상

#### 2.2.1. 고유어로 된 용어

고유어는 예로부터 우리가 사용해 온 순 우리말이다. 일반적으로 고유어는 의미 사용의 범위가 넓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이 깃들어 있는 민족어로서의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이용·미용 분야의 용어 총 690개를 분석한 결과, 고유어로 된 용어는 18개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이용·미용 분야 용어에서 고유어의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미용 분야에서 고유어로 된 전문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가위, 거스러미, 거칠게 깎기, 깨짐, 곰팡이, 굵고 살찐 목, 길고 가는 목, 끌어 깎기, 눈썹칼, 돌려 깎기, 떠내 깎기, 머리감기, 밀어 깎기, 발톱, 빗, 솎음 깎기, 손톱, 짧은 목
- (1)을 살펴보면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에서 고유어로 된 용어는'가위', '곰팡이', '빗'과 같은 단일어나 '눈썹칼'과 같은 명사끼리 결합된 합성명사 보다는 '굵고 살찐 목', '거칠게 깎기', '짧은 목'과 같이 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 중에서 외국어를 음역(音譯)한 외래어이지만 해당

용어에 대해 고유어로 풀이하는 경우를 드물게 찾을 수 있었다. 그 예로 에그셸네일 (eggshellnail)을 '달걀껍질손톱'으로,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dry scalp treatment)를 '건성 두피 영양제'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보면 외래어로 된 용어 보다 고유어로 풀이하는 것이 의미 파악 면에서도 쉬울 뿐 아니라 조어력을 결정하는 음절수의 면에서도 경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된 두 용어는 풀이한 고유어로 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미용 분야는 특히 언중의 접근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이용·미용 분야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2.2. 한자어로 된 용어

한자어는 우리말 가운데 한자(漢字)로 적을 수 있는 낱말이다. 한자어는 고대로부터 중국과의 문화 접촉으로 인해 한국어에 차용된 것으로 약 2000여년의 언어 발전 역사속에서 한국어 어휘 체계의 수요와 선택에 의해 고유어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혀 왔으며, 고유어와 부딪히며 끊임없이 서로 배제하고 보완하며 영향을 주고받아 공존해 오기도 했다(묘춘매 2011:139). 특히 한자어는 음절마다 모두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체로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으며 또한 고유어에 비해 격식체이고학문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전문용어 형성 과정에서 한자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미용 분야의 용어 총 690개를 분석한 결과, 한자어로 된 용어는 총 112개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미용 분야의 용어 중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하면 월등히 많다. 이용·미용 분야에서 한자어로 된 전문용어는 다음과 같다.

(2) 가온2욕법, 각질층, 각질판, 강찰법, 건성피부, 견인성 탈모증, 결절열 탈모증, 견진, 경찰법, 고주파기, 고타법, 고화형, 광선관리기기, 기기판독법, 기모근, 기초 화장, 남성형 탈모증, 다공성모, 두발용 용기, 두부, 두정부, 면도, 면도독, 면봉, 면체술, 모간, 모간제모, 모구, 모근, 모근제모, 모모세포, 모유두, 모포, 모수질, 모피질, 무가온2욕법, 문진, 물리적 제모, 미용의자, 민감성피부, 반영구적 염모제, 발광등, 발수성모, 보습, 복합성피부, 부직포형, 비발광등, 사모, 산성산화염모제, 삼각형, (45도)상승형, 섬유 단백질, 세발시술, 소염화장수, 손상모, 수렴시술, 수렴화장수, 수평선, 안면처치, 양모제, 역삼각형, 연화제, 염모제, 염발, 영구적 제모, 원형 탈모증, 유수분측정기, 유연법, 유연화장수, 육모제, 이용의자, 인모가발, 인조가발, 일시적 염모제, 영구적 염모제, 자루면도기, 장력, 저주파기, 전두부, 전처치, 정상모, 정중선, 제모, 제1액,

제2액, 제1제, 제2제, 조갑변색, 조발, 중성피부, 중주파기, 지루성 탈모증, 지방성, 진동법, 직모, 처녀모, 촉진법, 축모, 측두부, 측두선, 측중선, 투명층, 파상모, 표피수분부족 건성피부, 피지선, (45도)하향형, 해양요법, 화장수, 환원제, 후두부, 후처치, 휴지기 탈모증

(2)를 살펴보면 이용·미용 분야 용어의 한자어는 증세를 의미하는 증(症),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의미하는 모(毛), 약품을 의미하는 제(劑),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법(法), 모양을 의미하는 형(形)과 같은 한자어 접사가 단어 형성소로 사용되었다.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용어에 한자어가 많은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빈번한 일이다. 이용·미용 용어의 한자어는 대체로 한자가 친숙한 세대에게는 그리 썩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대에게는 용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또한자(漢字)가 병기되어 있지 않아 용어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아무리쉬운 한자어라 할지라도 고유어보다는 쉬울 수가 없고 또한 이용·미용 분야에서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자어를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고유어가 있다면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자어로 된 용어 중 '강찰법', '경찰법', '고타법'과 같은 경우는 각각 '강하게 문지르기', '가볍게 문지르기', '두드리기'로 대체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도 쉽다. 또 '직모', '축모', '파상모'와 같은 경우도 좀 더 친숙한 '곧은 머리', '반 곱슬 머리', '심한 곱슬 머리'로 대체할수 있을 것이다.

#### 2.2.3. 외래어로 된 용어

외래어는 원래 다른 나라의 단어이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에 동화되어 쓰이는 단어이다. 외래어는 일반적으로 외국어의 모습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처음에는 외국어의 발음이나 뜻이 그대로 쓰이다가 점차 우리말의 발음이나 형태로 바뀌면서 우리말로 동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대개 전문 용어는 일차적으로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쓰기도 하지만, 번역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음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를 음역한용어와 외래어를 나누지 않고 외래어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용·미용 분야의 용어 총 690개를 분석한 결과, 외래어로 된 용어는 총 468개로 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용·미용 분야에서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는 다음 과 같다.5)

- (3) 갈바닉, 골든 백 미디엄 포인트, 골든 포인트, 그러데이션, 그러데이션 커트, 그루브, 그릿, 글 루 드라이, 네일 그루브, 네일 글루, 네일 루트, 네일 베드, 네일 보디, 네일 월, 네일 컨디셔 너, 네일 트리트먼트, 네일 폴드, 네일 폴리시, 네일 폼, 다운셰이핑, 다운 다이애거널 파트, 다 이애거널 웨이브, 다이 터치 업, 다이케이프, 다크빌클립, 대드러프 스캠프 트리트먼트, 덕 테 일 플러프, 데오드란트, 데오드란트 샴푸, 데이크림, 덴맨브러시, 드라이샴푸잉,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 드라이 커트, 마스카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마스크팩, 매니큐어, 매뉴얼 테크닉, 매트릭스, 미디어 메이크업, 바디로션, 바디스크립, 바디오일, 바디클렌져, 바레루 컬, 바리깡, 바블바스, 백코밍, 백 포인트, 백했드, 뱅, 버퍼, 버티컬 웨이브, 베이스, 베이스마스카라, 사이 드 코너 포인트, 사이드 파트, 사이드 포인트, 사인보드, 생딩, 샤워코롱, 샴푸, 샴푸볼, 샴푸잉, 섀기 커트, 섀도우, 섀도우 브러쉬, 오니코그라이포시스, 오니코렉시스, 오니코리시스, 오니코아 이코시스, 오니코아트로피, 오니코크립토시스, 오니코파지, 오니콕시스, 오드콜로뉴, 오니콥토시 스, 오니키아, 오드트왈렛, 오드퍼퓸, 오렌지 우드스틱, 오디너리 레이저, 저미사이드 샴푸, 젤 글루, 카우릭 파트, 커브 팁, 카탈리스트, 캐리어 오일, 캐스케이트, 토너, 토닉 샴푸, 토탈 뷰 티 코디네이션, 트라이앵귤러 베이스, 트로프, 트위스트 베이스, 퍼머넌트 와인딩, 퍼머넌트 웨 이브, 퍼퓸, 퍼프, 패디큐어, 페이스라인, 페이지 보이 플러프, 펜슬타입, 펜슬 핸드, 피벗, 헤어 셰이핑, 헤어스티머, 헤어웨이빙, 헤어컬링, 헤어 O19블리치, 헤어토닉, 헤어틴트, 헤어파팅, AHA, C컬, CC컬, LED, T.P.O, PH, BB크림, CC크림, UV램프 등
- (3)을 살펴보면,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에는 '헤어(hair)', '오일(oil)', '메이크 업(makeup)', '젤(gel)', '네일(nail)'과 같은 외래어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어를 음역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에서 유입된 용어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외국어를 음역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익숙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자료에서는 전문용어 중 오니코아트로피(Onychoatrophy), 오니코크립토시스(Onychocryptosis), 오니코렉시스(Onychorrhexix)을 각각 '조갑위축증(손톱이 부셔져 없어지는 경우, 손톱에 광택이 없어지고 오므라들며 떨어져나가는 증상)', '조내생증(손톱이나 발톱 사이를 파고 자라는 증상)', '조갑종렬증(손톱이 갈라지거나부서지는 상태로 세로의 골이 파져있는 증상)'이라는 한자어로 풀이하고 있는데, 음역한 용어나 한자어 모두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고유어로 순화하자면 각각'오므라든 손톱', '파고든 손톱', '세로골 손톱'과 같이 원래의 의미를 충실하게 담되 더 쉬운 말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미용 분야 용어 중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에서 외래어 표기의 오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용어인데도 어떤 곳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

<sup>5)</sup> 미용·이용 분야의 전문용어 중 외래어로 된 용어 전체는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는가 하면 다른 곳에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지 않기도 했다. 이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실제 영어의 발음과 우리말의 발음 차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크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전문 분야에 사용하는 용어의 경우에는 특수 집단에서 제한된 빈도로사용되는 예가 많고, 그 분야의 종사자에게는 외국어가 일상어처럼 쓰이고 있어 외래어표기에 있어 원음과 가깝게 적으려는 노력으로 인한 오류로 보인다(강현화 2000: 45~46). 다음은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 목록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예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른 표현으로 고친 것이다.

(4) manicure) 메니큐어→매니큐어 (body) 바디→보디

(brush) 브러쉬→브러시 (sponge) 스펀지→스폰지

(eyebrow) 아이브로우→아이브로 (eye shadow) 아이섀도우→아이섀도

(one length cut) 원 랭스 커트→원 렝스 커트 (color) 컬러→칼라 (top) 탑→톰 (total) 토탈→토털

(pedicure) 패디큐어→페디큐어 (permanant) 퍼머넌트→퍼머

(pivot) 피벗→피봇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강현화(2000:53)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용어 사용에 있어서 외래어 표기를 일률적으로 강제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한된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전문 분야 내의 입장 차이로 달리 번역하거나 이미 널리 사용되어 수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고 하였다. 한편 문혜진(2012), 서명주(2013), 허미혜(2013), 김현숙(2015), 조미자(2017), 이영아·이재숙(2019)에서는 미용 분야 내부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국어 순화 차원에서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한 외래어 표기 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2.2.4. 혼종어로 된 용어

혼종어는 두 개 이상의 다른 어종을 가진 언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둘 이상의 어종이 섞여 만들어진 혼종어는 현재 신조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어종 유형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재생산·확산되고 있다(권정현 2016:2). 장흥권 (2014)에서는 신어의 생성 원리를 고려할 때, 국어의 어종 유형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 전문용어의 용어 실태 분석 연구

에서도 혼종어를 국어의 어종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김미형·서은아 2014, 김정우·김 성원 2012, 오세진·신중진 2016).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함께 혼종어를 국어의 어종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다시 혼종어를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외래어,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가 혼합된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용·미용 분야의 용어 총 690개를 분석한 결과, 혼종어로 된 용어는 총 92개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래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미용 분야에서 혼종어로 된 전문용어는 다음과 같다.

#### (5) ㄱ. 고유어+한자어

가는 모발, 각진 형, 고정 깎기, 굵은 모발, 긴 얼굴형, 등근, 마름모 형, 바깥쪽으로 빠진형, 비듬형, 빗 겸용 가위, 사각형 얼굴형, 손톱판, 수정 깎기, 아래쪽으로 모인형, 안쪽으로 모인형, 여드름 피부, 연속 깎기, 위쪽으로 모인형, 전강가위, 지간 깎기, 착강가위, 화장솜

#### ㄴ. 고유어+외래어

가루 타입, 고무 타입, 거품퍼머넌트, 미니 가위, 벌꿀팩, 붓펜 타입, 살구씨오일, 손 마사지, 실크가위, 시닝가위, 오이팩, 커팅가위, 포도씨오일

#### ㄷ. 한자어+외래어

경락 마사지, 광고 메이크업, 구연산 린스, 글로스형, 냉왁스, 네일 보강제, 남성 위그, 닥터 자켓법, 라운드 스퀘어형, 라운드형, 리프팅기, 멜라닌색소, 면접메이크업, 면체로션, 미경화젤, 미백팩, 매트형, 방송 메이크업, 본식 메이크업, 브로스형, V형 파트, 산성린스, 산성 타입, 산성파마약, 산성 퍼머넌트, 석고 타입, 수렴팩, 스퀘어형, 스포츠형 커트, 습식 매니큐어, 신랑 메이크업, 실내 촬영 메이크업, 스파요법, 안면 매뉴얼테크닉, 알칼리성타입, 엔더몰로지기, 야외 촬영 메이크업, 영양팩, 오벌형, 온왁스, 왁스제모, 우유팩, 유성린스, S형 브러시, 자연네일, 적외선램프, 전동브러시, 전신랩핑, 졸업 메이크업, 충성 파마약, 친목 메이크업, 코로미톨식 와인딩, 포인트형, PH측정기, 화보촬영 메이크업, 호상블리치제

#### 리. 고유어+한자어+외래어 R형 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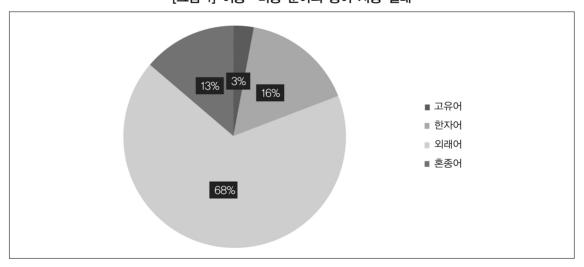
이용·미용 분야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와 결합된 혼종어는 22개로 전체에서 3%를 차지한다. 한자어로 된 전문용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어가 단어 형성소 기능을 하며, 용언의 관형형이나 명사형 어미를 결합하여 통사적 합성어 조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

다. 고유어와 한자어와 결합된 혼종어는 대체로 용어가 긴 편에 속하지만 의미 전달이 정확하고 쉬우며 언어 사용자에게 친근한 느낌을 준다.

반면 고유어와 외래어가 결합된 혼종어는 13개로 전체에서 2%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실크가위', '커팅가위', '미니가위'와 같이 고유어 '가위'라는 단어가 외래어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가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선행 단어가 고유어이고 후행 단어가 외래어인 경우가 많다.

한편 한자어와 외래어가 결합된 혼종어는 56개로 전체에서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종어 중에서 가장 많다. 이는 이용·미용 분야의 용어 중 외래어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한자어가 높은 점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랑 메이크업', '화보촬영 메이크업' 등과 같이 메이크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가 가장 많은데, 이는 대중을 대상으로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외래어를 전부 가져다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한자어를 결합한 형식이다.

지금까지 이용·미용 분야의 용어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용 · 미용 분야의 용어 사용 실태

이용 · 미용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분석한 결과 외래어가 가장 많으며 한자어, 혼종어, 고유어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또한 혼종어 내에서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결합된 전문용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의 전문용어와 마찬가지로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가 전문용어 형성에 생산적이다. 또한 이용·미용 분야의 용어 대부분이

외국에서 유입되었다는 이유에서인지 외래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로 인해 이용·미용 분야에 제시된 외래어나 한자어의 경우 그 단어만을 보고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3. 이용 · 미용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순화 방안

전문용어의 순화는 일상용어를 순화하는 것과는 다르게 용어의 선정, 범위, 순화 지침, 사용자 대상, 정책의 이해관계자 등 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학적 관계로 인해 그실행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미 특정 집단에서 전문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므로 집단 내 심리적 반감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집단 및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ㆍ미용 분야 전문용어의 국어 순화를 정착시키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용·미용 분야의 순화 대상어를 선정할 때, 규범적 측면과 사용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전문용어의 국어순화에 있어서 용어 사용의 맥락, 사용자의 의식과 태도, 정착도와 같은 사용적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규범적 측면에서 외래적 요소를 배격하는 방식으로 순화하는 데에 치중했던 경향이 있다. 이는 여러 논의에서 지적되어 왔던 것처럼 언어 사용자의 전문용어 사용에 대한 폭넓은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이정복 2003, 김선철 2009). 순화 대상어 선정을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박용찬 2011, 허재영 2014). 순화대상어 선정에 있어 사용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 사용자의 충분한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전문용어도 있지만, 일반인에 해당하는 고객과의 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폭넓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미용의 전문용어의 사용 양상을 파악한 뒤 이를 순화 대상어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이용·미용 분야에 특화된 전문용어 순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국어 순화의 성과를 돌이켜 볼 때, 실제로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실패한 데에는 순화어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심지연 2006, 이정복 2003, 박용찬 2010,

2011, 최형용 2012, 허재영 2014). 순화어의 의미가 순화 대상어와 일치하지 않거나, 의미를 떠올리기 쉽지 않거나, 단어성이 떨어지거나, 부정적 의미를 지니거나, 다른 단어와의 체계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어려운 말인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지적되었다(허철구 2015).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와 현장을 연계하여 전문용어를 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순화어를 내놓더라도 학문 분야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전문용어순화 방향6) 아래에 이용·미용 분야의 내부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순화 지침을 설정할필요가 있다. 이로써 이용·미용 분야 내부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현장과 연결하여 순화를 제시하고 사용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 순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용·미용 분야의 순화어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용어 순화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다양한 매체와 언론을 통해 전문용어 순화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미용 현장에서 순화한 전문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 순화 작업이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임현경 2015, 이현주 2017). 이는 이용·미용 분야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용어 순화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된다면 국어순화의 체계적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이용·미용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국어 순화의 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전문용어 선정은 이용·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문제집에서 이용·미용 개론(이용, 미용-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중 이용과 미용의이해, 주요 기초 이론, 기기·도구 및 제품, 시술 등에서 관련 전문용어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 단계를 거쳤다. 그 결과 690개의 용어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용어의 어종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외래어가 전체 690개

<sup>6)</sup> 전문용어의 순화 방향에 대해서는 구본관·이해영(2002), 강현화(2016) 등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의 용례 중 68%인 468개로 나타나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한자어가 112개로 16%를, 혼종어가 92개로 13%를, 고유어가 18개로 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용어에 있어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이용·미용 분야의 용어는 대부분 외국에서 유입되어 외래어가 다른 어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이용·미용 분야의 국어 순화 방안의 방안으로 '이용·미용 분야의 순화 대상어를 선정할 때, 규범적 측면과 사용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 '이용·미용 분야에 특화된 전문용어 순화 지침을 마련할 것', '이용·미용 분야의 전문용어 순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십 수 년 동안 이루어진 전문용어의 국어순화 과정과 성과를 미루어 볼 때 질적인 면에서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특히 이용·미용 분야는 정부 차원이나 학문분야 내에서도 전문용어의 순화 활동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국어순화가 시급한 분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전문용어 순화 방식을 반성해보면, 전문용어의순화가 어려움을 겪은 데는 언어 사용의 측면이 간과되었고, 특정 학문분야나 현장의소통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전문용어의 순화의 정착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체계가미비한 점이 주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문용어의 순화 활동이 장기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언어사용자의 적극적 사용을 목표로 한 순화 대상어 선정, 순화지침 마련, 국어순화의 공감대 형성, 관리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여러모로 다각화된 정책과 실행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강현화(2000), 외래어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국어학적 분석, 어문연구 28(4), 43-55쪽.

강현화(2016), 전문용어 연구의 쟁점, 나라사랑 125, 191-215쪽.

구본관·이해영(2002),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부.

권정현(2016), 전문 용어 순화 정책을 위한 혼종어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형(2019), 전문용어 표준화 연구: 대상어 선정과 순화 기법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7(4), 37-64쪽.

김미형·서은아(2014), 충청남도 공무원의 순화 대상어 사용 실태 연구, 우리말글 61, 105-122쪽.

김민우(2020), 한권으로 합격하기 미용사 메이크업, 크라운출판사.

김석득(1983), 우리말연구사, 정음문화사,

- 김선철(2009), 국어 순화의 개념과 방향 설정에 대하여, 사회언어학 17(2), 1-23쪽.
- 김아영(2018). 전문용어 표준화 개요. 재9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자료집. 33-40쪽.
- 김정우·김성원(2012), 전문용어 조어법 분석의 한 사례: 곤충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 구 13(2), 99-125쪽.
- 김재원(2019), 국어 순화 정책의 흐름과 변화, 문화와 융합 44(4), 1279-1304쪽.
- 김종란·노영희(2019), 이기적 헤어미용사, 영진출판.
- 김현숙(2015), 특성화고등학교 피부미용 교과서의 전문용어 사용 실태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묘춘매(2011), 한자어와 고유어 혼용 표현의 양상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28, 139-152쪽,
- 문혜진(2012), 특성화 고등학교 헤어 미용 교과서의 전문용어 사용 실태 분석, 성결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찬(2010), 국어 순화 논의의 성과와 한계, 새국어생활 20(4), 127-145쪽.
- 박용찬(2011), 누리꾼 참여형 국어 순화 방식의 성과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 21(2), 19-59쪽.
- 서명주(2013), 특성화 고등학교 국정 미용 교과서의 전문용어 사용 실태 분석, 성결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심지연(2006), 국어 순화어의 생성과 정착에 대하여, 한국어학 30, 159-180쪽.
- 에듀웨이 R&D연구소(2020), 기분파 미용사 일반 미용장 포함, 에듀웨이.
- 오세진 · 신중진(2016), 남북 체육 기초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우리말글 70, 25-47쪽.
- 이영아·이재숙(2019), 국내 헤어 논문 외래어 오류 실태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7(1), 449-456쪽,
- 이정복(2003), 사회언어학에 본 국어 순화의 문제점, 사회언어학 11(2), 187-214쪽.
- 이진영·정홍자(2020), 미용사네일, 시대고시기획.
- 이현주(2017), 전문용어 정책의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42, 65-98쪽.
- 임현경(2015), 국내 공공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제언, 통역과 번역 17(2), 27-49쪽.
- 장흥권(2014), 우리 말 외래어연구에서 외래어와 혼종어를 갈라볼데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93, 17-24쪽.
- 정연선 · 전현진 · 이혜경(2020), 3일 만에 끝내는 피부 미용사, 시대고시기획.
- 조미자(2017), 미용사(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의 메이크업 전문용어 분석, 아시안뷰티화장 품학술지 15(4), 479-488쪽.
- 진민준(2020), Win-Q 이용사-이용장 포함, 시대고시기획.
- 최용기(2003),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박이정.
- 최현배선생 환갑기념논문집간행회(1954), (최현배선생) 환갑기념논문집, 사상계사.
- 최형용(2012), 순화어의 형태의미론적 고찰: 국어 참여형 순화어 299개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6. 127-159쪽.
- 허만길(1994), 현대 국어 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 허미혜(2013), 미용사(일반)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의 전문용어 분석,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웅(1980).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 과학사.

허재영(2014),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 지원 및 순화어 정비 연구, 국립국어원·단국대학교 사 학협력단.

허재영(2015), 국어 순화 자료집의 문제점과 순화어 정비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57, 251-274쪽. 허철구(2019), 국어순화의 회고적 고찰, 사림어문연구 27, 1-55쪽.

#### 부록

#### [이용·미용 분야 전문용어 중 외래어로 된 용어 목록]

갈바닉, 골든 백 미디엄 포인트, 골든 포인트, 그러데이션, 그러데이션 커트, 그루브, 그릿, 글루 드라이, 나이트크림, 나칭, 내로우 웨이브, 네이프 백라인, 네이프 사이드라인, 네이프 포인트, 네 일 그루브, 네일 글루, 네일 루트, 네일 베드, 네일 보디, 네일 월, 네일 컨디셔너, 네일 트리트먼 트, 네일 폴드, 네일 폴리시, 네일 폼, 네칭, 노 라이트 큐어드 젤, 노멀 테이퍼, 논스텝, 니버스, 다운셰이핑, 다운 다이애거널 파트, 다이애거널 웨이브, 다이 터치 업, 다이케이프, 다크빌클립, 댄 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 덕 테일 플러프, 데오드란트, 데오드란트 샴푸, 데이크림, 덴맨브러시, 드라이샴푸잉,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 드라이 커트, 드릴머신, 디스인크러스테이션, 디펜디시, 디퓨저, 딥테이퍼, 딥클렌징, 딥프렌치, 라디안, 라운드 브러시, 라운드 사이드 파트, 라운드플러프, 라이트 큐어드 젤, 라텍스퍼프, 래더링, 랙탱귤러 파트, 레몬린스, 레이어 커트, 레이저, 레이저커 트, 로드, 로션, 로션워머, 롤뱅, 롤브러시, 롤러 컬링, 롤링 루프, 롱래쉬타입, 롱스템, 루눌라, 루 카스 스프레이 머신, 루코니키아, 리버스 스탠드업 컬, 리셋, 리지, 리퀴드 드라이샴푸, 리퀴드타 입, 리터치, 리프트 컬, 리프팅, 린넨, 린스, 린징, 림프드레나지, 립글로스, 립라이너, 립밤, 립브러 시, 립스틱, 마스카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마스크팩, 매니큐어, 매뉴얼 테크닉, 매트릭스, 머드 팩, 머시룸, 메이크업베이스, 모이스처, 몰드, 미디어 메이크업, 바디로션, 바디스크럽, 바디오일, 바디클렌져, 바레루 컬, 바리깡, 바블바스, 백코밍, 백 포인트, 백핸드, 뱅, 버퍼, 버티컬 웨이브, 베이스, 베이스마스카라,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젤, 베이스코트, 베이직 커트, 보스 사이드 테이 퍼, 볼륨, 볼륨 마스카라, 뷰러, 브러시, 브러시 아웃, 브러시 클리너, 브러싱, 브로스커트, 브로우 마스카라, 브로우 메이크업, 블로 드라이 스타일링, 블런트 커트, 블로킹, 블로타입, 블루베이스, 비니거 린스, 비팅, 사이드 코너 포인트, 사이드 파트, 사이드 포인트, 사인보드, 샌딩, 샤워코롱, 샴푸, 샴푸볼, 샴푸잉, 섀기 커트, 섀도우, 섀도우 브러쉬, 섀도우 아이브로우, 섀도우 웨이브, 섀 딩, 선블록, 선스크린, 선크림, 선탠오일, 세럼, 세이프티 레이저, 세트레스, 세팅로션, 센터 파트, 센터 포인트, 셀룰라이트, 셰이핑레이저, 소프트왁스, 소프트 터치 샴푸, 슈퍼 커트, 스웨디시마사 지, 스위치, 스윙웨이브, 스캠프 매니플레이션, 스캠프 트리트먼트, 스컴프처 네임, 스컴프처 커트, 스퀘어베이스, 스퀘어 커트, 스퀘어 파트, 스크럽, 스크루 브러시, 스킨, 스킨스코프, 스킨스크러버, 스킵웨이브. 스트랜드 테스트, 스트로크 커트, 스티머, 스틱타입, 스틱핸드, 스팀타월, 스파니엘, 스파이럴와인딩 스템, 스페셜케어, 스프레이, 슬라이싱, 슬래핑, 슬리더링, 슬림라인, 시스테인퍼머

넌트, 시저스 커트, 신장, 실크랩, 싱글링, 싱글프롱클립, 아로마마사지, 아로마테라피, 아몬드오일, 아보카도오일, 아유르베딕 마사지, 아이리드,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아이라인, 아이 크림, 아일론, 아크릴볼, 아크릴 브러시, 아크릴릭 리퀴드, 아크릴릭 스컬프처, 아크릴릭 팁 오버레 이, 아크베이스, 아세톤, 안드로젠, 안티에이징, 애시드 린스, 애프터커트, 앤드 오브 컬, 앤드 테 이퍼, 앰플, 언더 립라이너, 언더프로세싱, 업 다이애거널 파트, 에그 샴푸, 에그셸네일, 에그 파우 더 샴푸, 에그팩, 에세스, 에어브러시, 에포니키움, 업셰이핑, 옐로우베이스, 오니코그라이포시스, 오니코렉시스, 오니코리시스, 오니코아이코시스, 오니코아트로피, 오니코크립토시스, 오니코파지, 오니콕시스, 오드콜로뉴, 오니콥토시스, 오니키아, 오드트왈렛, 오드퍼퓸, 오렌지 우드스틱, 오디너 리 레이저, 오버레이, 오버 프로세싱, 오블롱 베이스, 오일리 스캘프 트리트먼트, 오일팩, 오프 베 이스, 온 베이스, 와이브 웨이브, 와인딩, 왁스팩, 우드램프, 워시오프타입, 워터래핑, 원렝스 커트, 웨그커트, 웨딩메이크업, 웨이브, 웨이브뱅, 웨이브클립, 웨이빙타입, 웨트샴푸, 웨트 커팅, 웨프트, 위그렛, 윗점오일, 이사도라, 이어 백 포인트, 이어투이어 파트, 이어 포인트, 이온토포레시스, 저 미사이드 샴푸, 젤 글루, 젤라이너, 젤스커프처, 젤 파운데이션, 처킹, 치크, 치크라인, 카우릭 파 트, 커브 팁, 카탈리스트, 캐리어 오일, 캐스케이트, 커터, 커트, 커핑, 컨실러, 컬, 컬러린스, 컬러 링, 컬러스프레이, 컬러 크레용, 컬러크림, 컬러테라피기기, 컬러파우더, 컬링로드, 컬링 아이론, 컬링 마스카라, 컬피닝, 케이크타입, 코밍, 코팅, 콜드 아이론, 콜드웨이브,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콜라겐, 콤브러쉬, 콤아웃, 쿠션 아이브로우, 큐어링, 큐티클, 큐티클 오일, 크라운 투 이어 파트, 크레스트, 크로스 체크 커트, 크린싱팩, 크림, 크림 린스, 클래식 커트, 클렌징 로션,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클렌징 젤,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폼, 클리어젤, 클리퍼, 클립, 타이마사지, 탑젤, 탑 코트, 탑 포인트, 탑 골든 미디엄 포인트, 탑커터기, 테스트컬, 테리지움, 토너, 토닉 샴푸, 토탈 뷰티 코디네이션, 트라이앵귤러 베이스, 트로프, 트위스트 베이스, 트위저, 티슈오프타입, 틴트, 팁 브러쉬, 파라핀왁스, 파라핀 매니큐어, 파우더, 파우더 퍼프, 파우더 드라이샴푸, 파우더 브러쉬,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브러쉬), 파운데이션 스폰지, 파이로제닉 그래뉴로마, 파이버글라스, 패러 럴 보브, 패브릭랩, 패치테스트, 팩트타입, 팬브러쉬, 퍼로, 퍼로니키아, 퍼머넌트 와인딩, 퍼머넌 트 웨이브, 퍼퓸, 퍼프, 패디큐어, 페이스라인, 페이지 보이 플러프, 펜슬타입, 펜슬 핸드, 포마드, 포인팅, 폴리시, 푸시 핸드, 풀링, 풀스템, 풀코트, 프라이머, 프레커트, 프렌치 매니큐어, 프렌치 뱅, 프로그레시브샴푸, 프로세싱, 프레셔테라피,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프롱, 프리에지, 프리즈 웨 이브, 프리핸드, 프린지뱅, 플러프, 플러프뱅, 플랩, 플랫컬, 플레인린스,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 트, 피벗포인트, 핀, 핀칭, 핀컬, 필러 파우더, 필오프타입, 핑거볼, 핑거 웨이브, 하드 왁스, 하드 젤, 하이라이트, 하이포니키움, 하프스템, 하프오브베이스, 하프 웰, 핫오일 매니큐어, 핫오일샴푸, 해킹, 핸드드라이어, 핸드크림, 행네일, 헤어다이, 헤어데셍, 헤어라인 팁, 헤어매니큐어, 헤어세팅, 헤어셰이핑, 헤어스티머, 헤어웨이빙, 헤어컬링, 헤어 Q19블리치, 헤어토닉, 헤어틴트, 헤어파팅, 헤어피스, 호리존틀 웨이브, 호프폰팩, 호호바오일, 화이트닝, 화이트 젤, 후드타입, 히팅캡, AHA, C컬, CC컬, LED, T.P.O, PH, BB크림, CC크림, UV램프

#### 제574돌 한글날 기념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

김진희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로7 교육관 306호

전화번호: 055-249-2988

전자우편: koreanedu@kyungnam.ac.kr

## 건축 분야 용어의 순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 및 순화 실천 방안

윤천탁(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건설 현장 등에서 쓰이는 건축 분야 용어1)들은 일본어로 된 것이 많아서 이삼십 년 간 순화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여러 방면에서 순화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일본어로 된 건축 현장 용어2)는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유튜브 등에 올라온 영상 중에는 '노가다 현장 용어', '초보 노가다를 위한용어 정리', '건설 현장 용어' 등 여러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일본어로 된 건설 현장의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건축 관련 학과를나와 사회 초년생이 되어 건설회사의 신입사원이 된 후 자신의 블로그에 건설 현장 노동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현장 용어를 소개하거나 현장 용어를 몰라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곤란했던 상황에 대해서 전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최우용(2019)에 따르면 구한말 전까지 우리말에는 '건축(建築)'이란 단어는 없었고 이에 해당하는 용어로 '영조(營造), 영선(營繕), 영건(營建)' 등이 쓰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이식되었고 개화기 대부분의 서구 문물이 일본을 통해 이식된 것처럼 건축 분야도 그러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일본식 용어의 사용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어식 용어가현장에서 줄곧 쓰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어 왔다. 일단 건축 분야의 종사자

<sup>1)</sup> 건축 용어와 건설 용어를 세분화할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특별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sup>2)</sup> 건축 분야의 학술적 논의 시 사용되는 용어를 '건축 학술 용어'라고 한다면 건축 공사 등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건축 현장 용어'라는 말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건축 현장 용어'와 '건설 현장 용어'처럼 통용되기도 한다.

들이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술을 전수 받는 사람은 전수해 주는 사람이 쓰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자신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썼을 것으로 본다. 또한 건설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용어를 몰랐을 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건설업계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동자들과 대화를 할 때 현장 용어를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무시를 당하는 상황도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현장 용어를 익히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건축 현장 용어가 순화되지 않고 일본어 용어 등이 계속 사용되는 것을 문제 삼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일본어 용어에 익숙하고 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떠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그 자리를 채우면 순화된 용어가 쓰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문화부에서 1992년에 '우리 말 건설 용어집'을 만든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어 용어 등이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을 보면 시간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자체에 대해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직접 논의하지 않고 향후 순화 작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런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순화어를 정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 2. 용어 순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어종이 무엇인지 외래어라면 어느 나라말에 기원하는지 등을 따지고 의미와 용법이 어떤지 등을 살펴 그 용어 자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해 각 용어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지니며 사용하는지, 그러한 용어들은 여러 분야에서 쓰임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해당 용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등을 살펴 그 용어의 실제 사용이 어떠한지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용어를 새롭게 순화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에서 시사점을 얻어 향후 순화어를 만들고 확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1. 용어 자체에 대한 분석

용어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용어의 기원을 살펴 어종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만약 외래어의 경우에는 어떤 나라 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 고유어의 예로는 '진흙', '모래', '자갈', '가새' 등이 있으며 한자어는 '비계(飛階)', '석고(石膏)', '인조석(人造石)' 등이 있으며 외래어의 경우에는 '모르타르(mortar)', '아스팔트(asphalt)', '가꾸목(角木(かくもく))', '노가다(土方(どかた))' 등이 있다. 혼종어로는 '석고보드(石膏board)', '규준틀(規準틀)', '벽돌공(甓돌工)' 등이 있다. 외래어의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서 온 말인지, 해당 나라에서 직접 우리말에 온 것인지 아니면 일본식 발음으로 굳어진 것인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올바른 표기는 '시너'이지만 현장에서 '신나(シンナー)'라고 쓸 때는 희석제를 뜻하는 영어 'thinner'에서 온 말이고 올바른 표기는 '해머'이지만 현장 용어인 '빰데(パテ)'는 영어 'hammer'에서 온 말이며 올바른 표기는 '퍼티'이지만 현장 용어인 '빠데(パテ)'는 영어 퍼티 'putty'에서 온 말이다. 영어 이외에서 온 말도 있는데 '가랑(カラン)'은 스테인리스 스틸 수도꼭지를 의미하는데 네덜란드어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로 해당 용어가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를 따지고 복합어 중에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특정 단어가 여러 단어의 구성 요소로 쓰이는 것이 많은 경우라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다(型(かた)', '가다와꾸(型椊(かたわく))', '야리가다(造り形(やりかた))'에는 모두 '가다(かた)'가 들어 있는데, 이처럼 여러 단어를 만드는 요소로 쓰이는 경우는 순화어를 만들었을 때 파급 효과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순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예들은 각각 '틀', '형틀3)', '규준틀(수평규준틀)'로 순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처럼 동일한 일본어를 동일한 순화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합성어에 쓰일때는 다르게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해당 단어가 어떤 말을 줄인 것이거나 두문자어이거나 할 경우에는 원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빠루(バール)'는 보통 '지렛대'로 번역되는 영어의 'crow bar'에서 'bar' 부분을 일본어식으로 발음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빼빠(ペーパー)'는 보통 '사포'로 번역되는 영어의 'sandpaper'에서 'paper' 부분을 일본어식으로 발음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어

<sup>3)</sup> 서울시에서 제시한 행정 순화어를 보면 '형틀'에 대한 순화어로 '거푸집'을 제시하고 있다.

떻게 순화를 할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어 알파벳이 들어간 용어의 경우에는 어떤 말의 첫 글자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건설 분야에서 쓰이는 TBM은 "측량 따위에서 정확한 수준점을 얻기 어려운 경우, 고정된 지점에 임의의 수준 높이를 정해서만든 기준점"이라는 의미로 'Temporary Bench Mark'의 약자로서 '가수준점(假水準點)'으로 순화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TBM이라고 하면 'Tool Box Meeting'의 약자로서 "작업에 임하기 전에 안전이나 작업 절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벌이는 간단한 토의"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처럼 영어 약자의 경우에는 원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어떻게 순화할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현장 용어 등이 단일한 의미로 쓰이는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단일어처럼 쓰이는 용어는 순화를 만들 때 하나로만드는 것을 고민하면 되지만 다의어처럼 쓰이는 용어는 각 용어에 따른 순화어를 별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네지(ねじ)'라고 하면 '나사(螺絲)'를 일컫는다고 보면 이 단어는 단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노가다(土方(どかた))'에 대해서 '막일'이라고 순화하거나 '막일꾼'이라고 순화하라고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노가다'가 어떤 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특정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다지(下地(したじ))'는 일본어로 "밑바탕,준비나 기초"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페인트 초벌 칠을 뜻하거나 초벌바르기를 하는 모르타르를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술자리에서 쓰면 첫 술잔을 기울여서 술로 위장을 초벌 칠을 한다는 의미로도 쓴다고 한다. 이처럼 특정 상황에서 파생된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있는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한 단어로만 쓰이는 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구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관용구로도 널리 쓰이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 국어에서 '시치미 떼다'라는 관용구가계속 쓰였기 때문에 현재 '시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언중들이 '시치미 떼다'란 표현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장 용어 중에 한 단어형식으로만 쓰이지 않고 이 단어가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된 관용구 형식으로 쓰인 경우에는 순화어를 만들 때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관용구에 대한 순화어를 별도로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장 용어로 쓰이는 '데마찌(手待ち(てまち))'는 일본어 사전에서는 "작업 대기;작업 시간 중에 일거리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이 사라지거나 날씨가 안 좋아지거나 현장 상황이 나빠져서 작업을 못하게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 현장에서는 '데마찌 나다', '데마 나다', '데마찌 맞다' 등 여러 표현으로 쓰이는데, 고용자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구나 관용구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표현을 많이 조사하는 것도 순화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존에 만들어지고 현장에 보급되었던 '우리 말 건설용어집'이나 '올바른 우리말 건설용어집' 등을 보면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와 그에 따른 해설 정도가 나오는데, (관용)구처럼 쓰이는 것에 대한 소개가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것을 정리하면 용어의 생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것의 의미는 어떠한지, 개개용어가 한 단어 형태로 쓰이는지 구나 관용구처럼 쓰이는지를 살펴서 현재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의 생성, 형태와 의미(쓰임, 용법 포함) 등이 어떠한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선행되어야 향후 순화어 선정 및 확산 작업이 용이할 것이다.

#### 2.2. 용어 사용에 대한 분석

용어 사용에 대한 분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할 것인데, 여기서는 용어에 대한 사용자의 의식이나 태도, 용어 사용자의 연령, 용어 사용의 범위와 분야별 사용의 차이 등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다.

첫째로 여러 용어에 대한 사용자의 의식이나 태도 등을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일본어 대신 영어 표현을 선호하거나 쉬운 한자어를 선호한다면, 무조건 고유어 위주로 순화어를 제시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므로 용어 사용자의 의식이나 태도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윤상한(2020)은 일본어계 외래어의 위상에 관해 비교한 연구인데, 아래 표와 같은 어휘를 건설업 종사자와 일반인에게 에게 제시하고 언어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질문지법에 의해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어계 외래어는 언어규범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전문성'이나 '효용성'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면 향후 순화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고유어/한자어	일본어계 외래어	기타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일본어계 외래어	기타 외래어
사포	मभी मभी-	샌드페이퍼	도료	뺑 <i>끼</i>	페인트
망치	함마	해머	작업반장	오야	치프

노루발	빠루	크로우바	천장	덴조	실링
도관	도깡	파이프	흠집	기스	스크래치
널빤지	이따	보드	마무리	시아게	피니시

그런데 의식이나 태도를 조사하는 것은 개개 단어의 세세한 쓰임에 대해 살펴보는 게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소보로빵'을 찾으면 '곰보빵'이 맞는 말로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보로빵'의 '소보로(そばる)'가일본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곰보빵'의 '곰보'의 의미가 "얼굴이 얽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소보로빵'을 '곰보빵'으로 바꿔 사용하라고 해도 이 단어는 언중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순화어로 제시된 단어에 대해 언중들이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로 어떤 세대가 어떤 말을 쓰는지 그리고 순화어가 제시됐다면 어떤 말을 선호해서 쓰고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노수만(2014)의 연구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용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인데, 설문 내용 중에는 일본어식용어와 그에 따른 순화된 우리말을 제시하고 일본어식용어를 사용하는지,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는지, 둘 다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는지를 묻고 있다. 설문조사지에 따르면성별, 연령(20/30/40/50대), 직업(공무원/근로자(민간업체), 경력, 직종(사무/관리/설계·관리/현장근로자) 등을 따로 묻고 있다. 김태희(2008)의 연구에서는 연령 이외에도 학력(중졸 이하/고졸/대졸 이상), 직급(현장 노무자급/수습사원/일반사원/대리급/과장급/현장소장급)에 따른 사용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맡은 일에 따라 어떤 연령 층에서 어떤용어를 쓰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연구에서는 순화된 우리말이 여러 개로 제시된 것 중에 어떤 순화어를 더 선호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어 아쉬움이 있다. 아래의 표는 노수만(2014)의 설문조사에 언급된 50개용어 중 순화어가 2개 이상 제시된 것을 보인 것인데, 각 순화어별 사용 빈도나 선호도를 조사하면 향후 순화 작업에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본어식 용어	순화된 우리말	고유어/한자어	일본어계 외래어
가이단	층계, 계단	시아게	끝손질, 마무리, 뒷손질
가타	틀, 형	야리나오시	다시하기, 고쳐하기
고바이	기울기, 물매	와쿠	틀, 울거미
기렛빠시	자투리, (나무)조각	요코	가로, 옆
바라시	뜯기, 해체	파데(빠데)	땜풀, 퍼티

삿보도(support)	받침대, 지주, 동바리	한마이	반장(쌓기)
시로토	초보자, 벗장이	헤베	제곱미터(m²), 평방미터

셋째로 건축 내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가 차이가 있는지, 건축 분야에서만 쓰이는지 다른 전문 분야에서도 쓰이는지, 다른 분야에서도 쓰인다면 용어의 형태나 의미가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 내에서는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 미장공, 주로 벽돌 쌓는 일을 하는 사람인 벽돌공, 타일 붙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인 타일공등 여러 기술자들이 있을 터인데, 혹시 건축 내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거나 여러 용어 중 선호하는 용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건설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다른 분야나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용어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순화 작업 시 유용할 것이다. '올바른 우리말 건설용어집'을 보면 '건설분야', '일반분야', '기타'로 나누어 일본말에 대한 우리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분야'에서 언급한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쓰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쓰기 때문에 이미 순화가 되었을 확률이 높은데, 이런 순화어를 건축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볼 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일본말	우리말	일본말	우리말
가라	무늬, 바탕	쇼부	결판, 흥정
가부시키	추렴, 주식	신마이	풋내기, 애숭이, 신출내기
간조	셈, 계산	아타리	적중
겐세이	견제	앗사리	산뜻이, 시원스럽게, 깨끗이
겐토	짐작, 어림	야리쿠리	변통, 둘러치기
고마카시	속임(수) 야바위	야지	야유
곤조	심보, 본색	오모차	장난감
구사리	면박, 핀잔	와리칸	나눠내기, 각자부담, 추렴
구세	버릇	우라카키	배서, 뒷보증
구지비키	제비뽑기, 추첨	우라키리	배반
기마에	선심, 호기	유토리	여유
기리카에	바꾸기, 바꿔대기	잇파이	가득, 한껏
기리코미	덤핑(입찰의)	조시	상태, 가락
기즈	<u> </u>	히니꾸	비꼬기, 비웃음
다치노미	선술	히야카시	희롱, 놀림

마에가리	우선지급	히카에	부본(副本), 덧벌, 베낌벌
반카이	만회, 되돌림	히키코미	끌어들이기
분파이	분배, 나눔, 노늠	히키코미센	끌어들임줄(선), 들줄

위 표에 제시된 것 중에 '구사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쿠사리'라는 표제어를 찾으면 "쿠사리(kusa[腐]ri)「명사」→ 핀잔"라고 나와 있고 '기즈'는 '기스'라는 표제어를 찾으면 "기스(kizu[傷])「명사」→ 흠."라고 나와 있다. 일상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말의 순화어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볼트'를 뜻하는 '보도(ボルト)'는 건축 분야 말고도 기계 분야에서 쓰일 수 있고 '전압기'를 뜻하는 '도란스(トランス)'는 전기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해당 용어를 어떻게 순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구 용어 중 '다대((縦)たて)'를 '세로치기'나 '길게치기'라고 순화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건설 용어에서도 세로를 뜻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순화어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예 중 하나이다. 한편 벽돌과 관련된 용어는 미술 분야의 조각과 관련성이 높고 건축 중 목공과 관련된 것은 가구 분야의 용어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유사 분야의 내용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4)

다섯째로 건축 학술 용어와 현장 용어의 차이가 있는지, 같은 건설 분야라도 토목 쪽에서 쓰는 용어와 건축 쪽에서 쓰는 용어가 다른 게 있는지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 관련 공공기관, 시공사, 감리사, 현장 관리자, 현장노동자 등 여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현장 용어의 사용에 대해 어떤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고 관련 직종 종사자의 나이나 역할 등에 따라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선호하고 있는지, 건축 관련 분야나타 분야에서 용어에 대한 순화어가 같은지 다른지 등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편, 용어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어 현장 용어에 대한 순화어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와 그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 등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하바끼(巾木(はばき))에 대해서 '걸레받이'라고 순화어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으면 "장판방을 걸레질할 때, 벽의 굽도리가 더러워지거나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sup>4)</sup> 이러한 내용들은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루반 [ボールばん, 네.boor bank]'의 경우 미술의 목공예, 금속공예 분야에서는 '틀송곳'으로 순화하고 건설 분야에서는 '목공 선반'으로 순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잘 다뤄져 있다.

굽도리 밑으로 좁게 돌려 바르는 기름 먹인 장판지."라고 나온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찾아도 이와 유사한 설명이 나온다. 그런데 일본어사전을 찾으면 "걸레받이(벽면의 맨 아랫부분에서 바닥과 벽의 마무리를 위해 부착한 수평 부재((部材)))."라고 나온다. 다시 말해 현장 용어로서의 '하바끼'는 바닥면을 걸레질 할 때 벽 아래 부분에 오물이 묻어도 잘 지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석, 목재, 플라스틱 등을 다양하게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현장 용어의 뜻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조사가 잘 되어야 다른 순화어를 찾거나 사전의 뜻풀이를 수정·보완하거나하는 일이 후속될 수 있을 것이다.

### 2.3. 기존 순화 작업의 성과 검토

기준 순화 작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작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 순화 작업 결과물 수집 및 검토, 각 순화어의 정착 결과 점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로 기존의 민간이나 공공 기관, 학회 등에서 건설 현장의 용어에 대해 순화하려 고 노력한 것을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가 배포한 '우리 말 건설용어집', 대한건설 단체총연합회와 한글학회가 배포한 '올바른 우리말 건설용어집' 등은 건설용어를 본격적 으로 순화하려는 노력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에서 배포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서울시에서 배포한 '서울시 행정순화어' 등은 여러 분야의 용어에 대해 다룬 것인데, 이 가운데 건축과 관련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자료를 모을 때는 여러 공공기관의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일례로 법제처에서 배포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에서는 '구배(勾配)'에 대한 순화어로 '경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순화어에서는 '조립말비계'를 '조립발판'로 순화하고 있다. 순화어를 집대성 할 때에는 공공 기관 이외에도 민간 기업 등에서 시도한 것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언론에서는 2013년에 삼성물산에서 일본어를 비롯해 현장에서 통용되는 외래 어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일본어 건설용어 순화를 위해 300여 개의 일본식 건설 용어 를 우리말로 바로잡은 용어집을 배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용어집에 따르면 '가다 와 꾸'에 대해 '거푸집', '구배'에 대해 '물매(경사)', '가다 아시바'에 대해 '외줄비계'를 순화 어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어사전에서도 순화어를 제시한 것이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함마'에 대해서 "'망치', '큰 망치', '해머(hammer)'로 순화."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내용을 집대성을 하면 특정 용어에 대해 순화어가 제시된 것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비교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나라시(均し(ならし))'는 '고르기', '평탄화 작업', '고루 펴기', '노가다(土方(どかた))'는 '막일', '막일꾼', '(공사판) 노동자', '흙일꾼', '건설현장근로자', '인부' 등 다양한 순화어가 있다는 것을 정리하고 비교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기존에 제시된 순화어가 얼마나 현장에서 쓰이는지 어느 정도 선호되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공사 현장별로 특정 용어와 관련하여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은 작업장별로 사용하는 용어를 수집하는 게 필요한데, 문선옥 외(2013)은 현대 가구제조현장에서 사용되는 가구용어를 연구한 것인데, 특정 가구 회사의 사업장에서 쓰는 용어를 수집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계 명칭으로 모 회사에서는 '전기드릴'을 쓰는 반면, 모 회사에서는 '보루방<sup>5)</sup>(ボールばん[ボール盤])'을 쓰고 있고 '함마'를 쓰는 회사와 '망치'를 쓰는 회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수의 건설사가 운영하는 현장마다 쓰는 용어와 건설사별로 배포한 용어집 등을 살펴서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정착이 된 용어와 정착되기 힘든 용어 등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

# 3. 용어 순화를 위한 실천 방안

앞에서 거론한 여러 선행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용어 순화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순화 대상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여러 관련기관이나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결과물을 만든 후, 이를 확산하여 정착시키는 작업이필요할 것이다.

### 3.1. 용어 순화의 방향 설정

일단 용어 순화 작업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여러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특정 상황에서 특정 개념을 전달할 때에는 다른 용어를 쓰지 말로 이 용어를 쓰라는 뜻으로 한정하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바른 표기를 강조하고 한 종의 단어로 제시되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순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특정 상황에 쓰이는 용어를 한 종의 단어로 표기하는 것에 초점을

<sup>5)</sup> 이 말은 네덜란드어 boor bank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 수도 있지만 구의 형태로 표현하게 하거나 일본어 용어 대신에 외래어, 한자어, 고유어 등의 여러 종의 단어를 제시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현장 용어가 전문 용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표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순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기존의 언어 표현을 좀 더 쉬운 외래어나 한자어로 바꾸거나 가급적 고유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 3.2. 용어 순화의 대상 및 우선순위 마련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순화 작업의 큰 방향을 표준화냐 순화냐로 결정할 수도 있고 개개 용어별로 표준화 쪽을 추구할지, 아니면 순화 쪽을 추구할지를 정할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건설 쪽에만 쓰여 전문 용어로서의 특성을 많이 지니는 것은 표준화를 지향하 되 건설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용어라면 표준화보다는 기존 용어의 개선점을 찾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쪽으로 지향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여러 용어 중에 순화 작업을 더 빨리 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것의 순서를 정할 필요도 있을 듯하다. 당구 용어의 경우에 예전에는 일본 어 용어가 많이 쓰였지만 최근에는 당구 관련 협회의 노력과 당구 동호인의 협조에 힘 입어 여러 용어가 순화어로 대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지는 것은 스포츠 용어의 경우 스포츠 분야의 전문 용어를 스포츠를 향유하는 사람 들도 알아야 하고 둘 간의 용어상의 경계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 해 건설 용어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를 건설의 결과물인 집이나 건물을 사 용하는 사람이 알 필요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벽 안에 벽돌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기구를 이용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 시공 을 했는지를 알기 어렵고 알 이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당구 용어를 사용하는 동호인이 처한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순화 작업을 확실히 추진한다면, 일단은 건설된 결과 물에 쓰이는 용어와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가 일치하는 것을 먼저 확실히 순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하바끼'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완성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걸레받이'이든 다른 용어이든 만들어서 순화어로 정착시켜서 현장 근로자나 건물 사용자가 똑같은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순화 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선순위를 정할 때 는 건설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를 건설 분야에서만 쓰이는 용어보다 더 우선해서 순화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쿠부치(額縁(がくぶち))'는 우리말샘에서는 "『미술』미술 작품을 팽팽하게 만들어서 끼우는 데 쓰는, 테두리만으로된 틀."이라고 풀이하면서 '액자'나 '틀'로 순화하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용어는 건설 현장에서는 "문틀 옆면에 대어서 옆면 미장 바름을 아무리고 장식하는 나무의 테"라는 뜻과 문선 문틀 위에 덧대어 잇는 몰딩이나 천장 몰딩 등의 뜻을 지닌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이 용어는 여러 분야에서도 쓰이고 건설 현장 노동자나 건물 사용자가 다 쓸수 있는 용어라고 보면 순화의 우선순위가 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본다.

### 3.3. 용어 순화에 적극적인 동참 유도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우리말 다듬기와 같은 방식을 시도하면 좋을 듯하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는 건설 업체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순화 대상어를 사이트에 게시하고 나서 각자가 순화어로 적절한 것을 제시하게 한 후, 순화어 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된 것을 여러 단체나 개인에게 배포하여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순화어 선정 작업 시에는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건설용어와의 괴리도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실제 용어 순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나 그들을 고용하는 건설회사 등에서만 나서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건물의 유지 보수 등의 일을 하는 인테리어업자, 건물을 사고파는 일에서 중계를 하는 부동산중계업자, 건물을 구입하여 실제 건물에서 생활할 사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순화 작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구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구 판매점이나 공구 제조회사, 공구 판매 쇼핑몰 등 여러 곳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 작업을 실시하고 그날의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문서인 '건설 작업 일보'를 작성하는 걸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러한 앱 개발자도 순화된 언어를 활용하여 앱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편, 도로공사와 국립국어원이 함께 '고속도로 전문용어 순화집'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결과물을 2020년 10월 중에 공개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나서 순화 작업을 이끄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 3.4. 순화 용어의 확산 및 정착 추진

순화 용어가 확정이 되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2018년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가 함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철도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한 후 15개 전문용어를 순화하고 행정규칙 고시를 완료한 후 철도역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이를 통해 '승계 운전' 대신 '교대 운전', '운전 사령실' 대신 '운행 관제실', '열차 시격' 대신 '운행 간격'으로 순화한 것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건설회사 등에 순화 용어를 확산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는 순화 용어 사용 모범 사업 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작업 일보'를 작성할 때 순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작업 안전 지침 등 여러 문서를 작성할 때도 순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회사에 관급 공사 수주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진 다면 훨씬 빨리 순화어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순화 용어가 여러 방면에서 제대로 정착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방서'라는 용어는 '설명서' 등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는데 아직까지 법령 중에는 '시방서'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순화어를 잘 만들어도 곳곳에 잘 확산되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순화어 작업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4. 맺음말

올해 국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60여 년간 사용되어 오던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인식을 심어 주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결실을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건설업에서 쓰이는 여러 부적절한 용어를 개선하는 것은 향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향후 건설 용어의 순화 작업에서 꼭 염두에 둘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글을 마치고자한다. 건설업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직접 육체노동을 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향후 순화 작업은 단순히 일본어 용어를 순화하는 차원 등을 넘어서서 불평등한 표현을 바꾸거나 건설 종사자와 건물 이용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차원에서 순

화 작업을 지속해 가는 것을 우선시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는 책임자를 뜻하는 '오야가다(親方(おやかた))', 부책임자를 뜻하는 '세와(야꾸)(世話役(せわやく))', 조력공을 뜻하는 '데모도(手元(てもと))' 등의 용어가 존재한다. 공무원 사회에서 급수를 부르지 않고 '주무관'이란 용어를 정착시킨 것처럼 건설 현장도 좀 더 인간이 중심이되는 일터로 바뀌는 차원에서 순화 작업이 이뤄지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희(2008),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일본어계 어휘에 관한 고찰,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수만(2014),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에 대한 연구-충청남도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옥·송호정·김애주·홍승현·박경연·장현영·조숙경(2013), 현대 가구제조현장에서 사용되는 가구용어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제24권 제2호, 한국가구학회.
- 최우용(2019), 식민주의적 건축 용어에 대한 짧은 생각, 새국어생활 제29권 제3호, 국립국어원.
- 윤상한(2020), 일본어계 외래어의 위상에 관한 비교 연구-건설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일본학 제51 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허철구(1995), 건설·미술 분야의 일본어와 대응 양상,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국립국어원.

# 출판·인쇄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이 재성(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1. 서론

우리말에서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려는 국어순화 운동은 일제 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70 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금은 국어순화 운동과 함께 성장한 한글세대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짬뽕, 스시 등과 같은 몇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일본어로 인식되는 단어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40·50대가 평소에 가장 많은 일본어 표현을 접하고 있으나, 20·30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일본어 표현이 40·50대의 절반 수준이며, 10대는 일본어 단어를 거의 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덕배·이연희(2019)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와는 달리, 특수성을 가지는 전문기술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용어 중에는 일본어 용어가 아직도 주요한 전문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근대화된 전문기술이 들어오면서 일본어 용어도 함께 들어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국어순화 운동이 전개될 때, 전문기술 분야에서도 국어순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개인 차원에 머물러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는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이라는 의식과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인원이 적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국어순화 운동의 영향과 자체적인 순화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러한 전문기술직 분야 중 하나가 출판·인쇄 분야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출판과 인쇄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들어와 도제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유입 환경과 운영 방식은 출판·인쇄 분야에서 일본어 용어가 일종 의 표준 용어처럼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전자 출판으로 출판 방식이 바뀌고 한글세대가 출판·인쇄 분야에 유입되면서 일본어 용어 사용이 이제 당연하지 않게 되 었다. 출판 방식이 바뀌면서 영어와 독일어 등의 외래어가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어에 노출된 적이 없는 한글세대와 기존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승민(200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어 용어가 많이쓰이는 의류업이나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의식적으로 일본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대부터 사회경험이 많은 40·50대로 갈수록 일본어 용어가 쓰이는 사회적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 것처럼, 출판·인쇄 분야에 새로이 진입하는 한글세대가 빠르게 출판·인쇄 직종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본어 용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앞서 기술한 것과는 모순되게, 오히려 출판·인쇄 분야에서 일본어 용어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출판·인쇄 분야에 대한 국어순화는 시급한 일이며,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전문기술직 분야 중 하나인 출판·인쇄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용어 중일본어 용어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국어로 순화할 때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출판·인쇄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본어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일본어 용어를 순화하려는 출판·인쇄 분야의 노력 등을 살펴보고, 출판·인쇄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수집하여 일본어 용어 사용 실태를 파악한 뒤, 출판·인쇄 분야의 일본어 용어를 국어 순화어로 대체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순화된 국어 전문용어가 출판·인쇄 분야에서 일본어 용어를 완전하게 대체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2. 출판·인쇄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

# 2.1. 출판·인쇄 분야에서 일본어 용어 사용 원인

다른 전문기술직종에 비해 출판·인쇄 분야에서 일본어 용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국어 순화용어가 자리를 잡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출판·인쇄 분야에서는 도제 체제로 전문기술이 전수되었고 새로이 출판·인쇄 분야에 진입하는 교육생에 대한 초기 인쇄 교육을 일본어 용어를 쓰던 현장 실무자가 담당하면서일본어 용어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인쇄 기자재가

일본에서 수입되면서 일본어로 된 기계의 부품명이나 사용 방법 등이 국어로 순화되지 못한 채 사용되면서 일본어 용어가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국어순화 운동이 일상 생활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출판·인쇄 분야와 같은 전문기술직종에 대해서는 국어순화 작 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더불어 출판·인쇄업계에서 개인적으로 국어 순화어가 만들어 졌지만 공신력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확산되지 못했다. 끝으로, 출판·인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들 사이에서는 책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책을 만들 때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에서 출판 ·인쇄 분야에서 일본어 용어가 지금까지 문제의식 없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 2.2. 출판·인쇄 분야에서 국어 순화 노력

출판·인쇄 분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인쇄출판 용어에 대한 순화 작업을 시작했다. 1976년 《인쇄문화시보》에 '인쇄기술용어 시안 및 해설'이 연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문교부에서 공업고등학교 인쇄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1976년 7월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엮은 《과학기술용어집》이 발간되었다. 1979년 3월부터 3년 동안 《출판문화》에 '출판·인쇄용어'가 연재되었고, 1983년 1월에 《편집·인쇄용어와 해설》이 출판되었다. 출판·인쇄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용어순화는 개인 차원의 용어순화 작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크지 못했다.

1984년에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과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이 출판·인쇄 분야의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용어 5천여 개를 수집하고 정리한 뒤, 인쇄업계와 학계의 심의를 거쳐 복수의견을 붙여 문교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사전심의를 거친 용어를 국어연구소내 국어순화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1986년 6월에 국어순화 용어 1384 단어를 제정했다. 이렇게 제정된 용어들은 《인쇄용어》로 발간되어 이후 출판·인쇄업계에서 발간되는 용어집이나 사전의 기반이 되었다(이성수(1995)).

### 2.3. 출판·인쇄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현황

출판·인쇄 분야의 용어는 크게, 인쇄, 종이, 출판, 제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 <표 4>는 각각 인쇄 관련 현장 용어, 종이 관련 현장 용어, 출판 관련 현장 용어, 제본 관련 현장 용어들이다. 출판·인쇄 분야의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용어 중

심으로 수집하였고, 해당 용어가 일본어 용어인 경우, 이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과 출판·인쇄 관련 현장에서 국어순화 작업으로 블로그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국어순화 용어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본어 용어에 대해 여러 개의 국어순화용어가 제시된 것도 있으며 국어 순화용어가 제시되지 않은 것도 있다.

〈표 1〉 인쇄 관련 현장 용어

일본어 용어	대응 영어	순화 국어 용어	용어 정의
가미무게	picking, lifting, peeling	뜯김	인쇄할 때, 잉크의 점착성이 지나치게 크거나, 종이의 표면 조직의 강도 부족, 표착력 부족 따위가 원인이 되어 지면이 뜯기는 것
고세이즈리	proof	교정쇄	교정을 하기 위하여 찍어내는 인쇄, 또는 그 인쇄물
기어메	gear mark, ribbing	기어 얼룩, 톱니바퀴 얼룩	인쇄면 가로 방향으로 나타나는 줄무늬 모양의 더러 움, 또는 얼룩
넘버링인사쓰		번호 인쇄	볼록판으로 일련번호를 박는 인쇄
니고리		흐림	컬러 인쇄에서 색이 맑게 나타나지 않고 흐리게 되는 것
다이와리		대수 나누기	책거리(페이지물)을 인쇄할 때, 인쇄기 1대에서 한번에 인쇄되는 페이지 수로 판면을 구분하는 것
다이와리호		대수 나눔표	대수 나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편집용으로 작성 하는 표
다치키리반	blleed	화선 자름판	마무름 치수보다 약간 크게 제판하여 인쇄한 후에 끝 마무리를 할 때(다듬 재단할 때), 잘라낼 수 있도록 제 판한 것
단쇼쿠즈리		단색 인쇄	한 가지 색의 잉크로 찍은 인쇄물
돈보	register mark	가늠표 (맞춤표)	여러 가지 색을 겹쳐 인쇄할 때, 각 판의 가늠을 잡기 위해 인쇄판 4면 중앙에 직교된 눈금을 표시한 것
도시	impression	통수	인쇄기에 용지를 넣고 찍히는 회수를 나타내는 단위
도비라	title-page, insidetitle	표제지	서적의 표제, 저작자, 출판사명 따위를 넣은 인쇄물
미카에시	end papers, end leaves	면지	서적의 속장과 표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표지 뒤에 붙이는 4페이지 분의 종이
라쿠초즈리	•	낙장 인쇄	낙장을 메우기 위해 부족분을 더 인쇄하는 것
라쿠가케	work and turn	같이 거리	인쇄용지에 앞판과 뒷판을 같은 판으로 인쇄한 다음, 반으로 자르면 동일 인쇄물이 원지 1장에서 2벌 얻어 질 수 있게 앉히는 방법
베라	leaf	낱장	1장으로 된 종이에 찍은 인쇄물, 낱장 광고 따위를 말함
오모테반	outer from	앞판	책거리(페이지물) 인쇄에서 국판 전지에 1~32페이지를 걸 경우, 앞쪽에 찍은(을) 16페이지분의 판
이로다시	•	색깔 내기	컬러 인쇄를 시작할 때, 색의 상태와 밸런스를 보아, 교

			정쇄와 맞춰보고 잉크 등 그 밖의 것을 조절을 하는 것		
이로즈레		색 어긋남	다색인쇄에서 가늠이 맞지 않아, 색판의 인쇄 위치가 어긋나게 인쇄되는 것		
조스	•	장수	앞, 뒤 양면을 한 장으로 하여 헤아린 것		
하리꼬미	sticking, patching, patching up, stripping, layout	따붙이기, 붙여넣기	대지에 사식문자를 붙이는 일, 포지필름을 레이아웃여의해 대지필름에 붙여 제판용 원판을 만드는 일		
하시라	headline	기둥제목	판면 바깥 여백부에 짜 넣는 제목의 일종		
호사쓰		보충 인쇄	인쇄가 끝난 인쇄물에 색조의 부족, 탈락된 부분을 빌 견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보충 인쇄를 하는 것		
혼가께	Sheetwise, Sheet work	따로 걸이, 2판 양면 인쇄	인쇄를 할 때, 앞판과 뒷판을 별도로 제판하여 인쇄 하는 방법. 앞판을 먼저 인쇄한 다음 뒷면에 뒷판을 인쇄함. 접지하면 그대로 페이지 순이 됨 (반대어 : 돈땡)		
후도리			글씨나 삽화의 색상 테두리에 변경 대상이 되는 글씨나 삽화의 색보다 진한 색을 덧칠하여 색상을 선명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		
혼토비라		표제지	표제지 앞에 앞표제지(책명만 박은 것)가 붙을 경우어 특히 본표제지라고 부름		
히끼바리	operate side gauge, operate side by	당김 맞추기	인쇄물의 가로 기준선은 물림몫이 되며 가로 기준선을 위하여 좌우 쪽 중 어느 한쪽을 맞추는데 왼쪽을 맞춤 으로 할 땐 밀어 맞추기, 오른쪽을 맞출 때는 당김 맞 추기라고 함		

# 〈표 2〉 종이 관련 현장 용어

일본어 용어	대응 영어	순화 국어 용어	용어 정의
고시		종이 꺾임성	인쇄용지의 성질 중 하나. 종이를 가볍게 꺾어 보았을 때 되돌아오는 성질
나리	nattle, snap	(종이) 소리	종이를 두 손가락 사이에 끼고 흔들었을 때 나는 소리
다치오토시	offcut	자투리 종이, 부스러기종이	국판 전지에서 필요한 면적의 종이를 자르고 남은 자투리 종이, 제본에서 다듬 재단할 때 생긴 종이
다테메	machine direction, grain direction	·	세로결 종이의 결이 낱장에서 긴 변에 평행하여 있는 종이
미미			자르지 않은 가장자리
손시	spoilage, maculature	파지	인쇄 또는 제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용이 불 가능한 종이
시와	wrinkle,	주름	파지로 빼놓아야 할 주름진 종이

	luck		
시훈	dust	종이 가루	지면에 묻어 있는 분말 모양의 먼지
우라	back side	뒷면	앞면에 대해 그 뒷면을 말함
아쓰사	thickness	두께	종이의 두꼐
오모테	top, bletside	앞면	종이의 매끄러운 면
오초코	tight adge, cockle	오목	쌓아 둔 종이의 가장자리가 말라 들떠 오르고 가운데 쪽은 바가지처럼 움푹 굽어지는 것
와레	cracking	터짐	판지를 굽혔을 때 생기는 터진 곳
완푸	mill wrapper	포장지	제품을 포장하는 데 쓰이는 종이
요비시	oversheet	예비지	여분 인쇄나 제본 공정에서 손실이 날 수 있는 종이 를 예측하여 사용량에 덧붙여 준비하는 종이
요코메	cross direction, cross grain direction	가로결	종이의 결이 낱장에서 짧은 변에 평행하여 나 있는 것
욘사이		4절지 ·	원지의 가로와 세로를 각각 반으로 재단한 것
하시나미	wavy edge	가 주름	쌓아둔 종이의 주위가 습기로 인해 물결 지어진 상태

### 〈표 3〉 출판 관련 현장 용어

일본어 용어	대응 영어	순화 국어 용어	용어 정의
	tassel	가름끈, 보기끈	책의 읽은 곳 등을 표시하기 위해 책장 사이에 끼워두 는 끈
·	comer	귀발이	양장본에서 표지의 여는 쪽 위아래에 클로스나 가죽 등을 세모꼴로 붙이는 것
	back title	등 글자	등에 인쇄되었거나 박(leaf)으로 표시한 글자, 돋음띠(band) 양장본의 경우, 책등에 가로로 몇 개의 줄이도드라져 나오게 한 것
	outside	동정	책표지의 한쪽 부분에 색다른 클로스나 가죽을 붙일 때, 등가죽과 앞표지의 일부분을 덮는 것
	book band	띠피	책의 표지나 케이스의 아래쪽에 감는 띠 모양의 종이. 서적명, 내용의 간단한 소개 또는 비평의 일부 등을 인쇄하여 광고의 효과를 거둠
	head, top edge	머리	완전히 제책된 책의 위쪽 면
	head band	머리띠, 꽃천	양장본의 경우, 속장의 위아래 양쪽에 붙인 천. 본래는 색실을 서로 엇바꾸어서 접장을 꿰매어 책을 튼튼하게 함과 동시에 장식의 역할을 하며 주로 무늬 천을 사용함
	end paper	면지	책의 속장과 표지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표지의 안쪽에 붙이는 종이를 말하며 책의 속장과 표지가 견고하게

			붙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tail edge	밑	머리와 반대되는 책의 아래쪽 면
	fore edge	배	등과 반대되는 책의 여닫는 쪽
	book joint	책귀	양장본의 경우, 속장 이음 부분의 양모서리를 접어낸 부분
	back	책등	책을 엮은 쪽, 또는 꿰맨 쪽 바깥 부분. 둥근 등 (round back)과 모등(square back)이 있음
	book cover	책커버	책표지 위에 덧씌우는 외피. 자켓(book jacket)이라고 도 하며 책이름, 도안 등을 인쇄한 것과 종이 바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있음
	colophon	판권지	서적, 잡지의 출판사항을 기재한 것. 출판에 관한 사 항을 인쇄하여 붙인 것이나 인쇄한 면
	title paper	표제지	책의 본문 인쇄용지 앞에 붙이는 종이로, 서적의 제목, 부제목, 저자명, 출판사 등이 인쇄되어 있음
	book cover	표지	책의 외장 부분을 말하며 속장을 보호하고 내용을 표시함. 비교적 두꺼운 종이나 판지(card board)등을 사용함. 또 표지를 천이나 가죽으로 싸기도 하며 표지에는 책명, 권수, 저자명, 발행처 등을 표시하고 장식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함
	fly leaves	헛장	면지와 책의 속장 사이에 인쇄하지 않은 종이를 넣는 것
	groove	Š.	양장본의 경우, 표지의 여닫음을 좋게 하기 위해 포장 용지와 책등 사이를 밀착시키지 않고 조금 떼어놓아 홈처럼 골을 내는 것

### 〈표 4〉 제본 관련 현장 용어

일본어 용어	대응 영어	순화 국어 용어	용어 정의
가부리		빗 잘림	재단기로 책의 속장을 자를 때, 기계나 칼이 나빠 잘린 데가 굽게 되는 것
가미오리		기 맞춰 접기	인쇄물의 접지에서 윤곽으로 맞추지 않고 종이의 갓만을 맞춰서 접는 것
가미뵤시	paper cover	종이 표지	한 장의 종이로 둘러싼 표지
가쿠세		모등	본양장의 일종. 등의 모양이 둥글지 않고 모가 나 게 한 것
간논비라키		날개 펴기	좌우 양면의 페이지를 2배로 하여 안쪽으로 접어 넣 은 것
간논오리		날개 접기	종이의 양면을 안쪽으로 접어 넣는 접지 방법
고구치	edge	(책)마구리	다듬재단을 한 책의 3면. 그러나 위쪽(머리)과 아 래쪽(밑)을 제외한 맬 몫의 반대편, 즉 앞쪽(배)을 말함
구루	good bye	거꾸로 싸기	제본에서 잘못하여 표지와 속장의 아래위를 거꾸로 싼 것
기리쓰케뵤시	cutflush	통표지	표지와 속장을 한 번에 다듬재단하여 테가 없는 표지

누키오리	·	접어 빼기	종이를 접을 경우에 1장씩 접는 대신에 여러 장을 겹쳐 놓고 반으로 접는 금을 좀 세게 눌러서 접은 다음 1장씩 빼내는 손 접지의 방법
누키와케	draw and folding	겹찍어나누기	윤전인쇄를 할 때, 1접장에 미치지 않는 자투리 페이지를 배수 또는 4배로 걸어 인쇄한 후 겹쳐서 접혀 나오는 같은 접장을 1장씩 나눈 것
다치와리		나눔 재단	주로 접지 작업의 준비를 위해 인쇄물을 재단하는 것
도지	sewing and stiching	매기	책의 속장이 흩어져 없어지지 않도록 매는 작업. 실매기, 철사매기, 미싱매기, 풀매기, 고리매기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음.
라센토지	coil binding, spiral binding	나선매기	스케치북, 노트 따위의 낱장으로 된 것을 매는 데 이용하는 특수한 제본 양식
란초	incorrect collating, imperfect collating	난장	1권의 책자에서 페이지의 순서가 섞이고 바뀌어 들 어간 것
모구리	·	안 잘림 면	용지의 치수 부족 또는 접지의 잘못으로 잘릴 몫이 없어져서 그 중의 몇 장 정도가 재단되지 않은 것
무센토지	perfect binding, adhesive binding	풀매기	실이나 철사를 쓰지 않고 접착제만으로 접장의 등 을 접합하는 제본 방식
베라초아이	leaf gathering	낱장 모으기, 낱장 장합	낱장으로 된 인쇄물을 장합하는 것
세	back	책등	책자 앞쪽(배)의 반대쪽
세모지	back title	등 글자	서적 등에 넣는 서적명, 저자명, 발행소 따위의 문자
세바리	back lining	등바대	등굳힘할 때, 등을 보강하기 위해 쓰이는 천이나 종이
세이혼	bookbindimg	제본	제책 용지나 인쇄물을 맨 다음, 표지를 씌워 서적, 장부, 앨범 따위를 만드는 것
소구리	collating	접지모음확인, 장합 확인	제본과정에서 접장을 검품하는 것. 장합이 끝난 단 계에서 난장(亂張), 낙장(落張), 복장(複張) 등의 유무를 검사 확인하는 것
시오리	tassel	갈피 끈	끈을 등에 붙여서 책갈피에 끼우는 것
쓰카미혼		•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 만드는 견본. 이에 의해 표 지, 책 가위, 책상자 등의 치수를 결정함.
쓰키모노	annexed matter	부속물앞붙이	뒤붙이 및 별쇄의 그림 따위의 총칭. 삽입광고, 독 자카드, 책 가위, 띠종이 등 출판물에 부속되는 인 쇄물
아토즈케	posterior matter	뒤붙이	책자에서 본문 뒤에 붙는 인쇄물

얏쓰오리	octavo	세 번 접기	16면 접기 인쇄물을 3번 직각으로 돌려 접어 16페 이지가 되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지 방법
어코디언폴드	accordion fold, zigzag fold, pull-out fold, parallel old	병풍 접기	병풍처럼 접는 접지 방식
에미카에시	•	그림 면지	면지에 그림, 사진 등을 인쇄한 것
오레코미	dog's-eared	귀 접힘	접지의 귀퉁이가 접힌 채로 다듬 재단되어 책의 모 서리가 세모꼴로 잘리지 않은 것
오리코미		접어 매 넣기	본문 페이지의 규격보다 큰 별지를 접어서 페이지 사이에 끼워 맨 것
이치부누키		한벌 빼 보기	제본을 하기 전에 본문, 표제지, 별쇄 등 1책분의 속장을 갖추어 보는 것, 또는 갖춘 그 자체
조아이	gathering, collecting	접지 모음, 장합	책자의 속장이 되는 접장을 순서대로 포개는 것
혼세오혼	·		양장 실로 맨 속장을 다듬 재단한 다음 표지를 싸는 방식의 제본. 표지가 속장보다 약간 튀어나온 것이 특징. 표지의 종류에 따라 두꺼운 표지, 얇은 표지로 나뉘며 책의 등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둥근등, 모등으로 구분함

위의 <표 1> ~ <표 4>에서 보듯이, 상당히 많은 일본어 용어가 출판·인쇄 분야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표 3>의 출판 관련 현장 용어, 특히 책자의 각 부 명칭은 일본어 용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어 용어가출판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영균(2007)에서 언급되었듯이 정부 주도로 학계의 전문가 집단이 출판 현장 전문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책 명칭 및 편집용어를 순화하는 정책 연구를 대대적으로 실행하고 이 결과를 2009년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책 명칭 및 편집용어>에 대해 KS 표준 제정을 정하여 순화된 출판 용어가 표준화되어 쓰임으로써 일본어 용어가 사라지고 국어순화 용어가 출판업계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일본어 용어에 대한 순화용어가 정착하려면 국가가 주체가 되어 표준화 작업이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 3. 출판 · 인쇄의 분야 순화어 제정 방향

출판·인쇄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 용어는 5천 단어가 넘는다. 이 중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와 그렇지 않은 용어가 있다. 국어순화의 효율성을 위해 이들 두 종류 중 어느 것을 먼저 순화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국어순화의 주체가 출판·인쇄 분야의 일본어 용어순화 의지가 강하고 출판·인쇄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 국어순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면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부터 순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사용 빈도가 낮은 용어부터 순화하여 출판·인쇄 분야의 전문용어 중에서 국어 순화어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판·인쇄 분야 일본어 용어에 대한 순화 과정에 전문가 등 일부가 참여하는 방식과일반 언중이 참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 등 일부가 참여하는 순화 방식은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순화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판·인쇄분야의 현장에서 일하는 일반 언중들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순화용어의 활용성이 약해질 수 있다. 반면, 일반 언중이 참여하는 방식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합리성은보장받을 수 있지만 참여자의 비전문성과 낮은 참여도 등으로 순화어가 정착되기 쉽지않다는 문제가 있다. 순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있다는 점에서 두 방식 모두 순화어가 정착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순화어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출판·인쇄 분야의 현장에서일하는 일반 언중들이 함께 순화 과정에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나 단계가 필요하다. 출판·인쇄업계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에 대해 실태를조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소외되는 의견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순화용어를 제시해 나가야 한다.

순화는 언어의 순수성 회복이 아닌 소통성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출판·인쇄 분야에서 순화된 용어가 해당 전문기술직종에서 거부감 없이 채택되고 활발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전문용어를 순화할 때에는 전문용어의 성질을 살리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순화어를 고유어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성을 획득한 한자어나 외래어로도 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기술 직종 중 하나인 출판·인쇄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순화할 때에 가능하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한 전문용어 형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순화어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한 전문용어 형성 원

칙에 따르면, (순화된) 전문용어는 ① 순화 전문용어로 지칭 개념을 유추할 수 있어야하며, ② 기존 용어와 개념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순화 전문용어는 ③ 가능한 한 간략하면서, ④ 국어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의미 양상을 따라야 하고, ⑤ 파생어를 산출할 수 있는 구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순화 전문용어는 ⑥ 국어의 형태적, 통사적, 음운적 특징을 충족시켜야 하고, ⑦ 한자어나 외래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고유어를 우선해야 한다.

#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출판·인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실태와 출판·인쇄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어 용어에 대한 순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출판·인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용어에 대해 순화된 국어 용어를 제시한다고 해서 출판·인쇄 분야의 전문용어가 국어 순화어로 바로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순화된 국어 전문용어는 생명력을 갖기가 어렵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지식인들이 저술과 편집 활동을 직접 이행하므로 관련 전문용어의 표준화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표준화 (standardization)란 일반적으로 사물,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 (standards)을 설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단순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김영균(2007)). 그러므로 출판·인쇄 분야에서 순화된 국어 전문용어를 표준화하였을 때 국어 순화 전문용어는 일본어 용어를 대체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전자 출판이 주류를 이루면서 우리말 용어 대신 영어나 독일어 용어의 쓰임이 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개념이나 기자재가 들어왔을 때 사용방법이 정착되기전에 국어 용어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전문기술직 분야에서 국어 전문용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더해 인쇄업계나 출판계의 사업주가 국어 순화어 사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질 때, 출판·인쇄 분야의 순화된 국어전문용어들이 출판·인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연화(2011), 전문용어의 국어화, 새국어생활 21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 고성환(2011),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새국어생활 21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5-18쪽.
- 김선철(2009), 국어 순화의 개념과 방향 설정에 대하여, 사회언어학 17권2호, 사회언어학회, 1-23쪽.
- 김수업(2007), 전문용어 순화 방안, 새국어생활 17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 김영규(2007), 문화표준정책과 편집용어의 표준화, 출판잡지연구 15 1호, 출판연구화회보, 5-51쪽,
- 김하수(2011), 국어 순화의 비판적 대안, 새국어생활 21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123-135쪽.
- 나은기획인쇄(2020), 인쇄용어, 인쇄사전, http://neprintech.com/index.php?mid=dictionary&category=86 0, 나은기획인쇄.
-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1986), 인쇄용어,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 박용찬(2011), 누리꾼 참여형 국어 순화 방식의 성과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 21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19-59쪽.
- 서수옥 편(1983), 편집·인쇄 용어 해설, 범우사.
- 이덕배(2011), 한국어에 잔존하는 일본어의 실태에 관한 고찰, 일본어교육 57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77-88쪽.
- 이덕배·안동미(2019), 50·60대 한국인의 일본식 외래어 사용실태 및 인식, 일본어교육 89집, 한국 일본어교육학회, 25-41쪽.
- 이덕배·이연희(2019), 10·20대 한국인의 일본식 외래어 사용실태 및 인식, 일본어교육 90집, 한국 일본어교육학회, 111-122쪽.
- 이덕배·정보희(2019), 30·40대 한국인의 언어생활 속 일본식 외래어, 일본어교육 88집, 한국일본어 교육학회, 55-68쪽.
- 이동석(2011), 국어 순화 방법론 모색, 새국어생활 21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성수(1995), 아직도 출판계 주변을 맴도는 일제 용어들, 출판저널, 6-7쪽.
- 이연재(2005), 표준화 통한 문화 강국의 길, 개혁시대 29호,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 임익순(2016),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5집 2권, 217-243쪽.
- 정희창(2015), 외래어 순화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어학 67, 한국어학회, 89-104쪽.
- 정희창(2020), 국어 순화 정책의 의미와 공공성, 인문과학 76, 5-32쪽.
- 조태린(2019), 한국의 언어 순수주의와 국어 순화, 어문학 144, 한국어문학회, 115-139쪽.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9), 책 명칭 및 편집용어 KS 표준제정, 학술정보 KS 편집용어 I, 96-99쪽.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9), 책 명칭 및 편집용어 KS 표준제정, 학술정보 KS 편집용어 II, 112-114쪽.
- 한승민(2002), 한국어 속에 공존하는 일본식 용어의 일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제11집, 한민족문화학회, 167-182쪽.

# 이재성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전화번호: 02-970-5413

전자우편: byeolga@swu.ac.kr

# 의복·양재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권경일(연세대학교 강사)

# 1. 들어가는 말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에 남아있는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우리말도로찾기'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말에 남아있는 일본말을 청산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1948년 문교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당시 문교부에서 활동하였던 외솔 최현배 등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활동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 이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의 국어순화 운동이 이어졌으며, 1970년대에는 '국어순화협의회'의 결성을 통해 정부 차원의 '국어순화운동'이 본격화되었고. 1991년 국어연구소가 국립국어원으로 개편되면서 국어순화 운동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어순화의 역사 속에서 성공적으로 순화가 이루어진 '벤또-도시락', '소데나시-민소매', '와리바시-나무젓가락' 등과 같은 많은 예가 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중국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 '다마네기와 다꽝을 더 달라고 하고, 와리바시를 가져다 달라고 하고 야끼만두를 오리벤또에 싸 달라고' 말하는 것이 흔한 것이었는데, 이제이러한 일본어 외래어들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즉 직접 차용에 의한일본어계 외래어의 경우는 언어 대중들의 사용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직업 분야에서는 일본어계 외래어가 여전히 그 쓰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폐쇄적 외래어 사용 양상은 일본어계 외래어의 경우에는 의복양재 분야와 이·미용 관련 직종, 출판 인쇄. 건축 토목 분야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서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외래어의 사용은 해당 업계 종사자들 간이나 외부인들과의 의사소통과 업무 수행에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의류 양재 분야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사용의 양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순화의 실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 2. 의류 양재 분야 용어 순화의 현황

의류 양재 관련 복식 분야에서는 크게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기타 외국어를 기원으로 하는 외래어가 쓰여 왔다. 의류 양재 분야에서 사용되는 교육 용어와 현장용어가 크게 이원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 용어는 우리말 순화어나 국제통용 원어가 쓰이는 경향이 강하지만 의복 제작 과정에 서 쓰이게 되는 현장 용어는 일본어 계통의 외래어가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쓰이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통일을 위하려 1976년 당시의 문교부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의류수출조합에서 '봉제통일용어'를 발표하였고, 1995년 '봉제기본용어순화집' 2009년 '봉제용어순화집' 등을 발간하였는데 이에는 서구 외래어를 비롯하여 주로 일본어 계통의 외래어들에 대한 순화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1) 한국의류수출조합(1976) 봉제통일용어 섬유용어집(1979) 한국섬유공학회. 의류용어집(1994) 한국의류학회. 봉제기본용어순화집(1995), 문화체육부. 국어순화자료집 합본(2003), 「패션용어, 봉제용어」국립국어원 봉제용어순화집(2009) 한국의류산업협회/봉제업종합지원센터

# 3. 의류 양재 분야 외래어의 단계별 특징

### 3.1. 의복 관련 용어

복식 분야의 생산된 결과물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영어나 프랑스어 등과 같은 서구어 계통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일본어 계통의 외래어가 주류를 이루는 생산·제조 단계의 외래어 사용 상황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들 외래어는 복식의 외형, 색상, 부분 등을 나타내는데, 상품의 광고,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일반 인들에게는 생산·제조 단계의 외래어보다 노출도가 더 높은 외래어 들이다.

다음의 예들은 국립국어원의 『국어순화자료집 합본』(2003)중 '패션 용어'(859쪽-884쪽)의 예들 중 일부이다.

(2) 카먼트(garment) 옷, 의류/ 카운(gown) 덧옷/가죽 패치(- patch) 가죽 조각/ 고어 스커트 (goread skirt) 고어 치마/ 그레이딩(grading) 치수 조정/ 네크라인(neckline)목둘레선 / 네크포인트(neck point)목(중심)점/네클리스(necklace) 목걸이/네트(net) 그물 / 노 웨이스트 드레스(no-waist dress) 통허리옷/노 슬리브(no sleeve) 민소매/논 에이지 패션(non-age fashion) 전연령 패션/뉴욕 트래디셔널(New York traditional) 전통 뉴욕풍 / 뉴 웨이브 패션(new wave fashion) 신경향 패션/뉴트릴 칼라(neutral color) 중간색,중성색 니커 보커즈 (knicker bocker) 무릎 바지/니트(knit) =편성(물)/다운 코트(down coat) 오리털 코트/ 다운 (파카) (down parker) 오리털 파카/더블 스커트(double skirt) 이중 치마 / 던들 스커트 (dirndle skirt) 던들 치마/데이 글로 컬러(day glo golor) 형광색/데이타임 웨어 (daytimewear)외출복,주간복/ 데일리 웨어(daily wear) 평상복/ 돔 스커트(dome skirt)반구 형 치마/라그란 슬리브(raglan sleeve) 래글런 소매/라벤더(lavendor) 연보라/라이닝(lining) 안감/레그라이너(leg liner) 고리바지/리버셔블 코트(reversible) 양면코트

위와 같은 패션 용어들은 의류의 명칭이나 의류 소재의 종류, 형태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순화어들이 아직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비자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경우에는 상품의 이름을 알 필요가없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하는 경우 모든 제품은 일정한 상품명이 부여되어있고, 이를 통하여 상품을 주문하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의류 제품의이름에는 순화어를 사용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은 인터넷의 구매 사이트에서실제 제품들의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들이다.

#### (3) 남성복의 예

- ¬. 베이지벨트 울혼방 핸드메이드 코트/블랙 스트레치 더블자켓/네이비 지퍼장식 울혼방 트렌 치코트.
- ㄴ. 베이지 단색 일자핏팬츠/블랙 기모스트레치 스트레이트팬츠
- 그레이 컬러배색 오버핏 블루종점퍼, 연그레이 단색 면혼방 트렌치코트/카키 라쿤퍼 배색 구스다운 점퍼/테일러드카라 울혼방 코트/오버핏 울혼방 코트/오버핏 하이넥 울혼방 코트 /스탠다드핏 집업 블루종
- ㄹ. 블루 스트라이프 면혼방 반팔드레스 셔츠/솔리드 버튼다운 코튼혼방 셔츠.
- 그레이 자스페 스트레치 슬림핏 투버튼 정장세트/울혼방 차콜 글렌체크 레귤러핏 정장세트/네이비 보카시 슬림핏 울 정장세트/그레이 슈퍼슬림핏 인디고 정장세트/그레이 투톤 마이크로 타이트핏 캐주얼수트

#### (4) 여성복의 예

- 그. 플로럴 자수 슬리브 가디건/리브 텍스처 롱 가디건/레터링 인타르시아 롱 가디건/와펜 체크 더블 자켓
- 느. 슬릿 벨보텀 팬츠/슬림핏 슬랙스/컴파운드 크롬 와이드 팬츠/체크 패턴 부츠컷 팬츠/벨로아 슬림핏 팬츠/체크 페블럼 미디 스커트
- 다. 폼폼 커프스 울 원피스/스팽글 니트/글리터 래글런 니트탑/레이어 프릴 체크 블라우스/프릴 프레이드 라인 탑/플리츠카라 롱 원피스

#### (5) 청바지의 예

여성 블랙 빈티지 워싱 일자핏 데님/남성 인디고 데님/남성 기본 워싱 타이트 데님/여성 뒤포 켓 라운드절개 노멀 워싱 블랙 데님

위의 (3)-(5)에서 예로 들고 있는 의류 명칭들은 '색상-형태-종류'(베이지 단색 일 자핏 팬츠), '색상-형태-소재-종류'(블루 스트라이프 면혼방 반팔드레스 셔츠) 등과 같이 소재와 색상 형태, 옷의 종류들을 거의 대부분 외래어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명을 통하여 상품의 형태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터넷에서는 이들이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으므로, 사진을 통해서 제품의 모양을 확인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 (2) ¬의 '리브 텍스처'(빗살무늬 직물)와 같은 예는 사진만으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 (2) ㄴ의 '벨보텀'(bell bottom)은 바지 하단이 종 모양인 바지의 형태를 의미하고, '벨로아 슬림핏 팬트'에서 '벨로아'(velour)는 면을 만들어진 직물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용어 사용은 제조사마다 다르거나 같은 제조사 안에서도 일괄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의 것비나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3.2. 제작 과정 관련 용어

의류의 제작 과정에 사용되는 봉제 용어는 제작 현장에서는 일본어를, 학교에서는 순화어를, 외국어에서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본어 용어, 한국어(순화어) 용어, 영어용어 등이 혼용되어 있어, 의류 제작 과정에서의 소통에서도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많다. 또한 의류학과 전공의 학생들은 제작 실무의 현장에서는 일본어 봉제 용어를 다시 습득해야 되고, 제품의 기획과 이를 주문받는 제작 실무 현장 사이에서의 소통의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작 현장에서는 다음 (5)와 같은 표현이 작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작

업 지시가 쓰일 수 있다.

(6) 이 옷의 앞마이는 오무데가 아닌 우라로 패치하고 에리는 배색소재로 합시다. (앞마이 : 앞여밈, 오무데 : 옷감의 겉면, 우라 : 옥삼의 안쪽 면, 에리 : 카라, 깃)

이러한 제작 과정에서의 일본어 계통의 현장 용어들은 기획자와 제작 실무자 사이에서 용어 사용에 차이에 의해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현장 제작 실무자 간에도 용어 사용이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용어의 규범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생기게 되는 의사

2009년 지식경제부의 후원 하에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는 『봉제용어순화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순화집에서는 207개의 순화 대상 용어에 대하여 뜻풀이를 하고 순화용어를 제시하였다.

주요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봉제용어 순화의 예 (\*봉제용어순화집(2009)에서 발췌함)

대상용어	의미	순화용어
가라	무늬. Pattern.	무늬
가마	재봉틀의 밑실 북을 거는 부분	북집
가부라	소맷부리, 바짓부리의 접어 올린 부분을 말함.	(밭)접단,끝접기
가빠(갑바)	긴 케이프 종류를 지칭하는 포르투갈어 'capa'의 일 본어식 발음. ※ 케이프 :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	케이프
가에시바리 (=가시바리)	실의 풀림을 막아 솔기의 끝 따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한 번 박은 선 위로 다시 덧박아 바느질한 것.	되돌려박기
가자리	장식을 뜻하는 일본어. 가장자리 장식을 나타나게 하는 재봉질 혹은 장식 재봉기.	장식, 장식 재봉기
가후스	영어의 커프스(Cuffs)의 일본어식 발음.	커프스, 소맷부리단
고방시마 (=고방가라)	체크(check) 무늬	바둑판무늬, 체크무늬
구세(쿠세)	원래 일본어의 '버릇', '결점'이란 의미. 몸에 따라 나타나는 옷의 형태로 몸새 또는 그 군주 름 부분을 말한다.	몸새, 군주름
기레빠시	재단하고 남은 천조각	(천)조각, 자투리
기즈(기스)	'흠'을 뜻하는 일본어	흠(집)
기지	옷감을 뜻하는 일본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양복옷감을 기지라 함	(양복)옷감
나가소데	긴소매	긴소매
나나이치	일자형으로 뚫은 단추구멍. 블라우스나 셔츠에 쓰이는	일자형 단추구멍

바지주름
재단, 마름질
싸박이(북한에 서 사용), 가선두르기
상표
상표달기
두루마리
(상의용) 속옷/내의
재봉기
소매트기,소매트임
조리개,고무뜨기
뒤처리
한쪽막이 단추구멍, 재킷단추구멍

예로든 봉제 용어는 일본어의 직접 차용에 의한 것이거나 '영어의 일본식 발음+(일본어)'가 혼성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본어계 외래어들은 생산 현장에서 의류 제작 실무자들이 일종의 전문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들은 일반인이나 초보자들

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것들로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이러한 용어들을 설명하고, 예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봉제용어 중에는 봉제의 전문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대부분이지만, 봉제 과정이 아닌 일반 영역에서도 쓰이고 있는 용어들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도 사용될수 있는 것으로 일상 언어생활에서도 쓰임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순화의 대상에서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7) 기레빠시-자투리/ 기스-흠/기지-옷감/ 시루시(印)-표시/시아게-마무리/시타-보조원/ 싱(芯)-심/시마이-뒤처리/에리-깃/헤라-주걱/

# 4. 의류 양재 분야 외래어 사용에서의 문제

복식 분야 중에서 봉제 분야의 외래어는 현장에서 아직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용자에게는 해당 업계 종사자와 비종사자나 숙련된 기술자와 초보자를 구별하는 기능을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폐쇄적인 용어 사용은 제품의 생산과 유통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음 (7)의 신문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8) 지난 93년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위탁임가공형태의 남북교역은 용어 사용면에서 남북한 간 큰 차이를 보여 정확한 의사전달이 곤란한 것으로 지적됐다.

통일원이 내놓은 "북한 물품품질평가 및 소비자 반응조사"에 따르면 남한기업측이 북한 측에 보내는 작업지시서 포장명세서 등 각종 문서에 한글 외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어 영어 등 외래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 북한 측은 순수 한글사용을 고집, 쌍방 간 정상적인 거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봉제 분야의 각종 용어에서 그 의미가 남북한 간 큰 차이를 보이는 바람에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품질" "선적"이라는 용어가 북한에서는 "질량" "적선"으로 각각 통용되고 있고 한국의 "서류" "원단"이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문건" "천"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매일경제,1994, 12,26)

이러한 용어 사용의 문제는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의류제작 업체들이나 동남아로 진출한 의류업체 들이 실례로서 한국측의 'STYLE'이 북한에서는 '형태'라는 용어로, '봉제

LINE'은 '흐름선', 'PATTERN'은 '형지', 'ZIPPER'는 '쟈크', 'CHECK 무늬'는 '격자무늬', 'COLLAR'는 '영자'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또한 'SIZE LABEL'은 '호수표', 'WASHING CARE LABEL'은 '세척상표', 'CONTENT LABEL'은 '재질 상표'라는 용어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기업에서 흔히 영어로 표기하는 'LOGO'는 '상표'로 'BUYER'는 '주문자'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북한과 위탁임가공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북한 용어의 상당 부분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데 애로가 많다면서 용어의 통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 진출 의류업체들은 생산 현장의 일본어계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인들은 이를 다시 현지어(베트남어 등)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의 소통 뿐만 아니라 해외 의류 제작 현장에서의 소통을 위해서도 표준화된 순화어를 의류 제작 분야의 현장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 5. 맺음말

의류 양재 분야에서는 제품의 기획과 명명, 홍보 등에서는 서구 외래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며, 봉제 등의 제작 현장에서는 일본어계 외래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원적인 용어 사용으로 제품 기획과 현장 생산 인력 간의 의사소통의 혼란 등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국외에 진출한 의류 가공업체 등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국어 순화를 의 목적이 우리말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 문화의 가치와 깊이를 높이고 더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이에는 특정 분야에서 소통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언어 사용의 효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나가 우리말 사용의 실제적인 효용과능률을 높이는 것도 포함된다. 이에 산업 현장의 현실과 정책적 고려를 통한 지속적인산업 현장 언어 순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고성환(2011), 「국어순화의 역사와 전망」, 『새국어생활』 21권2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7), 『국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국립국어원.
- 김경순(1986), 「서양복 제작용어에 관한 연구-교육용어와 현장용어의 현황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0권3호, 한국의류학회.
- 김영운(2013), 「어선에서의 일본식 용어 순화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5권 4호, 한국수산 해양교육학회.
- 김은정(2010), 「개화기부터 광복 이전까지 신문,잡지에 기록된 외래어 복싱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60. 한국복식학회.
- 김수업(2007), 「전문용어의 순화 방안」, 『새국어생활』 17권1호, 국립국어원.
- 김하수 외(2005), 「국어순화에 대하여」(좌담), 『새국어생활』 15권1호, 국립국어원.
- 김하수(2005), 「국어순화의 문제점과 극복의 길」, 『새국어생활』 15권1호, 국립국어원.
- 김하수(2011), 「국어순화의 비판적 대안」, 『새국어생활』 21권2호, 국립국어원.
- 김한샘(2015), 「신어사전에 나타난 근대 사회 문화 연구-의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4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용찬(2007), 「새로운 방식의 외래어 순화」, 『어문연구』 25권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서정목(2015), 「말 다듬기와 어휘 사용의 실제」, 『새국어생활』 25권2호, 국립국어원.
- 송민(1979), 「언어의 접촉과 간섭 유형에 대하여-현대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논문집』 10, 성심여자대학교.
- 송민(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호, 국립국어원.
- 이덕배·정보희(2016), 「한국어에 잔존하는 고유 일본어의 사용실태와 인식에 관한 고찰」, 『일본어교육』 77집, 일본어교육학회.
- 이덕배·정보희(2019), 「30·40대 한국인의 언어생활 속 일본식 외래어-사용실태와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88집, 일본어교육학회.
- 조태린(2019). 「한국의 언어순수주의와 국어순화」. 『어문학144』. 한국어문학회.
- 통일원(1994), 『북한물품 품질평가 및 소비자반응조사』.
- 천호재(2014), 「일본어 외래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여성 패션 외래어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50. 동아시아일본학회.
- 최기선(2007), 「전문용어의 표준화」, 『새국어생활』 17권1호, 국립국어원.
- 최경봉(2007), 「외래어 사용의 긍정적·부정적 측명과 그 수용 방안」, 『어문연구』 35권 1호,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 한국의류산업협회/봉제업종합지원센터(2009), 『봉제용어 순화집』.
- 한승민(2002), 「한국어 속에 공존하는 일본식 용어의 일고찰」, 『한민족문화연구』 11권, 한민족문화 학회.
- 홍민표(2006), 「한국어 속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일본문화연구』 17, 동 아시아일본학회.
- 황광길(2017), 「일본어투 용어순화에 대해서-일본 고유어가 한국에서 한자어로 수용된 것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100집.

# 제2부

# 방송에서의 말·글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

사회 : 박형우(한국교원대학교)

#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문제점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 1. 무엇이 문제인가?

### -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공공성과 규범성

프로그램이란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이다. 방송사가 의도한 목적을 위해 어떤 내용을 전파적 신호로 바꾸어 완성시킨 정신적 산물로써 독립된 하나의 방송 항목 내지 일련의 방송 항목을 총체적으로 일컬어 프로그램이라 한다.1) 프로그램은 제작자의 기획 의도와 성격이 잘 드러나야 하며, 부르고 외우기 쉬워야하며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이다. 또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나 문장은 될수록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논의할 사항은 언어적 관점으로 한정하고 언어외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시청자의 언어생활과 의식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규범성을 유지해야 하며 상업성의 절제가 요구된다. 프로그램 제목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2)

- ① 프로그램 제목 속에는 텔레비전 방송의 내용이나 편성 방향, 주 시청자의 성향 또는 방송사의 이념들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 ②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은 자주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반복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것을 시청하는 수용자는 그 프로그램 제목의 언어적 현상에 쉽게 동화된다.
- ③ 공간적 위치나 형태에 따라 그 의미나 기능을 반영한다는 도상성 이론(iconocity theory)을 적용할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은 시각적으로 다른 글자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적으로 처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주요한 기능을 한다.

<sup>1)</sup> 유세경(2015), 『방송학 원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원, 참조.

<sup>2)</sup> 임규홍(2004),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외래어 프로그램 이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한글 263호, 한글학회. 참조.

그렇다면 현재의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언어적 관점에서 제목으로써의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공공성과 규범성을 기준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제46조(광고효과)

①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상품, 서비스, 기업, 영업장소 등(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따른 협찬 주 및 그의 상품, 서비스, 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광고 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51조(방송언어)

- 삭제
- ②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 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2조(외국어)

①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순화 차워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이외에도 방송사별 '강령'도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우리말 훼손과 파괴 현상은 이제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과 대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언어외적 관점에서 덧붙일 문제점을 한 가지만 언급하면, 협찬사 이 름을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붙이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고, 공 공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이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략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다.3)

<sup>3)</sup>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에 따라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총각네 야채가게' '도전! Outback It Shef'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 2. 왜 심각한 문제인가?

#### -외솔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국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생활의 표현인 동시에, 그 정신생활의 기초 수단이다. 국어는 그 나라 백성에게 민족의식을 북돋우며, 국민정신을 기른다. 말은 일반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며, 겨레말은 그 겨레를 겨레답게 만들며, 국어는 그 국민을 국민답게 만든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 일반을 중시하여야 하며, 겨레는 그 겨레말을 사랑하여야 하며 국민은 그 국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면, 한 국민으로서 그 국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를 수호하며, 이를 길러가는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국어 운동의 방향은 어디에 있으며, 그 목표는 무엇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어 운동의 목표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깨끗하게 하기, 둘째는 쉽게 하기, 셋째는 바르게 하기, 넷째는 풍부하게 하기, 다섯째는 너르게 번지도록 하기가 곧 그것이다. 다음에, 이 다섯 가지 목표에 관하여, 약간의 이론을 베풀고자 한다.4)

## 1.1. 깨끗하게 하기

말을 깨끗이 함에는, 첫째, 외국말이 지저분하게 제 나라말 가운데에 섞이어 있음을 쓸어내어 버림이 필요하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외국의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첫째이거니와, 그 밖에 또 대중이 되지 못하는 말소리를 쓰지 않도록 할 일이며, 대중말이 못되는 말을 안 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앞의 외국말 티 없애기가 대의적 관계의 깨끗이 함에 대하여, 한말씨 자체 아낙에서의 깨끗이 함이다. 이 두 가지는 실로 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쉽고 가까운 우리말을 두어 두고서, 일부러 괴팍스럽게 어렵고 서투른 외국말, 또는 외국말재의 말을 써서, 제 유식을 자랑하고, 제 특권을 옹호하려는 심리를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에로 풀어 놓이고, 자주에로 각성한 우리 겨레의 세워야 하는 앞날의 문화는 마땅히 대중의 문화, 민주주의스런 문화, 한글의 문화라야 한다. 우리는 먼저 우리말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말의 권위를 세우자. 말씨의 권위는 곧 그 말씨의 주인의 권위와 존엄과 영예를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치를 깊이 깨쳐야

<sup>4)</sup> 최현배님의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은 한글 파괴와 훼손의 심각성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철학적 근거를 탄탄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다.

<u>셋째, 우리 겨레에게 앞날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이렇듯 빼어난 한</u> <u>글을 가지고 있는 때문이다.</u> 한길, 바른 길을 놓아두고서, 엉뚱하게 소로, 굽은 길을 잡 아드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

조선말의 '애매하다'는 벌은 받았으나 그 실은 죄 없음을 뜻하는 말이니, '억울하다'와 같은 말이다. 그런데 일어의 '애매(애매)는 조선말의 '모호'와 같은 말이니 조선말 '애매 '와는 딴 판이다. 그렇거늘 언어상 맹목적 사대주의를 받드는 조선 사람들은 그만 '애매 '를 '모호'의 뜻으로 쓰는 일이 적지 아니하니, 이는 말소리만은 조선 말소리이면서, 그 정신은 아주 일본말로 된 것이다. 이렇게 제 말과 제 머리에다가 남의 정신을 갈아 넣은 조선 사람들은 제 딴은 훌륭한 조선 사람, 조선 정신 가진 조선 사람으로 자처하지 마는 그 실은 이러한 환골탈태한 얼빠진 존재인 경우가 적지 아니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슬픈 일이다.

### 1.2. 쉽게 하기

말과 글을 쉽게 하는 것은 그 마로가 글을 쓰는 국민으로 하여금, 크게 유익함을 얻게 하는 근본 도리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와 같이 소수의 특수 계급보다 일반다수의 대중의 행복이, 시대적 요구가 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스런 생활의 건설이 요청되고 있는, 이때를 당하여, 한 나라의 말과 글을 쉽게 하는 것이, 극히 필요한 기초 공작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래로 쉬운 제 어미 말을 천시하여 버려두고서, 구태여 남의 나라말, 한자말을 써 온 것은, 온 국민으로 하여금 낮은 지식의 수준에서 헤매도록 만든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어려운 말일수록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쓰는 사람도 휼륭한사람이 된다는 그릇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자말 가운데에서도 특히 더 어려운 한자말을 일부러 가려 쓰는 버릇이 있음은 깨치는 수고보다, 손으로 쓰기의 수고보다, 눈으로 읽기의 수고를 특히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배우기와 쓰기에는 다소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약 읽기에 비등한 아니, 조금이라도 편함과 쉬움이 있다면, 글자 생활 전체에 있어서, 그것이 훨씬 큰 유익을 주게 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극히 소중한 것은 얻기 어렵지 않고 도리어 얻기 쉬움을 깨쳐야한다. 보라, 저 해와 공기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못 살만한 소중한 것인데, 도리어 우리에게 극히 쉽게 얻어지지 아니하는가? 세상의 예사의 물건은 얻기 쉬울수록 그 값어치

는 떨어진다. 값이 적다. 값이 적은 극도는 값이 없다. 값이 없는 것은 쓸데없는 하찮은 것이다. 그러나 해와 공기 같은 것은 본질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얻기 쉬우며, 따라 값이 없다. 그것은 값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더 좋고, 더 훌륭한 것이다. 우리말에 "값없다"란 말이 한쪽에서 나쁜 것을 뜻하고, 다른 한쪽에는 훌륭한 것임을 뜻하니, 바로 이러한 사리를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우리의 한글은 우리 겨레의 태양이요 공기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극히 얻기 쉬우며, 얻기 쉽기 때문에 값없으며, 값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다. 태양과 공기가 사람에게의 근원이 되는 것과 같이, 한글은 우리 겨레에게 문화의 원천이요. 생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 1.3. 바르게 하기

말과 글을 바르게 하는 것이, 곧,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도리가 된다. 사람의 정신활동의 산물인 말과 글이 바르지 않고는, 그 고귀한 사명을 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바르게 다듬질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말을 바르게 한다 함은 대중소리를 쓰며, 대중말을 쓰는 것이다. 소리의 장단, 강약, 및 높낮이가 정확히 그 자리를 얻게 함이다. 글을 바르게 한다 함은 맞춤법을 정리하여, 만 사람으로 하여금, 다 한가지의 맞춤법을 쓰도록 하는 일이다. 또 글씨는 가로 쓰기로 함이 가장 합리적이요, 능률적이다. 우리는 맞춤법은 어느 정도까지 정리하여 행하는 중에 있지마는, 가로글씨는, 그 실시가 언제나 실현될지, 아직 까만 느낌이 있다. 말과 글을 바르게 하는 일은, 말하기는 극히 간단하지마는 그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복잡한 점이 있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각 개인은 개인으로서 제 힘과 시간을 허비하여 할 것이요, 나라는 나라로서 상당한 차림과 큰 용단이 필요하다.

### 1.4. 풍부하게 하기

말과 글은 우리의 문화 재물이다. 재물이란 사람에게 소용스런 것, 좋은 것은 뜻하는 이만큼, 풍부하고, 넉넉하여야 더욱 좋은 것이 된다. 사람 활동의 목표의 하나는 그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을 풍부하게 함에 있다. 이제, 우리는 말과 글을 풍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욱 정신적 및 물질적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고자 한다.

말을 풍부하게 함에는, 첫째, 낱말의 내용이 풍부하여야 한다. 한 낱말이 한 가지의

뜻을 가지더라도, 그 가리키는 바가 가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한 낱말이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는 것은 그 낱말을 널리, 많이 부리는 것을 뜻함이니, 역시 풍부함이 된다.

다음에는, 낱말의 수가 많음이 곧 그 말의 풍부함을 뜻한다. 한 개인이 말수를 많이 가지고 있음은, 곧 그 개인의 지식이 풍부함을 뜻하나니 동서고금에 유수한 문학자는 다 말수의 부자이며, 그 중세도 더 훌륭한 문학자는 더 많은 말수를 가지고 있었다.

한겨레의 가진 말수를 풍부하게 함에는, 그 겨레의 물질적 및 정신적 생활을 풍부하게 함이, 그 앞서는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본인이 한자를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저 덩달아서, 우리 한국인도 한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세우는 이가 상당히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집에 금궤 속에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 두고서, 가난한 이웃집에서 조석으로 비지로써 배 채우지 않으면 쳐 안기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어째 무섭고 딱하지 아니한가? 우리에게 극히 풍부한 글자를 지어 끼쳐 주신 세종대왕의 영이 계시면 이를 물어보시고서 이 "어리석은 백성"을 얼마나 딱하게 생각하실 것인가?

### 1.5. 너르게 하기

깨끗하고 쉬우며, 바르고 풍부한 말과 글은 마땅히 너르게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말과 글을 생활의 모든 방면에 널리 쓰는 일이다. 우리나라를 가지고 말한다면, 법률, 법령, 그 밖에의 모든 고문서를 다 한글로써 우리말로 적으며, 설교문, 예식문을 우리말, 우리글로써 적으며, 설교와 교수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우리말, 우리글을 사용할것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러한 점에 미치지 못함이 매우 큼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끝으로, 제 나라의 말과 글을 널리 세계에 퍼지어 쓰이도록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그 나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각처에 나가서 활동함이 왕성하여야 하며, 또 그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야 한다.

또, 한 나라의 문화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그 말씨로 하여금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문화는 물과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문화의 정도가 높고, 그 문화를 나타내는 말씨가 발달되어 있으면, 그문화와 말씨는 저절로 그 가까운 곳으로부터 비롯하여 먼 곳에까지 번져가게 되는 것이다.

유식한 사람들이 입을 열면 우리의 독창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한글은 실로 우리 겨

레 독창력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최대 최고의 산물이다. 이렇듯 훌륭하여, 세계 사람이다 경탄하여 마지아니하는 문화의 연장, 생활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지런히 남의 나라의 말과 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남과 같이 되기를 바라니, 제 아무리 남의 흉내를 잘 낸다 한들 제 나라의 말과 글을 쓰는 그 나라 사람에게 미칠 수가 있는가?

이제까지 외솔이 남기신 가르침을 되새겨 본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글 파괴를 우려하고 우리말의 소중함을 인정하는데 왜 단체나 개인이 제멋대로 과오 를 저질러도 언어 현실은 개선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마 비에 가까우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 역시 외솔 선생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문제점을 논하고 있지만 방송 제작의 주체가 이 문제를 모를 리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실천 의지의 문제이고 정신의 깨우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외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어리석인 이가 적어서 큰 걱정이다. 모두 잘난 이, 슬기로운 이들로 들어찼다. 제 잘난 사람, 소위 지식인, 지혜로운 사람으로 들어 찬 우리 사회의 장래가 어떨까? 진정한 대중의 행복과 자유, 국가의 순당한 발전이 약속될 수 있을까? 나는 제군에게 바라노니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라 함이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본다면 인류 발전의 원동력은 다 이러한 어리석은 이들의 행동에 있었다 하겠다. (중략) 약은 사람들에게는 다만 오늘만이 있고 내일은 없으며, 내 몸만 있고 남은 없으며, 내 집만 있고 나라는 없다. 겨레와 나라의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의 걱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략)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주시오. 바꿔 말하면 순진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 주시오."

# 3. 한글 파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텔레비전 방송의 전체 프로그램 중 제목에 외래어가 들어간 프로그램의 비율은 61.2%나 되었는데, 이는 신문 기사 제목의 외래어 비율 42.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5) 또 다른 연구 결과도 58.2%와 59.8%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sup>5)</sup> 임규홍(2004), 참조.

있다.6) 앞에서 언급한 조사 결과가 십여 년 전의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는 이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추정된다. 그 밖에 띄어쓰기 규정에 어긋나게 표기한 비율도 52.9%로 나타난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통계를 내는 것조차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2020년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글문화연대 조사) 국민 중 74%가외국어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3.9%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조어, 줄임말, 외래어의 한글파괴 현상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글문화연대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신문 뉴스 제목과 정부 보도자료 제목의 외국어 남용 및 외국문자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 부처청위원회 중에서 외국어 및 외국문자를 가장 많이 남용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다. 정부에서 1년 동안 낸 보도자료 제목은 총 22,912건이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53건의 보도 자료 제목 중에서 외국어 및 외국문자, 한자를 사용한 보도자료 제목이 494건으로 42.8%가 '국어기본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제 14조 1항인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었다.7)

선행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제목에서 외래어나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방송사별로 조사하거나 프로그램을 기능, 형식, 내용에 의해 분류하고 종류별로 다양한 통계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기별 또는 간헐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 제안해왔던 비판적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우리말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해도 무리한 평가는 아닌 듯싶다. 우리말의 생태적 환경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 더욱 위협적인 것은 유튜브 방송의 활성화이다. 유튜브 방송의 채널 이름은 '해피 아가리, 땡깡, 모찌모찌, 핵잼컴퍼니, 난닝구TV' 등 그야말로 언어의 무법지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글에서는 국내 7개 방송사의 8개 채널(KBS1, KBS2,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과 일부 유튜브 방송의 프로그램 제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프로그램 제목만 보아서는 방송 내용을 예측할 수 없거나 '국어 기본법'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하고, 각 방송사별로 전체 프로그램 제목을 검토하기로 한다. 정화해야 할 대상인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sup>6)</sup> 이주행(2000),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03권, 한국어교육학회, 참조.

<sup>7)</sup> 한글문화연대 누리집

'안디무지크', '백파더', '공부가 머니?', '트로트명가 최애엔터테인먼트 쇼!', '헬로카봇시즌9 리턴즈', '집사부일체', '제시의 쇼!터뷰', '스타다큐 마이웨이', '육자회담(六者會談)', '배태랑',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풍문으로 들었SHOW', '수다학', '이만갑', '스푸키즈3', '할명수', '가치 들어요', '알약방', '시노스톤', '편스토랑', '인더숲', '바이트초이카', '치치핑핑', '소나무', '호치키스HOTCHKISS', '우하다요', '곱슬간지남', '영알남YAN', '쏘야쭝아', '채꾸똥꾸' 등.

# 4.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실태는 어떠한가?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개 방송국 8개 채널의 편성표와 일부 유튜브 방송의 채널명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보기로 한다.8)

#### (KBS1)

기능별 분류		프로그램 제목
보도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3 중계방송-이흥구 대법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sup>1</sup> KBS 뉴스광장 KBS 시청자 포럼 KBS 재난방송센터	
교양	공감 국악 한마당 굿모닝 대한민국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김씨네 이야기 남도지오그래피 남북의 창 다큐 온 다큐 인사이트 더 라이브 동물의 왕국 동행 문화스케치 바다 건너 사랑 바둑왕전 백투더뮤직 사랑의 가족	시사 직격 아시안 피치 안디무지크 야생여정 야생여정 야생여정 플러스 역사저널 그날 열린채널 영상앨범 산 올댓뮤직 우리말 겨루기 이슈 픽 쌤과 함께 이웃집 찰스 인간극장 중계석-2020 교향악축제(강릉시립 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저널리즘 토크쇼 J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sup>8)</sup> 분석 대상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9월 6일까지 방송된 프로그램이다.

	생로병사의 비밀 생방송 심야토론 생활의 발견 세계의 공영방송 가치+ 숨 터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시사기획 창	팔도밥상 한국인의 밥상 행복충청전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TV쇼 진품명품 6시 내고향 6시 내고향(우리 함께/스페셜)
드라마		일일연속극 기막힌 유산
예능	가요무대 독립영화관	

위의 프로그램 제목을 살펴보면 '더 라이브', '시안 피치', '안디무지크', '백투더뮤직', '저널리즘 토크쇼 J', '남도지오그래피', '다큐 온', '다큐 인사이트', '올댓뮤직', '문화스케치', '야생여정 플러스',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등이 국어운동의 목표에 어긋나는 제목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명 제목은 외래어와 한자어를 지양하여 각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으면서 우리에게 친근하고 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디무지크'는 슈베르트의 가곡 'an die musik'라는 독일어로 '음악에게'라는 뜻을 가진다. 이 프로그램 명 제목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말은 아니기에 '바르게'의 구어 운동 목표에 따라 좀 더 대중적인 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안디무지크'를 '한국을 빛낸 음악가들의 이야기'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칭찬하고 싶은 제목도 있다. 최고의 프로그램 제목은 바로 '우리말 겨루기'이다. 이 제목 속에서는 외래어나 한자어의 사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대결'이라는 한자어 대신 '겨루기'라는 단어 사용으로 우리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서정적이고도 부드러운 정취를 내뿜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말 겨루기'라는 제목만 봐도 프로그램인의 제작 의도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목이라 평가할 만하다.

#### ⟨MBC⟩

기능별 분류	프로그램 제목		
보도	12 MBC 뉴스 2시 뉴스 외전 5 MBC 뉴스 930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투데이		
교양	MBC 네트워크특선 MBC 다큐프라임 PD 수첩	생방송 오늘 아침 생방송 오늘 저녁 스트레이트	

	UHD 특선 다큐 하늘에서 본 세계 11 기분 좋은 날 꾸러기 식사교실 다큐플렉스 동해수호대 따라락 따라락 뚝딱맨 반짝이는 프리채널 뽀뽀뽀 친구친구 생방송 연금복권 720+	스포츠 매거진 실화탐사대 이 맛에 산다 치치핑핑 탐나는 TV 통일전망대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드라마	결혼계약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시네마틱드라마 SF8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찬란한 내 인생	
예능	공부가 머니?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스핀오프 여자들의 놀면 뭐하니? 라디오스타 백파더 복면가왕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쇼! 음악중심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전지적 참견시점 출발! 비디오 여행 트로트명가 최애 엔터테인먼트	은밀한 파티 스페셜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에서 백파더는 백(백종원의 성)과 파더(아버지)가 합쳐진 말이다. 백종원이 아버지처럼 일반인들에게 요리의 기초를 알려준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백파더라는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깨끗하게'의 관점에 어긋난다. 또한, 프로그램의 부제인 '요리를 멈추지 마!'는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패러디한 것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송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프로그램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한 낱말이 한 가지의 뜻을 가지더라도 가리키는 바가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풍부하게'의 관점에 어긋난다.

'공부가 머니?'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공부가 무엇일까?'와 '공부는 돈이다.'로 해석할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중의적이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입시 제도와 공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바르게'의 관점에 어긋난 것이며 사교육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머니(Money)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깨끗하게'의 관점에 어긋난다. 교육비를 절감하면서도 자녀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드

러나는 적절한 제목이 요구된다. '트로트명가 최애엔터테인먼트 쇼!'이 프로그램은 '트로트+명가(명성이 있는 사람)+최애(가장 사랑하는)+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쇼(show)'가 합쳐진 말이다. 많은 낱말들이 합쳐졌음에도 이 프로그램이 아이돌이 트로트에 도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최애'와 같은 잘못된 조어법과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풍부하게', '깨끗하게', '쉽게'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 드라마는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하는데 맞춤법의 오용이 나타나면 부작용이더 크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칸남자', '식샤를 합시다'가 이에 해당한다. '나 혼자 산다'는 올바른 맞춤법을 지키고 있는 프로그램 제목이다. 프로그램 제목만 보고도 연예인들의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인 가구가들어나는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까지 유추할 수 있기에 '나 혼자 산다'는 '깨끗하게', '쉽게', '바르게', '풍부하게', '너르게'를 잘 지킨 프로그램 제목 이라 할 수 있다.

#### **(SBS)**

기능별 분류	프로그림	박 제목
보도	SBS 12뉴스 SBS 8시 뉴스 SBS 뉴스 SBS 오뉴스 나이트 라인 뉴스 브리핑 스포츠 투나잇	
교양	고향이 보인다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싶다 꾸러기 탐구생활 네트워크 특선 맨 인 블랙박스 모닝 와이드 문화가중계 민영방송 공동 기획 물은 생명이다 생방송 투데이 생활의 달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애니갤러리 열린 TV 시청자 세상 와이드 정보쇼 알고 보면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인터뷰 게임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스페셜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톡톡 정보 브런치 특집 살맛나는 오늘
드라마	SBS 가이드 SBS 뉴스토리 SBS 스페셜 SBS 특선 다큐멘터리 TV 동물농장 금토드라마 [앨리스]	바이트초이카 스푸키즈3 아침연속극 [엄마가 바람났다] 애니메이션 런닝맨2 스페셜 월화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헬로카봇9리턴즈
예능	SBS 인기가요	접속! 무비월드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런닝맨 맛남의 광장 미운 우리 새끼 백종원의 골목식당 불타는 청춘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정글의 법칙 제시의 쇼!터뷰 집사부일체 트롯신이 떴다
--	---	--

'헬로카봇 시즌9 리턴즈'는 지나치게 외래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제목이다. 불필요한 외래어를 없애고, 방송의 취지를 고려하여 새로운 제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말로 순화 가능한 외래어는 우리말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안녕, 돌아온 자동차 로봇: 그 9번째 이야기'

'스푸키즈3'는 한국 애니메이션이며 Spooky+kids의 합성어이다. 이는 프로그램은 어린 아이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데 완전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외국어 합성어를 접하게 된다면, 외래어에 익숙해져 향후 우리말의 사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spooky'는 '으스스한'의 의미이며, 'kids'는 '아이들'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해석하여 '으스스한 아이들'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집사부일체'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바르게'의 기준에 어긋난다. '제시의 쇼!터뷰'도 마찬가지이다.

#### 〈TV조선〉

기능별 분류	프로그	램 제목
보도	TV CHOSUN 뉴스 네트워크 매거진 뉴스 퍼레이드	
교양	100년의 기록 세기의 비망록 20세기를 움직인 101인 강적들 건강 다큐-100세 인생 안녕하십니까? 건강면세점 건강한 집 굿모닝 정보 세상 기적의 습관 기적의 습관 기적의 인생 꼬마돌 도도 2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 플러스 내 사랑 투유 명심보감 미래를 꿈꾸는 리더의 시간	보도본부 핫라인 사건파일 24 살림9단의 만물상 세계 테마 기행 스타다큐 마이웨이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신동방통 알콩달콩 엄마의 봄날 열린 비평 Tv를 말하다 음악기행 명곡의 고향 인생다큐 마이웨이 탐사보도 세븐 파워! 미래세계의 지배자들

	미스테리야 백세누리쇼 백세시대 프로젝트 위대한 유산	퍼펙트라이프 허풍선의 음악쇼
드라마	-	-
예능	모란봉 클럽 뻔뻔한 랭킹쇼 - 엄지척 뽕숭아학당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의 콜센타 아내의 맛 얼마예요?	

'스타다큐 마이웨이'는 제목 전체가 영어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영어 제목을 한글로 해석한다고 해도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와 성격을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엄마의 봄날'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삶은 제쳐놓았던 엄마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말을 잘 사용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의미와 취지를 잘 담고 있다.

### ⟨JTBC⟩

기능별 분류	프로그램 제목
보도	뉴스ON 아침& 정치부 회의 재해대비-올 여름 날씨 전망 310 중계석 JTBC 뉴스룸
교양	다큐 플러스 맛있는 이야기 미라클 푸드 부부의 발견 배우자 시청자의회 웃고 떠들고 맛있는 하우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스페셜 인생토크쇼 터닝포인트 차이나는 클라스 체인지 표창원의 사건반장 JTBC 스페셜 다큐멘터리 우리가 몰랐던 농장 동물 이야기 TV정보쇼 알짜
드라마	놓지마 정신줄 모범형사 우아한 친구들 우리, 사랑했을까
예능	뭉쳐야 찬다     장르만 코미디       방구석1열     쥬라기캅스

아는 형님	피피루 안전특공대
아형 방과 후 활동	할명수
육자회담	히든싱어6
인더숲	헬로 마이 닥터 친절한 진료실
위대한 배태랑	1호가 될 순 없어

'할명수'는 '박명수 할머니의 하고 싶은 것 다 하기' 내용인데 제목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대표적인 유형의 부적절한 제목이다. '육자회담' 역시 '육자회담(六者會談)'과 고기 육(肉)을 섞은 제목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는 '고기를 사랑하는 여섯 명의 고기 이야기'라고 도저히 프로그램의 내용을 예측할 수가 없다. 국어운동목표 중 '쉽게', '바르게'에 어긋날뿐더러 이러한 조어법의 확산은 다른 유형의 한글 훼손보다 더 우려되는 점이 크다.

'위대한 배태랑'은 '베테랑'이 아닌 '배태랑'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배·태(太)·랑(郞)을 조합한 것이다. 일명 '배·태(太)·랑(郞)'들의 신개념 다이어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데, 한자를 통하여 제작자가 의도한 배·태(太)·랑(郞)의 뜻을 시청자들이 쉽게 추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목으로 교체가 요구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단순한 말의 유희 차원을 넘는 심각한 한글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한 제지가 필요하다.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표현 양식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자들의 일방적인 표현 양식이 허용되는 것은 방송제작 자율의 범위를 넘어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공공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업성의 작동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평범하고 규범적인 것보다는 자극적이고 일탈적인 것에 흥미를 느끼는 대중의 심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송 제작자들에게 시청자(수용자)들이 길들여지고 있다면 단호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채널A〉

기능별 분류	프로	그램 제목
보도	뉴스 TOP10 뉴스A 뉴스A LIVE	
교양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 관찰카메라 24 김진의 돌직구 쇼 서민갑부 수다학 역사 다시보기 천일야사 역사 다시보기 천일야사 어사 박문수	토요 랭킹쇼 특별기획 내 장속에 비만세균이 산다 특별기획 당뇨, 당장 바꿔라! 특별기획 비만, 세균이 당신을 살찌운다 특별기획 중년 건강의 적신호! 갱년기를 극복하라 특별기획 혈관 건강의 핵심! HDL콜레스

	채널A 스페셜 산책 채널A 스페셜 엄홍길과 떠나는 도전 테롤 16좌 시즌 3 행복한 아침 채널A 스페셜 이곳에 머물고 싶다 황금 나침반 재테크 꿀팁백서 채널A 스페셜 힐링 산책 황금나침반 채널A 시청자마당
드라마	채널A 금토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 채널A 금토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 프리뷰
예능	2020 DIMF 뮤지컬 스타 나는 몸신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2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2 스페셜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반짝이는 프리채널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스페셜-오은영의 심화학습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스페셜 침묵예능 아이콘택트 침묵예능 아이콘택트 베스트 침묵예능 아이콘택트 스페셜 풍문으로 들었SHOW 풍문으로 들었SHOW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는 어려움 속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짝들의 이야기인데, '애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말조어법에도 어긋난다. '수다학'은 수학에 다가가서 배우다의 내용인데 전혀 그 내용을에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너르게'의 기준에 어긋난다. '풍문으로 들었SHOW'는우리말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한 예이다. 'SHOW'라는 외국말을 우리말에 섞어 놓아지저분한 말을 만들었다. 이 유형 역시 단순한 말의 유희 차원을 넘는 중대한 한글 훼손이다. 이 대목에서 다시 외솔의 교훈을 되새겨 본다. "부자연한 관계에서 불합리하게생긴 생활양식이나 말씨의 혼란을 부자연한 관계의 제거와 동시에 없애는 것이 문화 양심의 당연한 발로라면, 이런 국가의 힘에 차이에서 비롯된 관계 또한 부자연스럽기에최대한 중화하고 우리말을 깨끗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옳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어렵지 않은 우리말만을 사용하여 국어 운동의 다섯 가지 목표에 어긋나지 않고 잘 만들어진 제목이다. 또한, 남과 북의 화합을 도모하는 소통프로그램으로 이름과의 연관성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 말을 '이만갑'으로 줄여 쓴다면 다시최악이 된다.

#### **(MBN)**

기능별 분류	프로그램 제목	
보도	MBN 뉴스와이드 MBN 종합뉴스 MBN 프레스룸 굿모닝 MBN 뉴스파이터 시사스페셜 아침 & 매일경제 전국네트워크뉴스	
교양	MBN 스페셜 다큐 MBN 토요포커스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나는 자연인이다 생생 정보마당 생생 정보마당 스페셜 성공다큐 최고다 소나무 알약방 알약방 스페셜	열린TV 열린세상 천기누설 천기누설 스페셜 특집다큐 특집다큐H 판도라 현장르포 특종세상 현장르포 특종세상 스페셜 휴먼다큐 사노라면
드라마	우다사(방송종료)	
예능	MBN 스페셜 무비 가치 들어요 보이스 트롯 속풀이쇼 동치미 스포츠 야	시노스톤 알토란 엄지의 제왕 엄지의 제왕 스페셜

독특하고 재치 있는 제목으로 시청자의 흥미를 유도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은 '알약방' 같은 억지 제목을 만들 수 있다. '알아 두면 약이 되는 방송'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이 어찌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방송 종료된 드라마 중에 '우다사3'는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의 줄임말이다. 이와 같은 유형이 확산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사람), '넘사벽'(넘지 못할 사차원의 벽)과 같은 국적 불명의줄임말을 양산할 수 있다. '가치 들어요'의 경우 '가치'를 '같이' 듣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것은 단순한 맞춤법의 오류로 폄하하기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일이다.

'시노스톤'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데 의미도 명확하지 않은 외국어를 그저 멋으로만 가져다 붙였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 (KBS2)

기능별 분류	프로그램 제목		
보도	KBS 뉴스타임         KBS 아침 뉴스타임         KBS 재난방송센터         스포츠 하이라이트         제천 KOVO컵 프로 배구대회-여자부         지구촌 뉴스         통합뉴스룸 ET	결승전	
교양	2TV 생생정보 KBS 중계석-교향악축제 강릉시립 교향악단 KBS 중계석-교향악축제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TV 유치원 UHD 숨터 걸어서 세계속으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누가 누가 잘하나 다큐멘터리 3일 더 라이브 한국인의 밥상	또봇V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랑의 가족 생로병사의 비밀 생생정보 스페셜 생활의 발견 스페셜 세상의 모든 다큐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앙코르 인간극장 영상앨범 산 자동공부책상 위키2 제보자들 캐치! 티니핑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 기막힌 유산 동백꽃 필 무렵 한 번 다녀왔습니다		
예능	1박 2일 강추 개는 훌륭하다 꿀잼 영화가 좋다 노래가 좋아 뮤직뱅크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스페셜 불후의 명곡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살림하는 남자들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튜디오 K 신상 출시 편스토랑 연중 라이브 옥탑방의 문제아들 유희열의 스케치북 주간연예수첩 코리아 온 스테이지-수원 화성 퀴즈 위의 아이돌	

인터넷을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자기 뜻을 빠르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하는 줄임말인 '신상', '꿀잼'. '강추' 등이 방송 프로그램에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꿀잼' 영화가 좋다', '신상 출시 편스토랑', '강추', '개는 훌륭하다' 등과 같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단어는 다양한 낱말의 사용을 통해 풍부해질 수 있는 우리말의 사용을 저해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생긴 단어들을 전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국어 운동의 목표와 현실이 동떨어지게 된다. 학교 교육에서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전달하려는 의식을 먼저 함양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편스토랑'은 식당을 뜻하는 '레스토랑(Restaurant)'과 편의점을 합친 신조어이다. 이

러한 말은 편의점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인 10대~20대의 기호를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 제목으로 보이지만, 젊은 세대를 제외한 기성세대는 이러한 제목을 이해하기 어렵다. '편스토랑'을 '편의점 밥집'이라는 우리말로 바꾼다면 어떤 뜻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일본어, 한자어, 영어를 막론한 어떠한 외국어도 쓰이지 않는 우리말로 구성된 이름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은 누가 보아도 '시청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름이다.

#### 〈유튜브〉

기능별 분류	채널 제목	
정보 전달	EBS프로그램 내역적산/원가산출         또선생         런닝맨 스브스 공식채널         리뷰엉이: Owl's Review         미래채널Myf         상자뭅         스브스뉴스         영알남YAN         황금매물TV	오피니언 우하다요 윱저버 케이티비(KTV) 대한늬우스 키드박-컴퓨터 조립 채널 트래블 튜브 피지컬갤러리 필름에 빠지다
음식(동물)	떡볶퀸 모찌모찌 mochi 백종원의 요리비책 슬로푸드 문화원 야간매점 입짧은햇님 혼술다큐 미짱	
일상(음악)	간지TV 곱슬간지남 낭만고양이티비 노필터티비 동네놈들 팽깡Dancekang 몇일이지나 문정원의 정원 뭐혜연	미지않은 관종언니 설레임 에디션 쏘야쭝아 시즌비시즌 Season B Season 오함마 채널 채꾸똥꾸 타코사마 해피 아가리 호치키스HOTCHKISS
예능(게임)	난닝구TV 양세브라더스 다나쨩 렘쨩 루밍쨩 설레임TV	와썹맨 욜로코믹스 잘익은꽃대하 해피아가리 핵잼컴퍼니

'해피아가리'는 '입담이 좋은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아가리'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는 말의 쓰임이 부적절하며, 국어운동의 목표 중 '바르게'에 어긋난다. '핵잼컴퍼니'의 '핵잼'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재미있다는 의미'를 줄여서 쓴 말로

이 역시 '바르게'에 어긋난다. '몇일이지나'의 '몇일'은 맞춤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며칠'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모찌모찌(mochi, 동물)'는 반려견 이름 김모찌에서 따온 것이며 '호치키스', '오함마 채널', '간지 TV'는 일본어로 지어진 채널 제목으로 평가할 가치도 없다. '호치키스'는 '종이 찍기', '오함마'는 '큰 장도리', '간지'는 '멋'으로 순화해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잘못된 일본식 표현. 외래어 등이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고 그 표현을 지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한다. '난닝구'는 런닝셔츠가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굳혀진 것이다.

# 5.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문제의 프로그램 유형 제시와 제언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한글 부분의 소리를 영어로 나타내는 유형: '풍문으로 들었SHOW'
- 2)문장의 어절 앞 글자를 줄여서 나타내는 유형: '알약방'(알아두면 약이 되는 방송)
- 3)한글과 영어의 혼성 표현으로 나타내는 유형: '백파더'(백종원+파더)
- 4)비슷한 소리의 한글, 영어, 한자를 교체해 나타내는 유형: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 5)외래어와 외국어로만 나타내는 유형: '스타다큐 마이웨이'
- 6)한글맞춤법의 오용으로 나타내는 유형: '공부가 머니?'
- 7)일본말을 한글로 나타내는 유형: '난닝구TV'

위에서 제시한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프로그램 제목을 분류하고 다시 하위분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한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대분류하였기 때문에 기타 유형도 존재할 수 있으나, 분류의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

앞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집약된 결과를 어떻게 현실에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인 접근이다. 즉 '국어기본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외국의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법률' 제정이다. 프랑스에서는 1994년 이 법률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처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률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부와한글 관련 민간 단체가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여 시민운동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모든 국가의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준엄한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발적 제어의 힘이 제도적인 접근 방식보다 더 강할 수 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말은 다시 건강한 생태 환경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방송의 예능 뉴스 등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이종구(방송인)

# 1. 머리말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방송의 예능 뉴스 등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문제점인데 저는 모든 방송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말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듣기 좋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말이다. 또한 우리말은 된소리 예사소리 긴소리 짧은소리로 발음해야 변별력이 생기고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인데 대다수 방송인들이 된소리로 발음해야 할 '잠짜리'를 '잠자리'로 발음하여 곤충을 연상케 하고, '볼꺼리'를 '볼거리'로 발음하여 전염병을 연상케 하고 있고, 긴소리로 발음해야 할 '한:국(韓國)'을 '한국(寒國)'으로 짧게 발음하여 '차가운 나라'로, 적게 먹는다는 '소:식(小食)'을 '소식(消息)'으로 발음하여 소식을 전한다는 뜻으로 만들어 우리말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음하게 만든 원인은 1989년에 개정된한글맞춤법 '다만' 규정과 '예외' 규정 때문이다.

# 2. 잘못된 규정들

# 2.1. 된소리를 예사소리로 만든 규정

표준어 규정 / 제2부 표준 발음법 / 제6장 경음화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그리하여 '할쩡도'를 '할:정도', '할또리'를 '할:도리', '만날싸람'을 '만날:사람', '할쪙우'를 '할:경우', '밀까루'를 '밀:가루', '쌀짜루'를 '쌀:자루', '올뽐'을 '올:봄', '어제쩌녁'을 '어제:저녁', '산짜락'을 '산:자락', '삼년똥안'을 '삼년:동안', '암뗭어리'를 '암:덩어리', '쓰레기때미'를 '쓰레기:더미', '이번쭈:말'을 '이번:주말', '특껌뻐:반'을 '특껌:버반'으로 발음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번딸:말'도 '이번:달말'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표준어 규정 / 제2부 표준 발음법 / 제6장 경음화 /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인들은

"문-소리[문쏘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쌔], 손-재주[손쌔주],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쏙], 술-잔[술짠], 바람-결[바람껼], 그믐-달[그믐딸], 아침-밥[아침빱],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등-불[등뿔], 창-살[창쌀], 강-줄기[강쭐기]"로 글자대로 발음하고 있는 것이다.

### 2.2. 글자대로 발음이 안 되는 것은 글자를 바꾸었다.

'했읍니다'를 '했습니다'로 '됐읍니다'를 '됐습니다'로 글자를 바꾸었는데 그것은 '불뻡'을 '불법', '사건'을 '사건', '효과'를 '효과'라고 글자대로 발음해야 한다고 하였던바, '했읍니다'나 '됐읍니다'를 글자대로 '했:읍니다, 됐:읍니다'라고 발음하라고 하려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발음되는 대로 글자를 바꾸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리 했다고 보는데, 왜냐?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했으니까'를 '했스니까'로 '됐으니까'를 '됐스니까'로 써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했으니까, 됐으니까'로 쓰고 있는 것을 보아도 '했습니다'와 '됐습니다'로 고친 것은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또한 '몇년, 몇월, 몇일'의 어원은 '몇'과 '년, 월, 일'인데 유독 '몇일'만 '몇월[며둴]'의 발음과 비교해 '면닐(멷닐)'로 소리 나지 않고 '며칠'로 소리 나기 때문에 발음대로 '며칠'로 고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삯월세'를 언중의 발음이 '사글세'라고 표준어를 '사글세'로 바꾸었는데 그렇다면 언중의 발음인 '짜장면'은 왜 '자장면'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2.3. 'ㄴ' 덧나기를 없앤 규정

표준어 규정 / 제2부 표준 발음법 / 제7장 음의 첨가 /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먀금] 검열[검ː녈/거ː멸] 금융[금늉/그뮹]

이 또한 '다만' 규정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발음해야 할'ㄴ'덧나기를 무시하고 '솜니불 [솜이불]'을 '소미불', '망닐[막일]'을 '마길', '생년필[색연필]'을 '새견필', '직캥녈차[직행열차]'를 '지갱열차', '능망념[능막염]'을 '능마겸', '영엄뇽[영업용]'을 '영어뵹', '눈뇨기[눈요기]'를 '누뇨기', '환뉼[환율]'을 '화뉼', '선뉼[선율]'을 '서뉼', '음뉼[음율]'을 '으뮬', '간념[간염]'을 '가념', '장념[장염]'을 '장염', '결망념[결막염]'을 '결마겸', '뇌망념[뇌막염]'을 '뇌마겸'으로 발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광념[방광염]'도 '방광염', '위장념[위장염]'도 '위장염'으로 발음해야 하나?

특히 사람이름에는 'ㄴ'덧나기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서 '선우용녀[선우용여]'를 '선우용여', '정동녕[정동영]'을 '정동영', '김년아[김연아]'를 '기며나', '이청뇽[이청용]'을 '이청용'. '홍녕혜[홍영혜]'를 '홍영혜', '윤성녈[윤석열]'을 '윤서결'로 발음하고 있다.

한글맞춤법 / 제3장 / 제5절 / 제10항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이는 표기의 항목이지만 분명히 '[신녀성], [공념불], [남존녀비]'로 발음된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인들은 '시녀성, 공염불, 남존여비'라고 글자대로 발음하고 있다.

이 또한 제7장 음의첨가 29항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

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 2.4. 'ㅎ'탈락

표준어 규정 / 제2부 표준 발음법 / 제12항

[붙임 1] 받침 '¬(리), ㄷ, ㅂ(瓿), ㅈ(ഥ)'이 뒤 음절 첫소리'ㅎ'과 결합되는 경우에 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라고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생각카고[생각하고]'를 '생가가고', '행복카고[행복하고]'를 '행보가고', '답땁파고[답답하고]'를 '답따바고', '잘모타고[잘못하고]'를 '잘모다고', '꼬탄송이[꽃한송이]'를 '꼬단송이'로 잘못 발음하고 있다.

그러던 중 국립국어원에서 아주 묘한 규정을 만들었다.

2008년 4월 한국방송 한국어 연구회에서 "'생각하건데'에서 지금까지, 또는 표준발음 법상'ㅎ'이 생략되면 '생각컨대'로 발음해 왔는데 이는 틀린 발음이다. '생각컨데'로 발음 해야 한다"라고 방송국 게시판에 붙여 놓았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질의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답글을 보내왔다.

#### [참고] [답글]

어미 '-건대'는 '하다'가 붙은 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줄여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 앞의 어근이 안울림 소리(무성음) '¬(k), ⊏(t), ㅂ(p)'로 끝날 때는 '하'전체가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ㅏ'만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생각건대'가 맞는 표기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건대, 의심컨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하' 앞의 어근이 안울림 소리인 '생각하건대'는 '생각건대'가 됩니다.

#### 이 규정은 결국 'ㅎ'탈락음인 전라도 방언을 합리화 시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하건데'에서 지금까지, 또는 표준발음법상 'ㅎ'이 생략되면 '생각컨대'로 발음해 왔는데 이것은 틀린 발음이다"라는 말의 뜻은 지금까지는 표준발음법에 '생각컨데'로 발음하게 했지만 그것이 잘못 됐으니 '생각컨데'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가?

특히 울림소리 안울림소리에 따라 '하'전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ㅏ'만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건-이 합쳐지면 필요 없는 홀소리 'ㅏ'가 떨어져나가 -컨-이되는 것이다. 즉 종성 'ㄱ' 다음에 'ㅎ'이 오면 'ㅋ'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생각컨대, 의심컨대'가 바른 말이다.

이러다보니 '어떠케(어떻게)'도 '어떠게'로 '어떠캐(어떡해)'도 '어떠개'로 발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올바른 발음을 알아보자.

받침[종성] 'ㄱ' 다음에 'ㅎ'이 올 때는 'ㅋ'으로 발음된다. 생각하고-생각카고

- 'ㄷ'다음에 'ㅎ'이 올 때는 음운현상이 아닌 구개음화로 인해 'ㅊ'으로도 발음되다. 닫히다-닫치다. 맏형-맏팅
- 'ㅂ' 다음에 'ㅎ'이 올 때는 'ㅍ'으로 발음된다. 답답하고-답땁파고.
- 'ㅅ' 다음에 'ㅎ'이 올 때는 'E'으로 발음된다. 잘못하고-잘못타고.
- 'ㅊ' 다음에 'ㅎ'이 올 때는 'E'으로 발음된다. 꽃한송이-꼿탄송이.

### 2.5. 이중모음 '니'의 발음

가). 표준어 규정 / 제2부 표준발음법 / 제5항

'의'는 [니]로 소리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첫음절에서는 늘 [니]로 소리 내고, 첫음절이외의 '의'는 []]로 소리내는 것도 허용하며, 조사로 쓰인 '의'는 []]로 소리 내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로, 조사 '의'는 []]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강의의[강:의의/강:이에], 협의[혀븨/혀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 \*.'민주주의의 의의' 발음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답글
- '민주주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발음을 모두 허용한다.
- (1) 민주주의의 의의, (2) 민주주의의 의이, (3) 민주주의에 의의, (4) 민주주의에 의이, (5) 민주주이의 의의, (6) 민주주이의 의이, (7) 민주주이에 의의, (8) 민주주이에 의이

표준 발음을 8개로 만든 이 규정은 잘못 됐으며, 표준발음은 1개로 정해야 한다. 즉 "'의'는 [니]로 소리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과 "다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로,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것을 없애고, "첫음절 '의'는 [니]로 첫음절 이외의 '의'는 []]로, 조사로 쓰인 '의'는 [네]로 소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이에 의이]' 하나만 표준 발음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요즘 방송인들이 첫음절 '의' 발음을 '으'로 발음하고 조사인 삼음절 '의'는 정확히 '우리의 국민의'로 발음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첫음절 '의'발음을 못해서 '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2.6. 'ᆌ' 의 발음.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2. '예, 례' 이외의 'ᆌ'는 [에]로도 발음한다. 계집[계:집/게:집] 계시다[계:시다/게:시다] 시계[시계/시게](時計) 연계[연계/연게](連繫) 메별[메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페](開閉) 혜택[혜:택/혜:택](惠澤) 지혜[지혜/지혜](智慧)

이는 '규정'의 개념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규정인데, 규정이 오히려 혼란을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ᆌ'와 'ᆌ'는 분명히 다르게 발음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을 인정하여 이와 같이 규정을 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게맛을 알아?"라는 선전을 하는 어느 연기자가 "너희가 개맛을 알아?"라고 하고, 바둑을 다 둔 뒤에 이기고 진 것을 판단하기 위해 집 호수를 계산할 때 쓰는 말로 '[계가](計家)'라고 해야 할 것을 '[개가]'라고 발음하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개가(改嫁)'는 다시 시집간다는 뜻인데… 바둑이 다시 시집가나?

아마 언젠가는 '삯월세'를 언중의 발음이 '사글세'라면서 표준어를 '사글세'로 바꾸었듯이 '계집'을 '개집', '계략'을 '개략', '지혜'를 '지해'로 바꿀지도 모르겠다.

### 2.7. 수컷을 이르는 말

표준어 규정 /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제2장 /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수꿩	수꿩	수평아리	수평아리
수놈	숫 놈	수사돈	숫 사돈
수캐	숫캐	숫양	수 양
수탉	숫 탉	숫염소	수염소
수퇘지	수 돼지	숫쥐	수 쥐

이 규정은 일관성이 없다.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고 하면서 "수 꿩, 수사자, 수놈, 수소(황소), 수사돈, 수은행나무"로 해놓고 "수양, 수염소, 수쥐"는 "숫양, 숫염소, 숫쥐"로 했는데 잘못된 것이다. 우리 옛말에는 '암탁[암닭], 숫퇘지[숫돼지]'와 같이 'ㅎ종성체언'암ㅎ(雌), 수ㅎ(雄)가 있었기 때문에"숫꿩, 숫사자, 숫놈, 숫소, 숫사돈, 숫은행나무"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 28 외래어

외래어 표기법 / 제1장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된소리로 발음이 되지만 표기는 예사소리로 쓴다는 것이므로 읽을 때는 된소리로 발음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대로 쓰고 표기대로 발음하라고" 하면서 글자대로 발음하게 만들고 있다.'딸라 [달라]'를 '달라' '뻐쓰'를 '버쓰' '까쓰'를 '가쓰' '께임'을 '게임'으로 발음하는데, 된소리로 하지 말라 하니까, 이미 토착화된 외래어를 딴에는 '버쓰, 가쓰'로 발음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버스, 가스'로 하지 왜 '버쓰, 가쓰'로 발음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쎈터링, 쎅쓰피어, 쎄피아, 쎄팅, 쎄트, 쎅쓰, 쎅씨, 쎈쓰, 쎈세이션, 쎌러리맨, 쎌프"도

"센터링, 섹스피어, 세피아, 세팅,세트, 섹스, 섹시, 센스, 센세이션, 셀러리맨, 셀프"로 발음해야 하나? 그러나 '[쑈쑈쑈, 에어쑈]'를 '쇼쇼쇼, 에어쇼'라고 하는 방송인은 없다.

훈민정음은 즉 한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말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진 소리과학이다.

그런데 우리글은 물론이요 외래어까지도 바르게 쓰지 않아 우리말과 들어온 말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 2.9. 장단음

우리말은 긴소리 짧은소리로 그 뜻을 달리 하는데 방송인들이 긴소리를 짧게, 짧은소리를 길게 발음하여 우리말을 훼손하고 있다.

한:국(韓國)을 한국(寒國) 발음하여 차가운 나라.

한:우(韓牛)를 한우(寒雨) 발음하여 차가운 비.

한:강(漢江)을 한강(寒岡) 발음하여 차가운 강. 또는 하나의 강

구:두(口頭)를 구두(句讀) 발음하여 신발.

경:로(敬老)를 경로(經路) 발음하여 가는 길.

금:주(禁酒)를 금주(今週) 발음하여 이번주.

부:자(富者)를 부자(父子) 발음하여 아버지와 아들.

새:집(鳥巢)을 새집(新屋) 발음하여 새로 지은 집.

전:원주택(田園住宅)을 전원주택(全員住宅) 발음하여 전체주택

문:자(文字)를 문자(文子) 발음하여 사람이름

#### 2.10. 어두 경음화

경음화는 청각의 인상을 좀더 명료하게 하려고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또한 글자대로 발음하고 있다.

쏘나기-소나기, 뻔데기-번데기, 쭈꾸미-주꾸미, 깜깜무소식-감감무소식, 쪽제비-족 제비.

힘이 쎄다-힘이 세다, 힘이 딸린다-힘이 달린다, 쪽두리-족두리, 꼽배기-곱배기,

#### 2.11. 문어와 구어

우리말은 문어를 구어로 발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글자대로 발음하고 있다. 되었습니다-됐습니다, 이야기-얘기, 아기-애기, 아이-애, 빼앗긴-뺏긴, 같아-같애, 창피하다-챙피하다, 헛갈린다-헷갈린다, 호랑이-호랭이, 그리고-그리구, 이쪽으로-이 쪽으루.

#### 2.12. 숫자 발음

요즘 코로나 관련 소식을 전하는 방송인들이 "여란명[11명]을 열:한명, 열뚜명[12명]을 열:두명, 열쎄명[13명]을 열:세명, 열따선명[15명]을 열:다선명, 열녀선명[16명]을 열:여선명, 열닐곰명[17명]을 열:일곰명, 열녀덜명[18명]을 열:여덜명, 여라옴명[19명]을 열:아홈명"으로 발음하고 있고, "시빌위[11위]를 십:일위, 시비위[12위]를 십:이위, 십쌈위[13위]를 십:삼위, 십싸위[14위]를 십:사위, 시보위[15위]를 십:오위, 심뉴귀[16위]를 십:유귀, 십꾸위[19위]를 십:구위"로 발음하고 있다.

또한 나이를 말할 때 "육십다섯쌀, 팔십다섯쌀"로 발음하는데 "예순다섯쌀, 여든다섯쌀"로 발음해야 한다.

# 3. 표기의 문제

방송 프로 제목과 자막을 발음 되는대로 만들고 쓰는 방송인들!

지난 7월14일 mbn에서 모두의 강연 '가치 들어요'라는 프로를 시작했다. 방송국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같이 들어요'라는 뜻인데 발음 되는대로 표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모 방송국에서 수년전에 '차카게 살자'라는 프로를 만들어 방송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카고'를 '생가가고'라고 발음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생각컨대'를 '생각컨데'가 바른말이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착카게 살자[착하게 살자]'를 '차가게 살자'라고는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제목을 만들어도 국립국어원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결과 "차카게 살자 재단, 차카게 살자 웹툰, 차카게 살자 만화"라는 것들이 생기고, 또한 "공부가 뭐니?를 공부가 머니?, 국민남편을 궁민남편, 경훈이를 경후니, 들켰다를 들켜따, 대단하다를 대다나다, 너무 갔어를 너무 가써, 기쁨의 눈물을 기쁨에 눈물"이라 고 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 \*. 이러한 문제들을 방송국에 이야기 하여 시정해 달라고 국립국어원에 수도 없이 메일을 보냈지만, 국립국어원은 그러한 강력한 권한이 없고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며, 방송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국립국어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 \*. 특히 이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대입수능과목에서 말본[문법]과목을 2021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만들어 놨으니 앞으로 우리말글이 어찌 될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 4. 결론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표준어로 인하여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그런데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이희숭씨가 만든 지금의 국립국어원에서 국어순화라는 명목하에 글자대로 발음하게 만들면서 부터 시작됐다.

표준어(표준말)는 각 지방의 방언(方言)중 가장 규격이 바른 방언을 택하여 대표적인 국어로 인정하고 그 언어체계를 표준어로 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순화를 한다면서 표준어를 특정 지역의 사투리도 표준어로 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말을 변질시키고 소통에 혼란을 만드는 소행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표준어 사정 원칙 2에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인 것이다. 그러기에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에 표준어 훈련 기관이 많이 있어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리 등 공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품위 있는 표준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

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그러기에 모든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표준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요건(義務要件)이라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어 훈련기관은 차치하고라도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그나마 국어교육은 문법 교육만 하고 제일 중요한 언어교육 즉 말하기 교육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그러니 바른말을 하는 교양 있는 공인이나, 바른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양 있는 교육자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 4.1.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 01. 한글맞춤법에서 '다만'규정과 '예외'규정을 없애고 복수로 만든 표준어 규정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 02. 말본[문법]과목을 대입수능과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정해야 한다.
- 03.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말본과 우리말을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
- 04. 우리말을 훼손시키는 일은 하면서 방송인들이 잘못 발음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정하지 못하는 국립국어원은 해체해야 한다.

# 방송극에서 나타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오세곤(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 1. 들어가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방송극(放送劇)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송하는 드라마"를 뜻한다. 그러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방송을 통하여 청취자 혹은 시청자에게 들려주거나 보여 주는 연극"으로 풀이하고 있는 사전1) 도 있다. 전자는 방송을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만 명시하였고, 후자는 이와 달리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으로 함으로써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2)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 방송'이란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듯 방송의 범위는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므로 방송극에 대해서도 그런 유연한 수용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 라디오가 방송으로서 중심의 자리를 텔레비전에 내준 것도 그리 오래 된 일은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 텔레비전을 밀어낼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지 말란 법도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방송의 가장 중심은 역시 텔레비전이고 그 다음은 라디오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방송극의 범위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국한하고자 한다.

방송은 하나의 동일한 내용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하도록 한다. 따라서 그것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방송극은 허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허구의 사건과 인물을 표현하는 주된 수단은 연기자들이 각본에 따라 구사하는 말과 몸짓, 즉 대사와 동작이다. 방송극의 재미와 감동이 크면클수록 연기자들의 대사와 동작이 청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중에서도 대사, 즉 방송극에서 연기자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의미 전달에 있어 압도적

<sup>1)</sup> 고려대한국어대사전

<sup>2)</sup> 참고로 현행 방송법에서는 범주를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위를 차지하는 만큼 그 영향력 또한 특별히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방송극의 언어가 전반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혹시 인간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있다면 그문제의 내용과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 2. 대상 선정

방송극에서 대사는 말과 글의 형태로 나타난다. 말은 청각을 통해, 글은 자막의 방식으로 시각을 통해 전달되는데 라디오의 경우 청각만 활용하므로 글, 즉 자막은 해당되지 않는다. 어쨌든 방송극에서 나타나는 말과 글의 문제점을 밝히려면 연기자들이 말로구사하는 대사와 때때로 제공되는 자막을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방송극 중 현대물에서는 극의 시작과 끝에서 작품의 정보 제공을 위해 들어가는 정도 말고는 자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사극에서는 극 중간에도 어려운 표현이나 인물 설명 등을 위해 자막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 의존도가 별로 높지는 않다. 반면에 외국 작품에 대해서는 자막이 많이 활용된다. 외국 작품의 경우 과거에는 자막보다는 더빙이 많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자막으로 처리한다. 다만 외국 작품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여전히 더빙을 활용하는 것이 대세이다.

통상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를 구분하지만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극을 방송극이라 할 때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경우까지 방송극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전제로 이 글에서 다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텔레비전 방송극 국내 작품 중 현대물에서 연기자들이 말로 구사하는 대사
- 텔레비전 방송극 국내 작품 중 사극에서 연기자들이 말로 구사하는 대사
- 텔레비전 방송극 해외 작품 중 일반물의 대사 자막
- 텔레비전 방송극 해외 작품 중 애니메이션물의 더빙 대사
- 라디오 방송극 국내 작품에서 성우들이 말로 구사하는 대사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대상 작품을 선정하였는데 가능한 한 최근작으로 하되 시청

률과 매출 순위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 2.1. 텔레비전 국내 현대물

주간 시청률 순위: 2020,08,17(월) ~ 2020,08,23(일)

순위	지상파	종합편성	케이블
1	한 번 다녀왔습니다(KBS2)	모범형사(JTBC)	비밀의 숲2(tvN)
2	기막힌 유산(KBS1)	우아한 친구들(JTBC)	악의 꽃(tvN)
3	위험한 약속(KBS2)	우리, 사랑했을까(JTBC)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재방송, KBS Drama)

종합편성채널 JTBC의 3위는 2위인 <우아한 친구들> 재방송이 차지하여 4위인 <우리, 사랑했을까>를 3위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의 3위부터 20위는 모두 지상파, 종합편성, 케이블에 편성된 드라마의 재방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케이블의 3위는 그대로 반영하였다.

### 2.2. 텔레비전 국내 사극

시청률 순위: 2019년 공중파 기준 (출처 : 네이버 '역대 시극 순위')

순위	제목	시청률	연도
1	해를 품은 달(MBC)	42.2%	2012
2	추노(KBS2)	35.9%	2010

국내 역대 사극 순위 1위는 <허준>(MBC, 63.7%, 1999), 2위는 <태조 왕 건>(KBS1, 60.2%, 2000)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너무 오래 전에 방영되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드라마를 대상으로 보았다.

## 2.3. 텔레비전 해외 일반 작품

시청률 순위

순위	미국	중국	일본
1	NCIS(CBS)	금의 지하(아이치이 방송)	한자와 나오키(TBS)
2	FBI(CBS)	경여년(텐센트TV)	신변경호인(TV아사히)

중국과 일본은 2020.03.01 ~ 2020.07.31. 상반기 종합 순위이며 미국은 2020년 6월 순위이다.

# 2.4. 텔레비전 해외 애니메이션 작품

매출 순위: 2019년 기준 (출처 : 네이버 위키백과 '영화 매출 순위')

순위	제목	전 세계 수익	연도
1	겨울왕국 2	\$1,450,026,933	2019
2	겨울왕국 1	\$1,279,852,693	2013
3	인크레더블 2	\$1,242,805,359	2018

전체 영화 매출 순위에서 <겨울왕국2>는 9위, <인크레더블2>는 17위를 차지하였으나 애니메이션만을 나열하였을 때는 위의 표와 같다. 전체 영화 매출 순위 15위를 차지한 <겨울왕국1>은 애니메이션 순위 2위지만 <겨울왕국2>의 전작이므로 제외하였다.

### 2.5. 국내 라디오 방송극

KBS 라디오 드라마

번호	제목	1회 방송
1	KBS 라디오극장 거짓말퍼즐	2020.09.01
2	와이파이 한국인 박문수 편	2020.09.04

국내 라디오 방송극은 작품이 많지 않아서 KBS 라디오에서 현재 방송 중인 작품 중임의로 2편을 선택하였다.

# 3. 대상 분석

선정된 작품들은 모두 일률적으로 첫 회 방송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말과 글의 문제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어차피 모든 회를 살필 것이 아니라면 작품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에 첫 회가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3.1. 텔레비전 국내 현대물

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배우들에게 연기 화술 지도를 하였는데, 연극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극에서도 우리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조사(와/과, 에게 등)나 인칭대명사(그, 그녀, 당신 등)가 자주 나오고 연기자들이 휴지와 억양, 발음 등에서 오류를 많이 범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살펴본 결과 적어도 텔레비전 방송극 국내 현대물에서는 과거와 같은 오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극작가의 어휘나 문법이 틀린 경우도 있고, 연기자가 불필요한 휴지를 주거나, 과거 가장 흔히 나타났던 오류로 휴지 부분에서 억양을 떨어뜨리는<sup>3)</sup> 경우도 드물지만 있었다.<sup>4)</sup>

#### -극작의 오류-

이 마장동에서 내노라하는... (〈기막힌 유산〉중에서): 정확한 표현은 '내로라하는' 애들 나가는 것도 몰랐다가... (〈비밀의 숲2〉중에서): 정확한 표현은 '모르고 있다가 왜 이 사단을 만듭니까, 사단을? (〈우아한 친구들〉중에서): 정확한 표현은 '사달'

#### -연기의 오류-

무책임한/놈으로 보면... (〈우아한 친구들〉 중에서): 중간에 휴지 없어야 함나이 지긋한/양반들이... (〈우아한 친구들〉 중에서): 중간에 휴지 없어야 함

<sup>3)</sup> 우리말에서 중간 휴지 부분의 억양은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힘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힘을 주면서 살짝 올라가는 느낌은 있지만 '예아니오 의문문' 등에서 나타나는 올리는 억양과는 다르다.

<sup>4)</sup> 예를 들어 <위험한 약속>에서 최준혁 역의 배우는 중간 휴지에서 자주 억양을 떨어뜨렸다.

또 오류는 아니지만 충분히 다른 표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특정 세대의 유행어를 별 고민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맞춤법도 틀려서 빠꾸나 맞는... (〈모범형사〉 중에서): '퇴짜나 맞는'정도로도 충분히 효과적 ...각이네. (〈한 번 다녀왔습니다〉 중에서): 그냥 '...하겠네.' 정도로도 충분히 효과적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으로 연기자들의 대사가 빠른데 특히 휴지 주기에 인색해서 강조점이 잘 드러나지 않고, 각 음절을 또박또박 발음하기보다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웅얼대는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일상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전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또 함께 연기하는 바로 앞의 상대 배우에게도 별문제 없이 전달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실제 그 대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시청자들이라는 사실이다.5) 이에 있어 아무리 일상적인 상황이라해도 연기는 일상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일상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언어 사회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언어 규칙을 공유한다. 태어나기 전부터 몸에 밴그 규칙은 거의 본능처럼 되어 연기자의 아주 미세한 오류6)에도 자극을 받는다. 전반적으로 상황 전달이 된다고 해도 언어 표현의 미세한 오류로 인한 자극이 축적되면 청취자들은 피곤해진다. 또 연기자의 대사가 불명확할 경우 청취자들은 애써 그것을 들으려고 과도하게 감각을 집중하거나 포기하고 대충 상황만 파악하는 식으로 넘어가기 쉽다. 이 모두가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 3.2. 텔레비전 국내 사극

사극의 대사는 대부분 고양(高揚)된 언어를 사용하다. 특히 심각하거나 비극적인 상

<sup>5)</sup> 연극, 즉 무대연기는 직접 관객 앞에서 연기하므로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이 덜하다. 그러나 카메라 연기에서는 상대 배우나 마이크만 의식하고 관객 내지 시청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다.

<sup>6)</sup> 연기자들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휴지와 억양 등에서 오류를 범한다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언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발음의 오류는 발음기관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대부분 정확하게 알지 못 하거나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스스로 잘못을 찾아내 수정할수 있다.

황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다. 반면에 희극적 상황이나 신분이 낮은 인물들의 경우 일상 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서양의 고전 운문극에서 신분이 높은 인물 들의 대사는 운문으로 짓고 신분이 낮은 인물들의 대사는 산문7)으로 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극 대사의 중심은 역시 고양된 언어라 하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일상의 어법과 상당히 어긋난다는 데 있다. 아무래도 일상적이 아닌 언어를 구사하려니까 자신의언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부정확한 휴지와 억양을 필두로 심지어 발음의 오류까지도 꽤 자주 나타났다. 물론 이번에 살펴본 결과 이 부분 역시 근래많아진 퓨전 사극의 영향인 듯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앞서 현대물에서 확인한 개선의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지니고있었다.

#### -극작의 문제-

그곳에 가봐야... (〈해를 품은 달〉 중에서): '거기 가봐야'가 자연스러움

되었어. (〈해를 품을 달〉 중에서): '됐어'가 자연스러움

남자들끼리'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막을 통해 과거 그렇게 사용했음을 설명 (〈추노〉중에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음. 물론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도 그렇게 사용했고 아직도 초등학교 졸업식 노래 등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표현이지만 요즘의 청취자들에게는 어색하여 일정 정도의 자극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

#### -연기의 오류-

'달빛이...'의 발음을 [달삐시]로 (〈해를 품은 달〉 중에서): [달비치]나 [달삐치]로 발음해야 함 그런/자가.... (〈해를 품은 달〉 중에서): '그런자가'와 같이 휴지가 없어야 함8)

방송극을 보는 시청자들이 어법의 오류나 생경한 표현에 대해 의식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잠시뿐이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표현에 익숙해지면서 그것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는 데 있어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 무의식적으로 축적되는 미세한 자극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작품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sup>7)</sup>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 작 <한여름 밤의 꿈>의 대사는 전체적으로 1행 10음절에 각운을 맞춘 운문인데 극중극을 준비하는 직공들의 장면에서는 대사가 모두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sup>8)</sup> 이것은 일상에서 말을 할 때는 거의 없는 오류인데 문자로부터 출발하는 대사나 연설 등에서는 자주 나타난다. 띄어쓰기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이 현상은 '것, 바, 줄, 리, 수' 등과 같은 불완전명사 앞에서, '뿐, 만, 체, 척, 따위, 따름, 동안, 때문, 자, 년, 놈, 분' 등의 의존명사나 부사 앞에서, '명, 개, 대, 벌, 그루'등 셈 단위 앞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다고 보아야 한다. 즉 방송극이 시청자들에게 최적의 상태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자 했을 때 그 지향점에 일정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 3.3. 텔레비전 해외 일반 작품

요즘은 우리 방송극이 해외로 광범위하게 수출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우리 텔레비전에서 서양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방영하였다. 세대 구분 없이 모두 즐기는 해외 작품이 많았던 만큼 우리말 더빙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번역의 문제로 원문보다 훨씬 길어진<sup>9)</sup> 대사를 인물의 입 동작에 맞추느라 마치 기관총을 쏘듯 빠르게 말한다든 가, 외국인 느낌을 내느라 소위 '더빙투'라는 국적불명의 이상한 억양을 구사하는 등 참 으로 웃지 못 할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도 영화관에서는 자막을 붙인 영화를 주로 상영하였다. 인물의 감정을 전달받기에 더빙보다는 원어로 들으면서 자막을 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았던 것인데, 텔레비전 외국 작품의 자막 방영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영화관에서는 화면 오른쪽에 세로로 자막을 넣었고 비디오테이프나 텔레비전에서는 화면 아래에 가로로 자막을 넣었다. 그러나 요즘은 영화관에서도 가로 자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의 작품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어순이 비슷한 일본 작품에 붙인 자막이 전달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그러나 입 동작과 자막 사이의 일치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좀더 세밀하게 번역하여 인물이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막이 나올 수 있도록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말하는 이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기술의 개발도 시도할 만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으로 아무리 글로 전달하는 것이지만 말을 글로 옮긴 것이므로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예: 와/과, 에게, 그/그녀/당신 등)은 반드시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sup>9)</sup> 번역을 하면 원문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오해이다. 극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므로 번역 대사의 길이가 원문과 비슷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길이를 맞추는 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인데 가장 좋기로는 원문의 문장을 구사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기에 우리말 번역 대사의 길이를 맞춰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음절수만이라도 일치시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3.4. 텔레비전 해외 애니메이션 작품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해외 애니메이션 영화 2편을 살펴본 결과 과거 문제가 많았던 소위 더빙투는 많이 사라졌다. 또 번역 대사의 길이도 원문과 비슷해서 성우들이 충분히 인물의 입 동작에 맞출 수 있었다. 물론 2편 모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작품들로 번역과 더빙에도 공을 많이 들였을 것이므로 과연 이것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이것이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더빙의 수준을 가늠할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길이를 맞춘 것에 비해 표현의 정제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듯하다. 특히 노랫말의 경우 시적 차원에 이르지 못 하고 단순한 의미 전달에 머무는 거칠고 건조한 표현이 섞여 있었다.

한 편 더빙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는 발음이 정확하고 각 음절의 분리도 양호하여 대사가 잘 들렸다. 그러나 인물의 유형화 내지 양식화는 여전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목소리 연기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 하겠다.

### 3.5. 국내 라디오 방송극

라디오 방송극은 과거 우리 국민들이 크게 즐기던 콘텐츠였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보급과 함께 쇠퇴해서 지금은 그 존재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목소리만으로 인물과 사건을 형상화해 전달한다는 독특한 조건이 오히려 중요한 장점<sup>10)</sup>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건 다시 크게 번성할 수도 있고, 또 설령 그렇지 않아서 계속 존재가 미미하더라도 연기의 종류 중 하나인 목소리 연기의 가장 주된 매체로서 라디오 방송극은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살펴본 2편의 라디오 방송극에서 성우들은 모두 앞서 애니메이션 더빙과 마찬 가지로 정확한 발음과 양호한 음절 분리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유형화내지 양식화 문제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와이파이 한국인>의 경우 오히려 노골적으로 과장된 양식화를 시도함으로써 나름의 재미를 창출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

<sup>10)</sup> 과거 2차 대전 후 독일에서는 부상으로 시각장애자가 된 제대 군인들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방송극을 제작하였는데 그 중에는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명작으로 이후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고 연극으로 공연 된 작품들도 여럿 있다. 이 경우 목소리만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제한이 오히려 상상력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양식화를 단순히 퇴출해야 할 해결 과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때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연기법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 4. 나가며

연극, 영화, 드라마를 망라하여 극은 모두 예술에 속한다. 예술은 완벽을 추구한다. 극에서 언어는 우선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완벽해야 한다. 완벽한 도구는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즉 일상에서건 극에서건 언어는 그 존재를 느낄 수없을 때 가장 완벽하다 할 것이다. 역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말이 잘 안 될 때나, 또는 문법이건 어법이건 말의 오류가 있을 때 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자판을 두드리는 자신의 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이치이다.

다음으로 극에서 언어는 극이라는 예술 작품의 일부로서 완벽해야 한다. 비슷한 예로 꽃병을 단순히 꽃을 꽂는 도구로만 본다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건 모두 꽃병이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이 꽃을 꽂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적어도 꽃의 아름다움을 손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꽃과 어우러져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극의 언어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지녀야 하는데 그것은 정제된 표현과함께 적절한 고저, 장단, 강약, 완급 또는 적절한 높이와 세기, 빠르기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음악성을 갖춘 대사로 가능할 것이다.

앞서 20편의 방송극을 살펴본 결과 거기 사용된 말과 글은 도구로서 완벽성 차원에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우선 방송극의 대사는 일상어와 비록 문법이나 어법은 같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달라서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서 구사하는 언어이다. 또 일상에서는 상대방만 들을 수 있으면 되지만 방송극 대사는 반드시 시청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히 현대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약해 보였는데, 혹시 '사실'과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극에서는 고양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상어의 어법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연기자들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언어 능력이 100% 발휘되지 못 하는 상태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앞서 설명했다시피 시청자들은 어색한 어법

에도 금방 익숙해진다. 그러나 이미 도구로서 결함을 보인 뒤의 일이므로 그 자극은 축적된 채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작품의 완성도나 예술성에 손상을 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글로 전달되는 자막의 경우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말을 글로 옮긴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물의 입 동작과 시간적으로 정확히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화자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연구도 필요하다. 즉 자막 또한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완벽한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더빙과 라디오 방송극은 모두 성우들의 목소리 연기를 토대로 한다. 물론 요즘 성우가 아닌 유명 인사들을 더빙 배우로 출연시키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결과 목소리 연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발음도 정확하고 음절 분리도 잘 돼서 우수한 전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에 국내 현대물과 사극에서 볼 수 있는 탤런트들의 카메라 연기는 음절 분리에 인색하여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듣지 못 한 채 대충 상황만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일상 어법에 어긋나서 크고 작은 자극을 남기기도 하는 상태였다. '도구로서의 완벽함'과 '일상어와 연기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기 언어는 무엇보다 자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인식한다는 특징이 있다. 호흡과 발성, 발음, 휴지와 억양, 공명, 빠르기, 세기, 높낮이 등 말과 관계되는 모든 요소들을 분리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은 연기자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의 말을 관찰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생각을 전달하기에 적절한지 스스로 따져가며 올바르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이들이 연기를 배우고 즐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이, 특히 국어 교육이 연기를 좋은 언어 교육의 수단으로 적극 수용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 오세곤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380번길 61-3

전화번호: 010-3902-7250

전자우편: ohskon@hanmail.net

# 제3부

# 남·북한 국어학 용어의 통일 방안

사회 : 전나영(연세대학교)

# 남·북한의 '형태론·통사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 1. 들어가기
- 2. 남북한의 전문 용어와 문법 용어 선정 기준
- 3. 남북한의 형태론·통사론 분야 문법 용어의 사용 실태
- 4. 남북한의 형태론·통사론 분야 문법 용어의 통일 방안
- 5. 나아가기

# 1. 들어가기

# 1.1. 문제제기

광복에 이은 남북 분단이 어언 75년이 흘렀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벌써 일곱 번 이상 강산이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아픔은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며 남북은 언제나 통일이라고 하는 화두를 달고 살고 있다. 남북의 통일은 주권적 통일, 지리적 통일, 인간적 통일 모두를 포함한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고 또 드러내주는 것은 역시 언어, 즉 우리말 우리글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서 서로 표현하게 되고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 결국 온전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의 여러 부분 가운데 단어와 문장을 통한 남북한의 통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살 필 필요가 있다. 이는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단어이고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 루기 때문이다. 단어를 연구하는 분야는 형태론이고 문장을 연구하는 분야는 통사론이 다. 단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형태론 분야와 통사론 분야 에서 사용하는 용어, 곧 문법 용어를 살필 필요를 느끼게 된다.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형 태론과 통사론의 문법 용어들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지향하는 바를 추적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의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연구 분야의 문법 용어에 대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공통점은 부각시키고 차이점은 통일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물론 남북한에서 왜 이런저런 문법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이유도 찾아보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문법 용어의 통일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여기서 남북한의 문법 용어를 각각의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남북한에서 추구하는 내용과 방향이 공적 의미를 가져야 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교수 학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1.2. 남북한의 언어 의식

남북한은 하나의 한민족이지만 현재 주권 체제가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여 개인적 가치에 상대적 방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은 국가적 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다. 남한은 국가 통치자가 5년에 한번씩 선거를 통해서 바뀜에 비해서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전제주의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언어 의식은 국가적 공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북한의 언어인식은 김일성의 사상 혹은 의식에서 찾을 수가 있다.

#### (1) 남한의 언어 의식

- 7.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기반이다. 학습자는 국어를 활용하여 자아를 인식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세계를 이해한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총론〉
- 나.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5 국어기본법 제2조 기본 이념〉

(1¬)은 남한의 초중등학교의 국어 과목의 성격을 보여 주는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 총론의 일부이다. 국어의 성격을 논함에 있어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기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도구로서의 언어와 내용으로서의 언어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언어는 도구라는 도구관 성격과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일체관

성격을 모두 보여 준다. 곧 언어 도구관 및 언어 일체관의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1ㄴ)은 2005년에 발표된 '국가 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보여 준다.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밝히고 국어발전을 통한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국어 보전 및 계승의 역할을 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곧 국어가 민족 문화의 기본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언어 일체관 성격을 보인 것이라 하겠으며, 일부 언어가 민족의 의식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언어 형성관 성격도 보인 것이라하겠다.

#### (2) 북한 김일성의 언어 의식

- 그.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 핏줄이 같고 한 영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핏줄과 언어를 같이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 -김일성(1964),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 니. 어떤 사람들은 한자말과 외래어를 써야 유식하고 위신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는 사람은 민족적 긍지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식하고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 우리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 말로 고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 고유어와 한자말이 뜻이 꼭 같은 때에는 고유어를 쓰고 한자말을 쓰지 말도록 하며 사전에서도 그런 한자말은 빼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상전', '석교' 같은 한자말은 버리고 '뿅밭', '돌다리'라는 우리말을 써야 합니다.
- 리. 그런데 학술용어는 너무 풀어쓰지 말아야 합니다. / 새로 나오는 말들에 대하여서는 국어사정 위원회에서 잘 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자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인식되고 우리 말로 완전히 굳어버린 것은 그냥 두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학교', '방' 같은 것은 한자말이라고 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며 따라서 그런 말들은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많이 쓰이는 '법칙'이란 말을 놓고 보아도 당장 고쳐 쓸 다른 신통한 말이 없습니다. '갱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고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일성(1966),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

(2)는 1960년대 주체사상을 부르짖은 김일성이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에서 나온 것이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것이라는 (2ㄱ)을 통해서 볼 때, 북한의 언어관은 언어와 사고는 일체라는 언어 일체관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한자말과 외래어보다는 고유어를 써야 한다는 (2ㄴ,ㄷ)에서는 언어 일체관은 물론이고 언어 형성관 성격까지 볼 수가 있다. '상전', '석교'라는 한자말은 버리고 '뽕밭', '돌다리'를 쓰자는 김일성

의 의식은 충분히 언어 형성관 성격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북한에서는 고유어에 대하여 무척 소중히 여기는 의식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한편 (2리)을 보면 학술용어에 관한 한 지나치게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어로 풀어쓰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방' 같은 말은 한자말이지만 우리말로 완전히 굳어버렸다 하여 그냥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법칙', '갱도' 같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쓰는 한자말도 그대로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는 국어생활에서 가능한 한 고유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 완전히 우리말로 굳어버린 말이나학술용어 등에서 쓰는 한자말 등은 그대로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요컨대 남한과 북한은 국어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으며,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언어 일체관 의식을 공통적으로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남한은 언어 도구관 성향을 상대적으로 더욱 보여 주고 있고, 북한은 언어 형성관 성격을 상대적으로 더욱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 살피는 학술용어에 대해서는 고유어라면 좋겠지만 한자말이나 외래어에 대해서도 크게 제한하지 않는 북한의 언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2. 남북한의 전문 용어와 문법 용어 선정 기준

# 2.1. 전문 용어의 개념과 선정 기준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전적 의미로 '전문 용어'는 일정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특히 언어 분야에서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전문어'라고도 불린다.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흔히 문법 용어라고 불린다.<sup>11)</sup> 이 문법 용어도 일종의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언어학이라는 특정한 전문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바로 '문법 용어'인 것이다. 따라서 전문 용어를 선정하는 일반적 기준을 살펴본 후에 구체적인 문법 용어를 선정하는 기준을 도출해 봐야 할 것이다.

<sup>11)</sup> 문법이라는 용어는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사용될 때도 있고 이 둘을 포함하여 음운론, 의미론, 화용론 모든 언어학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전자는 협의의 문법, 후자는 광의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둘 중 어느 것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음운론 등 다른 분야와의 비교 대조를 위해서 광의의 의미로 보도록 한다.

#### (3) 전문 용어의 개념

- ㄱ. 용어(用語): 「명사」일정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 ㄴ. 전문^용어(專門用語): 『언어』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전문어.

우리말의 전문 용어에 대한 관심은 허재영(2014)에서 밝힌 바처럼 조선시대에는 물론이고 일제 때나 광복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광복직후 우리말 도로 찾기운동 같은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비할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정부 각 부처에서 연이어서 임업, 농업등 분야별 전문 용어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사용을 독려하기도 하였다(허재영, 2014:131-135 참조). 학교 문법 차원에서 보면 1960년대 초반에 있었던 문법 용어 파동은품사 명칭을 고유어로 할 것인지 한자어로 할 것인지 치열한 말본파와 문법파의 대립이 있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유네스코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00년에 전문 용어의 원칙을 정하고 남북한에 한국어의 전문 용어 통일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긴박하게 전문 용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급기야 '국어기본법'(2005)이 제정되면서 제17조에 전 문 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할 것을 명기하며 전문 용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해지기 시작하였다.<sup>12)</sup>

#### (4) 국제표준화기구(ISO 704:2000:25-27)의 전문 용어 선정 기준

- ㄱ. 투명성(Transparency): 용어 속에 해당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함.
- ㄴ. 일관성(Consistency): 한 분야에서 용어의 체계와 개념의 체계가 일관되어야 함
- ㄷ. 적절성(Appropriateness): 용어는 공동체 안에서 친숙해야 함.
- ㄹ. 언어적 경제성(Linguistic economy): 용어는 가능한 한 간결해야 함.
- ㅁ. 파생성(Derivability): 해당 용어를 갖고 여러 용어를 만들 수 있어야 함.
- ㅂ. 언어학적 정확성(Linguistic correctness): 용어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형태·통사론적 규범에 맞아야 함.
- ㅅ. 고유어 선호(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 외래어보다 고유어를 선정해야 함.

<sup>12)</sup>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신설 2017. 3. 21.>

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21.>

국제표준화기구(ISO 704)에서는 각 언어별로 전문 용어를 선정할 때에는 보편적인하나의 선정 기준이 있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각 지역, 각 나라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있음을 말하면서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4)와 같이 7가지 제시하고 있다(최기선(2001:12-14 참조).<sup>13)</sup> 이것들을 보면 전문 용어라 해서 어렵고 형이상학적일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쉽고 간결하고 분명한 용어가 최상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고유어를 전문 용어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native language', 즉 국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한자어를 국어로 볼 것인지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후에 나온 UNESCO(2005)의 'ISO/37'에서는 이 기준에 대하여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이 굳어진 관용어는 예외라고말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4)의 기준을 발표하는 시기와 발맞추어서 우리나라에는 수 년간에 걸쳐서 '21세기 세종계획'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가운데 전문 용어 정비 분야가 있었는데, 각 분야의 전문 용어 연구 결과는 최기선 외(2001, 2002, 2003)를 통해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 나온 많은 전문 용어 관련 연구는 이에 힘입은 바가 크다.14)

## (5) 정종수(2015 7:343 - 353), '남북한 전문용어 통합 기준에 관한 연구'

- ¬. 투명성: 그 용어만 보고서도 용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ㄴ. 경제성: 음절수가 짧은 용어를 긴 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sup>13) 5</sup>년 뒤에 나온 UNESCO(2005)의 'ISO/37'에서는 '언어적 경제성(linguistic economy)'을 '간결성 (conciseness)'으로 바꾸고 있으며, '고유어 선호(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에 대해서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UNESCO ISO/37(2005),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erminology policy in language communities, GUIDELINES FOR TERMINOLOGY POLICIES.

<sup>•</sup>Current term formation principles: the following semiotic principles are basically applicable to 'all' languages. These principles focus on the systematic nature of terminologies with their underlying conceptual networks, including the cognitive dimension, aspects of knowledge representation, etc.):

o transparency (vs. opacity);

o consistency;

o appropriateness;

o conciseness (linguistic economy);

o derivability;

o linguistic correctness;

o 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 (except in domains or languages where other traditions exist, for instance the use of Latin or Greek forms in some disciplines).

<sup>14)</sup> 고석주 외(2007)에서는 전문용어 정리의 기준으로 "용어의 일의성, 용어의 투명성과 명시성, 용어의 간결성, 용어의 일관성, 용어의 사회 언어학적 기준, 심리언어학적 기준, 국어학적 기준, 용어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김미형(2019:55)에서는 표준화 대상 전문 용어를 뽑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중급 수준 이상의 어휘,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 어휘, 함께 쓰이는 어휘군, 별로 어렵지 않은 단어라도 쉬운 말로 바꿀 수 있는 것, 영어 약자 용어"를 꼽고 있다.

- C. 고유성: 고유어인 전문용어를 한자어·외래어인 전문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리. 일관성: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가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된 용어를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 문법성: 형태론적, 통사론적, 음운론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 택하다
- ㅂ. 생산성: 더 많은 단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구성 요소를 가진 용어를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 선적으로 선택한다.
- 시. 친숙성: 일반적으로 아려진 전문용어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전문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o. 일의성: 한 용어가 한 개념에 대응되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ス. 국제성: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를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호. 윤리·미학성: 비속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과 더 미학적으로 곱게 다듬어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5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남북한 전문 용어 사업을 펼쳤다. (5)는 그 사업으로 이루어진 내용의 일부이다. (5)는 (4)에 있는 (5¬~시) 특성에다가 (5 o~ㅊ)의 '일의성, 국제성, 윤리·미학성'을 추가한 것이다. '일의성(一意性)'은 일 용어일 개념, '국제성'은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를 뜻하며, '윤리·미학성'은 비속어는 선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이루어진 여러전문 용어 연구들을 통해서 추출해 낸 결과이다. 한편, 정종수(2015¬)에서는 그동안이루어진 9개의 기존 연구물에서 등장하는 기준의 빈도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즉 "투명성(8회), 친숙성(8회) > 문법성(6회) > 경제성(5회) > 고유성(5회) > 일관성(5회) > 생산성(4회) > 국제성(1회) > 윤리·미학성(1회)"으로 그 빈도 순위가 나타난다고밝히고 있다.

그리고 신중진 외(2016:121-125)에서는 이들 기준들을 국어 교과 용어 선정에서 소위 필터 기준과 위계 기준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필터 기준은 (4) 가운데 '문법성'과 '윤리·미학성' 기준이 해당하는 데, 곧 이 두 가지 기준은 기본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나머지 '투명성, 경제성, 고유성, 친숙성, 일관성, 일의성'은 상대적 정도를 지닌 위계 기준이라는 말이다.

#### (6) 남북 교육 관련 전문 용어의 통일 표준화 기준

- ㄱ. 김문오(2007:80-82), '교과서 학술용어의 통일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들'
  - ①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고 쉽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② 가능한 한 외국어, 외래어, 한자어보다 고유어를 살려 쓴다.

- ③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이미 오래 써 온 용어이거나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용어이면 받아 들여 쓴다.
- ④ 너무 길어 응축성이 떨어지는 용어(풀이식 용어)는 가능한 한 피한다.
- L. 조태린(2017:317), '남북 교육 용어 표준화 판정 기준'[문법성 윤리·미학성] [일관성 일의성 투명성 경제성 고유성 친숙성]

(5)에서도 그렇지만, 전문 용어를 다루다 보면 당연히 남북한의 통일 전문 용어를 모색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교육 관련 전문 용어의 통일 표준화를 추구하게 된다. (6ㄱ)은 국립국어원 차원에서 제안해 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가지 각각 투명성, 고유성, 적절성(친숙성, 국제성), 경제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6L)에서는 통일 시기 남북 전문 용어 표준화 정책에 대해서 여러 내용을 언급하면서 특히 남북 교육 용어의 표준화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신중진(2016)에서의 위계 기준 가운데, 특히 '일관성'과 '일의성'이 위계에서 앞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통일 국가의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의 고등 교육으로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초중등 교육의 안정성과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계기준에서는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가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일관성'과 한 용어가 한 개념에 대응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일의성'을 강조한 것이다."(317쪽)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 2.2. 남북한의 문법 용어 선정 기준

지금까지 전문 용어 선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더욱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요구하는 남북한 통일 전문 용어 선정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하여 보았다. 그렇다면 이 글에 서 살피고자 하는 남북한 문법 용어의 선정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동안 남북한의 문법 용어를 살핀 연구는 여러개 있었다. 고영근(1989), 이관규 (1997), 홍종선(1999)에서는 북한의 《조선문화어규범문법》(1979)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법 용어를 소개하고 있으며, 임홍빈(1997)에서는 북한의 문법론 전반을 사적인 측면 까지 언급하면서 문법 용어도 검토하고 있다. 이관규(1999)에서 북한의 학교 문법 전반을 살폈고, 이주행(2004)에서는 남북한의 학교 문법 용어를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강보선(2018, 2020)에서는 북한의 학교 문법 내용을 언급하면서 남북한의 문법 용어도 비교하여 보고 있으며, 오현아(2019)에서도 남북한의 학교 문법 용어를 살피

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한의 문법 용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밀도 있게 살핀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sup>15)</sup>

## (7) 한재영(2018:440-441), '표준화를 위한 문법 용어 선정의 원칙'

- 고. 규범성의 원칙: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문법의 연구 분야에 대한 규범적인 사용을 존중한다.
- L. 전통성의 원칙: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문법의 연구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용어 사용을 존중한다.
- C. 정합성의 원칙: 용어들의 평면적인 측면보다는 가능한 한, 체계 속에서 모순성이 해소될 수 있 도록 한다.
- 리. 생산성의 원칙: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어가 가지는 생산가능성을 고려한다.
- 다수성의 원칙: 하나의 용어가 둘 이상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서로 다른 용어를 선택하도록 한다.
- ㅂ. 복수성의 원칙: 하나의 용어가 서로 다른 영역 내에서 널리 쓰여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 시. 간결성의 원칙: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용어 사용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간결하게 한다.

(7)은 한재영(2018)이 최근에 쓴 표준화를 위한 문법 용어 선정의 원칙을 보인 것이다. (7기) '규범성'은 표준화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고 (7비) '복수성'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미리 전제한 것이다. '전통성, 정합성, 생산성, 단수성, 간결성'은 각각 '적절성(친숙성), 일관성, 파생성, 언어적 경제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4)의 '투명성, 정확성, 고유어 선호'는 기준에서 빠져 있다. 물론 (7)은 남북한 통일 문법 용어를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가 있을지 몰라도 '투명성, 정확성'이 빠진 것은 의아하다. '고유성'도 굳이 선정하지 않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7)에서 '단수성'과 '복수성'은 함께 선정 기준으로 두는 게 맞는지 의아하다. 이어령비어령으로 해석될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7)은 본래 국어학, 학교 문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을 아우르는 소위 '한국어 표준 문법'을 추출해 내는 작업(유현경 외, 2018)의 원칙을 담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리 서로 대치되는 기준을 내었는지도 모른다.

<sup>15)</sup> 국립국어원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을 목표로 했던 신중진 외 (2017:126-128)에서는 남북한의 문법 분야의 전문 용어 통합 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제기한 바가 있다. 신중진 외(2017)에서 사용한 북한 문법 자료는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 반에 나온 '국어문법 1, 2, 3'세 권이다. 이관규(1999), 이주행(2004), 오현아(2019)에서도 동일한 북한 문법 교과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강보선(2018, 2020)에서만 현행, 즉 2013년~2015년에 나온 북한 국어 교과서의 문법을 다루고 있다.

- (8) 리수락(2002), 남북 용어 통일안 표준화 원칙 (최기선, 2007:15-16 재인용)
  - ㄱ. 개념표현의 정확성(총 10점)
    - -개념의 가장 주된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가?(4점)
    - -애매성 없이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가?(4점)
    - -개념 변화에 적응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져 있는가?(2점)
  - ㄴ. 학술적 체계성 및 원어와의 대응관계(총 10점)
    - -개념 간의 계층 구조, 연관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3점)
    - -유의어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가?(3점)
    - -대응되는 원어를 정확히 알 수 있는가?(2점)
    - -원어와 우리말 간의 대응 관계가 정확한가?(2점)
  - ㄷ. 우리말 다듬기 정도(총 10점)
    - -고유어(10점) > 굳어진 쉬운 하자말(8점) > 어려운 하자말(4점) > 외래어((0점) 순으로 평가
    - -어휘 구성이 문법 규범에 맞는가?
  - 근. 언어적인 완성도(총 10점)<sup>16</sup>
    - -발음하기 쉽고 귀로 듣는 느낌이 좋은가?(4점)
    - -듣고 혼동되는 일이 없는가?(2점)
    - -파생어를 만드는 능력이 높은가?(2점)
    -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의 결합이 자연스러운가?(2점)
  - ㅁ. 문화적인 측면(총 10점)

필요하다고 본다.

-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 알기 쉬운 말로 구성되어 있는가?(4점)
- -지금까지 쓰여 온 용어들과의 계승성이 있는가?(2점)
- -다른 학술 분야의 용어들과 통일성이 보장되고 있는가?(2점)
- -문화성이 없는 말들을 쓰고 있지 않은가?(2점)

(8)은 앞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리수박 박사가 제안한 남북용어의 통일화 원칙이다(최기선, 2007:15-16). 이것은 비록 남북한의 문법 용어만을 위한 선정 기준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주의해서 볼 만한 것들이 있다. (8¬~□) 속에는 정확성, 체계성, 원어 대응성, 일관성, 고유어성, 간결성, 발음성, 파생성, 경제성, 문화성 등이 들어가 있다.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지만, 특히 선정 기준 하나하나에 가중치를 두어서 수치화한 것은 인공지능시대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 판단한다. 연구자는 남북한의 통일 문법 용어 선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선정 기준이

<sup>16)</sup> 최기선(2007:16)에서는 (8ㄹ)을 총 10점이라고 했으나 "발음하기 쉽고 귀로 듣는 느낌이 좋은가?"를 2점만 배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리 하면 총 8점이 된다. 나머지 기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항목 은 4점으로 배점되어야 총 10점이 된다.

#### (9) 남북한의 통일 문법 용어 선정 기준

ㄱ. 투명성: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ㄴ. 정확성: 언어학적으로 맞아야 한다.

다. 간결성: 음절수가 간결해야 한다.

ㄹ. 고유성: 가능한 한 고유어로 해야 한다.

(9)는 앞에서 살핀 여러 기준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라 판단해서 선정한 것이다. '투명성'은 한 번 보면 바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정확성'은 언어학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며, '간결성'은 가능한 한 음절수가 간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각각은 다분히 의미, 형태·통사, 발음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고유성'은 남북한의 공통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순수한 고유어라면 최고의평점을 주겠지만 거의 우리말화된 한자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가중치를 어떻게 정하냐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남북한 통일 문법 용어를 선정하는기준으로 이들 네 가지 기준을 선정하고 통일 문법 용어를 선정할 때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한다.

# 3. 남북한의 형태론·통사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남북한의 문법 용어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그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본래 형태론과 통사론은 이론 문법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에서 활동하는 모든 학자들의 논저를 살펴서 그 문법 용어들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그수가 수십 수백 종류나 되어서 그것을 살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논저들을 검토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학교 문법 용어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남한은 학교 문법을 통해서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실제로 각종 이론서들을 보아도 학교 문법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학자들 나름대로의 이론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17) 또한 북한은 국가 차원의 언어 연구가 이루어지곤 하는데, 그 역시 소학교 와 중등학교를 통해서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사용되는 문법 용어가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장에서는 형태론과 통사 론의 문법 용어의 사용 실태를 살피고 남북한 문법 용어의 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 색해 보도록 한다.

# 3.1. 남북한의 형태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

3.1.1. 남한의 현행 문법 교과서는 2019년 3월에 발간된 5종의 《언어와 매체》이다. '언어' 분야가 바로 문법 내용을 다룬다. 물론 초중등학교에서 교수 학습하는 《국어》 교과서에도 문법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문법 내용 및 문법 용어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은 바로 이 검정 교과서이다. 이 다섯 검정 교과서의 내용 및 용어는 대개 마지막 국정 문법 교과서인 《고등학교 문법》(2002)의 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검토하여도 내용 및 용어가 대동소이하다.

### (10) 남한 《언어와 매체》(2019)의 형태론 문법 용어<sup>18)</sup> [총 97개 - 고유어 0, 한자어 97]

단어, 어근, 접사, 파생 접사, 굴절 접사; 접두사, 접미사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반복 합성어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 포사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고유 명사, 보통 명사, 자립 명사, 의존 명사;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

<sup>17)</sup> 최근에 나온 유현경 외(2019)의 《한국어 표준 문법》에서 사용한 문법 용어도 아래에서 보듯이 학교 문법 용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어, 합성법, 파생법, 합성어, 파생어, 어근, 접두사, 접미사;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보통 명사, 고유 명사 ; 자립 명사, 의존 명사 //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 양수사, 서수사 //자동사, 타동사 ;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 // 성상 형용사, 지시 형용사 ; 규칙 형용사, 불규칙 형용사 //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 // 성분 부사, 문장 부사 ;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

조사: 격 조사: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cf. 구조격 조사와 의미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종결 어미, 비종결 어미(연결 어미-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전성 어미-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문장 성분; 주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 부속 성분: 관형어, 부사어 ; 독립 성분

홑문장, 겹문장: 이어진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안은문장: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을 안은 문장

문장의 유형: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sup>18) 《</sup>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있는 문법 용어의 숫자나 《고등 학교 문법》(2002) 교과서에 제시된 문법 용어의 숫자나 거의 비슷하다. 전자는 97개, 후자는 98개이다. 그 세부 종류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 종류들도 거의 유사하다. 다음은 후자의 단어 및 품사 관련 문법 용어이다.

ㄱ. 단어의 형성

#### ㄱ. 단어의 짜임 (17개)

단어, 어근, 접사; 접두사, 접미사,;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구,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 ㄴ. 품사 (80개)

불변어, 가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고유 명사, 보통 명사, 자립 명사, 의존 명사;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사(미지칭, 재귀칭, 부정칭; 1인칭, 2인칭, 3인칭); 양수사, 서수사

관계언; 조사;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보격 조사, 호격 조사, 서술격 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 성상 형용사, 지시 형용사; 보조 용언;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본 용언; 활용;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불규칙 용언; 어간, 어미

어미,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어간; 종결 어미, 평서형 어미, 감탄형 어미, 의문형 어미,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연결 어미,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 전성 어미,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수식언; 관형사, 부사;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 성분 부사, 문장 부사, 접속 부사,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

독립언; 감탄사

(10)은 남한의 《언어와 매체》 검정 교과서에 제시된 형태론 분야의 문법 용어를 제시한 것으로, 단어의 짜임과 관련된 (10ㄱ)과 품사와 관련된 (10ㄴ)으로 2대별되어 있다. 전자에는 17개, 후자에는 80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것들을 어종별로 나누어 보면, 97개 모두가 한자어로 되어 있고. 고유어와 외래어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 (11) 북한《국어1,2》(2013. 2014)의 형태론 문법 용어: [총 57개: 고유어 9, 한자어 25, 혼종 23] ㄱ. 단어 (10개)

사, 재귀 대명사; 양수사, 서수사

관계언; 조사;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보격 조사, 호격 조사, 서술격 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 성상 형용사, 지시 형용사; 보조 용언;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본용언; 활용;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불규칙 용언; 어간, 어미

어미;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평서형 어미, 감탄형 어미, 의문형 어미,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연결 어미/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 전성 어미/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수식언: 관형사, 부사: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 성분 부사, 문장 부사, 접속 부사,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 의성 부사, 의태 부사 독립언: 감탄사

단어, 합친말, 단어만들기수법

합침법, 덧붙임법, 소리바꿈법 ; 말뿌리, 앞붙이, 뒤붙이 ; 형태부

ㄴ, 품사 (47개)

체언: 명사, 수사, 대명사

보통명사, 고유명사, 완전명사, 불완전명사 ; 사람대명사, 가리킴대명사, 물음대명사

용언: 동사, 형용사 ; 자립동사, 보조동사

관형사와 감동사

부사: 행동부사, 상태부사, 문장부사, 상징부사, 이음부사, 부정부사

토: 체언토: 격토, 도움토, 복수토

주격토, 대격토, 속격토, 여격토, 위격토, 조격토, 구격토, 호격토

용언토: 맺음토; 이음토, 규정토, 상황토, 존경토, 시간토, 상토

바꿈토

한편 (11)은 북한의 초급중학교에서 배우는 《국어1,2》에 나오는 문법 용어들을 제시한 것이다. 단어와 품사 관련 문법 용어 숫자는 모두 57개인데,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띤다. 고유어가 9개(15.8%), 한자어가 25개(43.9%), 그리고 고유어와 한자어가 합해진 것이 23개(40.3%)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19)

남북한의 형태론 관련 문법 용어의 사용 실태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점은 남한의 것이 북한의 것에 비해서 무척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남한의 인칭 대명사를 제시하면서 '미지칭, 재귀칭, 부정칭;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학습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또 실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문법 용어의 사용은 결국 교수 학습 현장에서 의구심만을 키워 줄 뿐이다.20)

3.1.2. 그러면 본격적으로 남북한의 형태론 문법 용어들에 대해서 비교 대조해 보도록 하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품사의 개수와 명칭이다. (10), (11)에 있는 품사를 다시보기 쉽게 적어 두면 다음과 같다.

<sup>19) &#</sup>x27;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고유어로 나와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이에 비해 '현토(懸吐)'는 한자어로 나와 있어서, '토'도 한자어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는 있다.

<sup>20)</sup> 사실 남한의 [언어와 매체]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이고 북한의 [초급국어]는 중학생들을 위한 교과 서이기 때문에 상호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에서는 문법을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즉 [국어문학] 교과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즉 남북한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수 학습하는 최종적인 문법 내용이라는 점에서 둘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말은 곧 남한의 문법 내용(혹은 용어)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점은 전제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남북한의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과목에 대해서는 김진숙 외(2016) 및 강보선 외(2018)를 참조할 수 있다.

#### (12) 품사의 종류와 이름

- ㄱ. 남한(9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ㄴ. 북한(8개):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남한 9품사, 북한은 8품사이다. 남한의 감탄사, 북한의 감동사 차이가 있고, 남한에 조사가 품사로 인정되고 있음에 비해, 북한에서는 품사로 인정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북한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토'라 하여 따로 각각 체언토와 용언토로 구분하고 있다.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남한에서는 1940년대 후반, 1950년대 많은 역할을 한 외솔 최현배가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그림씨, 매김씨, 어찌씨, 토씨, 잡음씨' 등 고유어 명칭을 주장하였으나 1963년 학교 문법 용어 통일안 제정 이후 명사등 한자어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광복 직후 김두봉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었지만 그가 평소 주장한 '임, 얻, 움, 것, 잇, 맺, 언, 억, 늑'(김두봉, 1922:48)과 같은 고유어 명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3) 조사와 어미의 종류와 이름

#### ㄱ. 남한: 관계언

조사: •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보 격 조사, 호격 조사, 서술격 조사

어미: •어말 어미: 종결 어미(평서형 어미, 감탄형 어미, 의문형 어미,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연결 어미(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

전성 어미(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 ㄴ. 북한: 토

체언토: 격토, 도움토, 복수토 ; 주격토, 대격토, 속격토, 여격토, 위격토, 조격토, 구격토, 호격토

용언토: 맺음토, 이음토, 규정토 ; 상황토, 존경토, 시간토, 상토

바꿈토: (체언의 용언형토), (용언의 체언형토)

북한에서는 조사와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들에 대하여 모두 '토'라고 칭하고 있는데,이렇게 보면 한국어가 교착어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조사와 어미를 각각 체언토와용언토라고 해서 그 쓰임을 잘 드러내 주고 있으며, 체언의 용언형토와 용언의 체언형토 하여 둘 사이의 관련성도 보여 준다. 허사인 조사와 어미를 모두 '토'로 명명하는 방식은 우리말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통일 문법 용어 차원에서 주목해 볼 필

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국어2》 교과서(41쪽)에서 '격토의 개념과 종류'라 하여 "격토는 체언에 직접 붙어서 그 단어를 다른 단어와 련결시켜주는 토입니다. 격토에는 주격토, 대격토, 속격토, 여격토, 위격토, 조격토, 구격토, 호격토가 있습니다."라고 '격토'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고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용어 명칭에 통사론적 격, 의미론적 격명칭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남한의 격조사의 하위 7개 명칭은 통사론적 격 명칭으로 일관성을 지닌다.21)용언토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에서 '상토'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때 '상토'는 남한에서는 피동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를 지칭한다. 토와접사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 (14) 단어의 형성과 형태소

ㄱ. 남한: (단어의 형성)

단어 ; 어근, 접사 ; 접두사, 접미사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 구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ㄴ. 북한: 단어만들기수법

단어, 합친말

합침법, 덧붙임법, 소리바꿈법 ; 말뿌리, 앞붙이, 뒤붙이, 덧붙이 ; 형태부

흔히들 단어는 고유어로 낱말이라 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낱말'을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단어의 형성과 관련하여 어근, 접두사, 접미사 같은 기초적인 용어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말뿌리, 앞붙이, 뒤붙이, 덧붙이'라 하여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합성어, 파생어를 만드는 합성법, 파생법을 북한에서는 '합침법, 덧붙임법'이라 하여 헷갈리지 않게 하고 있다. 합성어도 그냥 '합친말'로 명명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긴 남한에서 단어의 형성법에 해당하는 '단어만들기수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투명성 원리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sup>21)</sup> 북한에서 나온 문헌마다 격체계 및 종류 등에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정순기(2005)에서는 '주격, 대격, 속격, 여격, 위격, 조격, 구격, 비교격, 호격, 절대격'의 격체계를 설정하여 북한의 학교 문법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조선어격체계의 구성에서는 다음으로 절대격을 하나의 독자적인 격으로 설정하겠는가 아니면 특수한 용법으로 처리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제기될수 있다. /.../ 절대격은 문장에서 주격, 대격, 속격 등 거의 모든 격토를 대신해서 쓰이지만 모든 격토들이 나타내는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정순기, 2005:142)라고 하면서, "이처럼 조선어에서는 지난날격의 수효가 7개, 8개, 9개 등 각이하게 설정되었지만 여기서는 여-위격을 분리시켜 여격과 위격을설정하고 비교격과 절대격을 포함시켜 10개로 그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정순기, 2005:143-144)라고 밝히고 있다.

(14)에서 눈에 띄는 용어는 '형태부'이다. 김동찬(2005:36-37)에서는 "《형태부》라는 개념은 단어에서 그 질을 상실하지 않고서는 더 쪼갤수 없는 가장 작은 뜻가진 단위이다."라고 하면서 "《형태부》는 그 부류로서 《앞붙이》, 《뒤붙이》, 《말뿌리》가 갈라지지만《의미부》에는 이렇게 이름붙이는것이 맞지 않으며 또 그렇게 같게 부르는것은 조어현상을 파악하는데서 혼동을 일으킬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형태부'가 단어 만들기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언뜻 보면 남한에서 사용하는 '형태소'와동일한 개념으로 파악되지만, 특별히 단어 만들기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남한과 차이 난다. 또한 북한의 '단어만들기수법'에서 '소리바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음과 모음의 변화를 통해서 단어들이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엄밀히말해서 단어 만들기 차원이 아니라 단어들의 유형을 구분해 주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남한에서는 이러한 것을 자음과 모음의 차이에 따른 음상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남북한이 이런 차이는 결국 단어 만들기가 결과로서의 양상을 기술한 것인지 아니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을 보이가 위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 3.2. 남북한의 통사론 분야 문법 용어 사용 실태

3.2.1. 남북한의 통사론 분야의 문법 용어 사용 실태도 남한의 《언어와 매체》 교과 서와 북한 《국어3》(2015)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용어들을 통해서 그 성격을 확인해 볼 수 있다.<sup>22)</sup>

<문장>

어절, 구, 절

주어부, 서술부

문장 성분;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성분 부사어, 문장 부사어, 접속 부사어

<문장의 짜임>

홑문장, 겹문장; 이어진 문장, 안은 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직접 인용절, 간접 인용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문법 요소>

종결 표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반어 의문문)

높임 표현; 상대 높임법(격식체, 비격식체), 주체 높임법(직접 높임, 간접 높임), 객체 높임법 시간 표현; 시제, 발화시, 사건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동작상(진행상, 완료상)

<sup>22) 《</sup>고등학교 문법》(2002)에 나타난 문장의 문법 용어는 전체 112개인데, 고유어 0개, 한자어 90개, 고유어+한자어 22개로 나타났다.

(15) 남한 《 언어와 매체》 (2019)의 단어, 문장의 용어<sup>23)</sup> (108개 = 고유어8 + 한자어73 + 혼종어27)

〈문장〉15

문장, 절, 구, 어절

문장 성분;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문장의 짜임〉22

홑문장, 겹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안은문장, 안긴문장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인용 부사격조사

〈문법 요소〉71

종결 표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높임 표현; 상대 높임법(격식체, 비격식체), 주체 높임법(직접 높임, 간접 높임), 객체 높임법; 하 십시오체(아주 높임), 하오체(예사 높임), 하게체(예사 낮춤), 해라체(아주 낮춤), 해 요체(두루 높임), 해라체(두루 낮춤); 높임, 낮춤

시간 표현; 시제, 발화시, 사건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동작상(진행상, 완료상)

피동 표현; 능동, 피동, 능동사, 능동문, 피동사, 피동문; 파생적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 피동 접 미사; 이중 피동 표현

사동 피동; 주동, 사동, 주동사, 사동사, 주동문,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 통사적 사동문, 사동 접 미사; 이중 사동 표현

부정 표현;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안 부정문, 못 부정문, 중의성

인용 표현; 직접 인용 표현, 간접 인용 표현

(15)는 남한의 현행 《언어와 매체》 검정 교과서에 나타난 통사론 분야 문법 용어들을 제시한 것이다. 형태론 문법 용어 97개보다 많은 108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 통사론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는 상황을 반영하며 실제로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화자의 사고를 완결하여 전달하는 단위로서의 문장의 역할을 중요시한 덕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하튼 통사론 문법 용어들을 보면 고유어

피동 표현; 능동, 피동, 능동사, 능동문, 피동사, 피동문; 파생적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 피동 접미사 사동 피동; 주동, 사동, 주동사, 사동사, 주동문,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 통사적 사동문, 사동 접미사 부정 표현;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중의성

<sup>23)《</sup>언어와 매체》교과서는 5종이 검정을 통과하고 2019년 3월 1일자로 공식 출판되었다. 약간씩 교과 서 구성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문법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는 비상교육에서 나온 검정 교과 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한다.

가 8개(7.4%), 한자어가 73개(67.6%), 고유어와 한자어를 결합 혼종어가 27개 (25.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형태론 문법 용어가 100% 97개가 한자어였음을 비교해 보면 고유어 및 혼종어의 비율이 무척 높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단어에 대한 연구가 일제 때부터든 한자어 문화권 속에서 그 시간이 오래되어 있었다는 점과 반대로 문장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변형생성문법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문장 차원의 연구이기 때문에 내용 전달을 정확히 그리고 쉽게 하는 데에 고유어 사용이 유리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16) 북한의 《국어 3》(2015)의 문법 용어 ; (총 29개 = 고유어 5 + 한자어 14 = 혼종어 10)

맞물린성분(1): 술어, 주어, 보어 ; 문장, 문장성분 ; 단순성분, 확대성분 ; 맺음술어, 이음술어

맞물린성분(2): 인용어, 상황어, 규정어

외딴성분: 부름말, 느낌말, 이음말, 끼움말, 내세움말

문장의 갈래: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 ; 단순문, 확대문 ; 단순문, 복합문

한편 (16)에 제시된 북한의 통사론 분야 문법 용어들을 보면 단지 그 숫자가 29개에 불과하다. 고유어는 5개(17.2%), 한자어는 14개(48.3%), 그리고 고유어와 한자어를 합해서 이루어진 문법 용어는 10개(34.5%)이다. 용어의 종류로 보면 남한에 비해서 한자어 비율은 낮고 고유어 비율이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인다.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앞서 (2)에서도 보았듯이 김일성의 주체이론을 통해서 고유어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서는 문장 중심의 연구가 남한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장 연구를 강조하는 미국의 변형생성문법이 북한에서는 활성화될수 없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고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던 단어 중심의 형태론이 북한의 학교 문법에서도 반영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초급중학교《국어》교과서에서는 형태론 내용이 1학년과 2학년 과정에 21개 과에 걸쳐 있음에 비해서 문장론 내용은 3학년 과정에서 그것도 겨우 4개 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3.2.2.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남북한의 통사론 문법 용어의 특성 및 개념을 비교 대조해 보도록 하자.

# (17) 문장 성분의 종류

ㄱ. 남한(7개): 문장 성분

#### 제574돌 한글날 기념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성분: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 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 독립어

ㄴ. 북한(6개 혹은 11개): 문장성분

맞물린성분(1): 술어, 주어, 보어

맞물린성분(2); 인용어, 상황어, 규정어

외딴성분: 부름말, 느낌말, 끼움말, 이음말, 내세움말

(17つ)에서 보다시피 남한에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 문장 성분을 설정하고 크게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눈다.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주성분이며, 관형어와 부사어가 부속 성분이고, 독립어가 독립 성분이 된다. 이 구분은 일찍이 최현배 (1937)에서 '월의 조각의 갈래(文의 組成成分, 成分)'라 하여 '임자말, 풀이말, 기움말, 부림말, 꾸밈말, 어찌말, 홀로말'로 구분한 것과 현재는 한자어로 되어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문장 성분이라는 용어는 남한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그 분류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sup>24)</sup> <sup>25)</sup> "문장의 구성요소인 문장성분은 그것이 다른 성분과 상관관계를 직접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에 따라 맞물린성분과 외딴성분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면서 "맞물린성분은 해당 문장성분이 전일적인 문장에서 의미-문법적으로 맞물리는 상관관계를 맺는 성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리기만, 2005:54). 대개 맞물린성분은 남한의 주성분과 부속 성분에 해당하고, 외딴성분은 남한의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외딴성분을 부름말, 느낌말, 끼움말, 이음말, 내세움말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체로 남한의 독립 성분과 일치하지만 이음말('그러나', '그리고' 등)은 남한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부사어로 처리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리기만, 2005:274-275 참조).

#### (18) 북한의 문장 성분 관련 개념

그. 술어란 《 》, 《 》, 《 》라는 물음에 대답하면서 문장안의 다른 성분들을 다 자기에게 맞물리게 하고 그것들을 설명해주는 문장성분을 말합니다.

술어는 문장에 놓인 위치에 따라 맺음술어와 이음술어로 갈라볼수 있습니다. / 맺음술어는 기본적으로 단어에 맺음토가 붙어서 표현되며 문장을 끝맺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이음술어는 기본적으로 단어에 이음토가 붙어서 표현되며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3:64]

ㄴ. 주어란 《 》, 《 》라는 물음에 대답하면서 이야기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면서 술어와 맞물

<sup>24)</sup> 초급중학교의 《국어 3》에서는 "문장성분이란 문장에서 일정한 물음에 대답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단어 또는 단어결합을 말합니다."(62쪽)라고 말하고 있다.

<sup>25)</sup> 김두봉(1922)에서는 문장 성분으로 임자감, 풀이감, 딸림감, 매임감으로 4개 설정하고 있다.

리는 문장성분을 말합니다.[3:65]

- 다. 보어란 술어와 맞물리면서 《무엇을 (누구를)》, 《 에(누구에게)》, 《무엇으로( 로)》,
   《 과(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등 여러가지 물음에 대답하면서 술어를 보태주는 문장성분을 말합니다. [3:65]
- 리. 인용어란 술어와 맞물리면서 다른 사람이나 자기자신이 이미 한 말을 인용하는 문장성분을 말합니다. 인용어는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어찌한다고》, 《어떠하다고》등의 물음에 대답합니다. [3:115]
- ロ. 상황어란 술어와 맞물리면서 《어떻게》, 《얼마나》등의 물음에 대답하며 술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문장성분을 말합니다.
- ㅂ. 규정어란 체언성분과 맞물리면서 《 어떤》, 《 누구의》, 《 무엇의》라는 물음에 대답하며 대상의 특성을 규정하거나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성분을 말합니다. [3:118]
- 시. 외딴성분: 문장속에 자리잡고있지만 술어와 맞물리지 않고 외따로 문장속에 존재하는 외딴성분. [3:169] / 부름말, 느낌말, 이음말, 끼움말, 내세움말 [3:169-171]

(18)은 북한의 문장 성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어 3》(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이다. 술어와 주어는 남한의 서술어와 주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용어인데, 술어를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의 성격에 따라서 맺음술어와 이음술어로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북한의 보어 개념은 남한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곧 남한의 대체로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18 대). 참고로 북한에서는 따로 목적어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는 술어, 주어, 보어를 '맞물린성분(1)'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용어, 상황어, 규정어를 '맞물린성분(2)'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전자가 필수 성분이고, 후자가 수의 성분이라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리기만 (2005:48-57)에서는 주성분과 부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성분은 주어, 술어를 가리키고 부성분은 보어, 상황어, 규정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맞물린성분(1)과 맞물린성분(2)를 필수 성분과 수의 성분으로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다.26) 북한의 규정어는 남한의 관형어에, 상황어는 남한의 부사어에 대체로 해당한다

<sup>26)</sup> 리기만(2005:54-55)에서는 맞물린성분으로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를 제시하고 외딴성분으로 느낌말, 부름말, 끼움말, 이음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리기만(2005:52-53)에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해서 '주도적성분'과 '의존적성분'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곧 "주도적성분은 문법적관계에서 자기와 맞물리는 성분을 문법적으로 지배하는 성분이고 의존적성분은 주도적성분의 문법적지배를 받는 성분이다."라고 하면서, 주어와 술어의 맞물림에서 주도적성분은 주어이고, 보어와 술어, 상황어와 술어의 맞물림관계에서는 술어가 주도적성분이며, 규정어와 피규정어와의 맞물림관계에서 주도적성분은 피규정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김백련(2005)에서는 또 다른 분류 방식을 보이고 있다. 문장의 근간성분으로 '술어, 주어, 직접보어, 간접보어, 상황어, 이음말', 문장의 곁가지성분으로 '규정어, 련립어', 문장의 독립성분으로 '느낌말, 부름말, 보임말, 끼움말'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연구자에 따라서 문장성분을 분류하는 기준과 이름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18口,ㅂ). 북한의 인용어는 남한에서는 대개 부사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인용어, 상황어, 규정어는 의미적인 용어이고, 술어, 주어, 보어는 통사론적 용어이어서 기준에 차이가 난다.

#### (19) 문장의 종류

- ㄱ. 남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 홑문장, 겹문장(이어진문장, 안은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 장)27)
- ㄴ. 북한: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
  - 단순문, 확대문,/ 단일문, 복합문

(19¬)에서 보다시피 남한에서는 기본적인 문장의 종류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각각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으로 고유어를 활용한 문장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단순문과 확대문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데, "단순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단순문, 한 개이상의 확대성분을 가지고있는 문장을 확대문"이라고 구분하고 있다(《국어 3》(215쪽)). 결국 관형어나 부사어가 덧붙은 문장에 대해서 문장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확대문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남한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숫자에 따라서 홑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고 있는데,이에 대응하는 북한에서의 분류는 단일문과 복합문이다. "주어와 술어의 맞물림관계가 한번 있는 문장을 단일문, 주어와 술어의 맞물림관계가 두번 또는 그 이상 있는 문장을 복합문이라고" 말하고 있다(215쪽). 북한의 《국어 3》 교과서에서는 (19ㄴ)처럼 간단히 단일문과 복합문을 소개하고 있을 뿐,더 이상 깊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단순문과 단일문, 확대문과 복합문의 관계가 더 이상 국어 교과서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통사론 관련 전문 도서《조선어문장론》(2005)에서의 논의를 가져오기로 한다.

## (20) 북한의 단순문과 단일문, 확대문과 복합문의 관계 개념 (김백련, 2005:275)28)

<sup>27)</sup> 남한의 겹문장 분류는 최현배(1937)에 힘입은 바 크다. 최현배(1937)에서는 문장을 월이라 하고 홑월과 겹월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겹월은 가진월(포유문), 벌린월(병렬문), 이은월(연합문)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가진월이 바로 안은문장이며, 벌린월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은월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

<sup>28)</sup> 김백련(2005)에서는 (20)의 구분 이외에도 문장 구조 유형을 용언술어문장과 체언술어문장으로 구분 하였으며, '서술문, 물음문, 명령문, 권유문, 약속문, 느낌문 ; 긍정문, 부정문 ; 주동문, 사역문, 피동

- ㄱ. 나는 책을 읽는다. 《단순문-단일문》
- ㄴ. 나는 책을 읽고 너는 글을 쓴다. 《단순문-복합문》
- ㄷ. 나는 그가 준 책을 읽는다. 《확대문-단일문》
- ㄹ. 나는 그가 준 책을 읽고 너는 글을 쓴다. 《확대문-복합문》

결국 (20¬,ㄴ)에서처럼 주술 관계로만 이루어지면 그 숫자에 상관없이 단순문이고, 수식 표현 없이 주술 관계가 한 번만 있으면 단일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20¬,ㄷ)에서처럼 수식 표현 여부와 상관없이 주술 관계가 한 번만 있으면 단일문이라는 말이다. 한 편 (20ㄷ,ㄹ)에서처럼 수식 표현만 있으면 주술 관계의 숫자는 상관없이 확대문이 되며, (20ㄴ,ㄹ)에서처럼 수식 표현 상관없이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 있으면 확대문이 된다.

(20) 문장들에 대하여 남한이라면 (20¬)은 홑문장이고 (20ㄴ~ㄹ)은 모두 겹문장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20ㄴ)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20ㄷ)은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20ㄹ)은 안긴절도 있고 이어진절도 있는 일종의 혼성문이 될 것이다.<sup>29)</sup>

요컨대, 남북한의 문장 성분과 문장 종류 관련 문법 용어는 남북한이 유사한 분류 및 개념이 있기도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가 차이 나는 것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확대문과 복합문에 대해서는 남북이 함의하는 범위가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남북한의 형태론·통사론 분야의 문법 용어 통일 방안

지금까지 3장에서는 남북한의 중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형태론·통사론 분야의 문법 용어를 모두 살펴보았고, 특히 단어 형성, 품사, 문장 성분, 문장 갈래 관련 주요 문법 용어들을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4장에서는 이들 용어 가운데 특히 후자의 용어들을 중심으로 하여 2장에서 제시한 통일 문법 용어 선정 기준에 따라서 남 북한 문법 용어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자.

# (21) 남북한 형태론의 주요 문법 용어 ((12)~(14)를 하나로 합한 것)

문, 중동문" 등을 문장의 기능 유형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의 과학원 언어문학연구 소에서 1977년에 낸 《조선문화어문법규범》에서는 복합문을 겹침복합문, 이음복합문(벌림복합문, 매임복합문), 얽힘복합문으로 나누기도 하였다(하치근, 1993:237-141 참조). 또한 김용구(1986)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복합문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연결의 방식에 따라 접속 복합문, 병립 복합문, 연접 복합문으로 나누기도 하였다(이관규, 1997:179-180; 임홍빈, 1997:519-520 참조).

<sup>29)</sup> 남한의 학교 문법에서는 (20a)처럼 안긴문장도 있고 이어진문장도 있는 전체 겹문장에 대한 용어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굳이 명명하자면 혼성문이라는 용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ㄱ. 남한:

- ①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 ② 조사: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보 격 조사, 호격 조사, 서술격 조사

어미: • 어말 어미: 종결 어미(평서형 어미, 감탄형 어미, 의문형 어미,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 연결 어미(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 전성 어미(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③ 단어 ; 어근, 접사 ; 접두사, 접미사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형태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 ㄴ. 북한:

- ①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 ② 토: 체언토: 격토, 도움토, 복수토 ; 주격토, 대격토, 속격토, 여격토, 위격토, 조격토, 구격토, 호격토

용언토: 맺음토, 이음토, 규정토 ; 상황토, 존경토, 시간토, 상토 바꿈토: (체언의 용언형토), (용언의 체언형토)

③ 단어, 합친말

합침법, 덧붙임법, 소리바꿈법 ; 말뿌리, 앞붙이, 뒤붙이, 덧붙이 ; 형태부

(21)은 앞의 (12)~(14)에서 제시한 남북한의 형태론 분야의 주요 문법 용어들이다. 이들은 품사, 단어 형성, 조사와 어미가 남북한 비교 대조 사항이다. 대체로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문법 용어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을 용어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하면 결국 다음 (22)와 같은 용어들을 비교 대조하게 될 것이다.30)

## (22) 남북한의 형태론 주요 문법 용어의 통일안

	남한	북한	통일안	남북	기준
1	단어	단어	단어	공통	투명성
2	명사	명사	명사	공통	투명성
3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공통	투명성
4	수사	수사	수사	공통	투명성

<sup>30) (22)</sup> 표에는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단일어, 파생어'에 대응하는 북한 쪽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들은 문법 용어 가운데 중요한 체계성을 보이는 것이어서 여기에 제시하였고, 나아가 통일안을 마련하여 보았다.

5	동사	동사	동사	공통	투명성
6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공통	투명성
7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공통	투명성
8	부사	부사	부사	공통	투명성
9	감탄사	감동사	감탄사	남	투명성/정확성
10	조사	체언토	체언토	북	고유성
11	격조사	격토	격토	북	고유성
12	주격 조사	주격토	주격토	북	고유성
13	목적격 조사	대격토	목적격토	새로	정확성
14	보격 조사	(주격토?)	주격토	북	고유성
15	서술격 조사	체언의 용언형토	형용사형토	새로	정확성/간결성
16	관형격 조사	속격토	관형격토	새로	고유성/정확성
17	부사격 조사	여격토/위격토/조격토 /구격토	부사격토	새로	고유성/정확성
18	호격 조사	호격토	호격토	북	고유성
19	어미	용언토	용언토	북	고유성/정확성
20	어말 어미	?	용언토?	북?	
21	종결 어미	맺음토	맺음토	북	고유성/간결성
22	연결 어미	이음토	이음토	북	고유성/투명성/간결성
23	전성 어미	바꿈토	바꿈토	북	고유성/투명성/간결성
24	명사형 어미	용언의 체언형토	명사형토	새로	정확성/간결성
25	관형사형 어미	규정토	관형사형토	새로	고유성/정확성
26	부사형 어미	상황토*	부사형토	새로	고유성/정확성
27	선어말 어미	?	중간토?	새로	
28	(시제선어말어미)	시간토	시간토	북	고유성/투명성/간결성
29	(피동/사동 접미사)	상토	피동토/사동토??	새로	투명성/고유성/간결성
30	(높임선어말어미 /주격 조사)	존경토	존경토	북	고유성/간결성
31	어근	말뿌리	말뿌리	북	고유성/투명성
32	접사	덧붙이	덧붙이	북	고유성/투명성
33	접두사	앞붙이	앞붙이	북	고유성/투명성
34	접미사	뒤붙이	뒤붙이	북	고유성/투명성
35	형태소	형태부	형태소	남	투명성/정확성
36	단일어	?	단일어?	남	
37	복합어	합친말	합친말	북	고유성/투명성
38	파생어	?	덧붙임말	새로	고유성/투명성
39	(합성법)	합침법	합침법	북	고유성/투명성

40	(파생법)	덧붙임법	덧붙임법	북	고유성/투명성
	고유어 0, 한자어 39, 혼종어 1	고유어 8, 한자어 10, 혼종어 20	고유어 9, 한자어 10, 혼종어 20	공통 8, 새로 9, 남 3, 북 19	고유성 24 투명성 22 정확성 10 간결성 4

(22)는 (21) 가운데 "평서형 어미, 감탄형 어미, 의문형 어미, 명령형 어미, 청유형어미;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어미, 부사형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형태소; 소리바꿈법"을 제외한 것이다. 이들은 남한 교과서에서만 아주 세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비교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시제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대표해서 제시한 사례인데, 이는 북한에서 '시간토'라는 용어가 있어서 대응시킨 것이다.

(22)의 통일안 용어는 투명성, 정확성, 간결성, 고유성이라는 (9)의 용어 선정 기준을 따르고자 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22)에서 통일 용어로 제시한 것 가운데 서술격 조사를 형용사형토로 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서술격 조사는 '이다'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사로 보는 견해, 지정사로 보는 견해, 접사로 보는 견해 등은 오랜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이다'가 앞의 성분을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형용사형토로 명명한 것이다.31) 이렇게 하면 명사형토, 관형사형토, 형용사형토, 부사형토로 명명하게 되어 일관성을 얻게 되는 효과도 있다. 한편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고유어로 어찌 해야 할지 하는 고민이 남아 있다. (22)는 성정 기준으로 고유어성에 가장 큰 방점을 부여한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조사와 어미를 품사로 인정하느냐 여부와 관련하여 둘 다 허사로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 (23) 남북한 통사론의 주요 문법 용어 ((17), (19)를 하나로 합한 것)

- ㄱ. 남한:
  - ① 문장 성분: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 관형어, 부사어 ; 독립어
  - ②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홑문장, 겹문장(이어진문장, 안은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ㄴ. 북한:

<sup>31)</sup> 사실 '이다'를 체언의 용언형토라고 명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부터입니다' 같은 예를 보면 '이다' 앞에 체언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① 문장성분: 맞물린성분: 술어, 주어, 보어 ; 인용어, 상황어, 규정어 외딴성분: 부름말, 느낌말, 끼움말, 이음말, 내세움말

②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 ; 단순문, 확대문 ; 단일문, 복합문

(23)은 남북한 학교 문법에서 제시된 문장 성분과 문장 종류의 주요 문법 용어들을 보인 (17)과 (19)를 모아 놓은 것이다. 앞서도 본 것처럼 남북한의 문법 용어들은 지니 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정확성, 간결성, 고유성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24) 남북한의 통사론 주요 문법 용어의 통일안

남한	북한	통일안	남북	선정 기준
문장	문장	문장	공통	
문장 성분	문장성분	문장성분	북	간결성
서술어	술어	술어	북	간결성
주어	주어	주어	공통	
목적어	보어	목적어	남	정확성
보어	주어?	주어	북	정확성?
관형어	규정어	관형어	남	정확성
부사어	상황어?/인용어?	부사어	남	정확성
독립어	부름말/느낌말/끼움 말/내세움말/이음말	독립어	남	정확성
평서문	알림문	알림문	북	고유성
의문문	물음문	물음문	북	고유성
명령문	시킴문	시킴문	북	고유성
청유문	추김문	추김문	북	고유성
감탄문	느낌문	느낌문	북	고유성
홑문장	단일문/단순문	홑문장	남	고유성
겹문장	복합문?/확대문?	겹문장	남	고유성
이어진문장	복합문?	이어진문장	남	고유성
안은문장	확대문?	안은문장	남	고유성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벌림복합문) <sup>32)</sup>	대등문	새로	간결성/투명성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매임복합문)	종속문	새로	간결성/투명성

	고유어 0, 한자어 14, 혼종어 6	고유어 5, 한자어 13, 혼종어 7	고유어 0, 한자어 11, 혼종어 9	공통 2, 새로 2, 남 8, 북 8	고유성 9 투명성 2 정확성 5 간결성 4
--	-------------------------	-------------------------	-------------------------	----------------------------	----------------------------------

간결성 기준으로 인해서, '문장성분, 술어, 대등문, 종속문'을 선정할 수 있다. '문장성분'은 이제 완전히 하나의 용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안은문장, 이어진문장'처럼 붙여서 쓰는 게 좋다고 본다. '서술어'는 더 간결한 '술어'로 나타내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사실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해당 의미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간결성에다가 의미의 투명성까지 더한 '대등문, 종속문'으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성분 용어에서 남한은 통사론적 명칭이 어느 정도 일관되게 들어가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 이에 일관된 통사론적 기준, 즉 언어학적 정확성 기준에 따라서 '목적어, 관형어, 독립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어'는 그 범위가 논란이 많이 있는데, 헷갈림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주어의 하나로 처리하도록 한다. 북한에서는 '코끼리가 코가 길다' 문장을 주어가 두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냥 주격 조사 '이/가'에집중하여 주어의 하나로 보도록 한다.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 홑문장, 겹문장, 이어진문장, 안은문장'은 고유성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겹문장에 해당하는 북한의 용어는 사실 '복합문, 확대문' 두 군데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겹문장'으로 통일안을 선정하는게 헷갈림을 피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확대문'이 항상 안은문장을 나타내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안은문장'으로 정하는게 헷갈림을 방지한다.

## (25) 남북한의 형태론과 통사론 주요 문법 용어의 어종별 및 선정 기준 등 통계

		남한		북한		통일안		남북			선정 기준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고유어	0	0	8	21.1	9	23.1	공통	8	29.6	고유성	24	40.0
형 리	한자어	39	97.5	10	26.3	10	25.6	새로	9	33.4	투명성	22	16.6
태 론	혼종어	1	2.5	20	52.6	20	51.3	남	3	11.1	정확성	10	16.7
								북	7	25.9	간결성	4	6.7

<sup>32)</sup> 벌림복합문과 매임복합문은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조선문화어문법규범》 (1977)에서 제시되고 있다(각주 16 참조). 이것들이 겹문장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괄호로 해서 여기 제시하였다.

	고유어	0	0	5	20.0	0	0	공통	2	10.0	고유성	9	45.0
통 사	한자어	14	70.0	13	52.0	11	55.0	새로	2	10.0	투명성	2	10.0
사 론	혼종어	6	30.0	7	28.0	9	45.0	남	8	40.0	정확성	5	25.0
								북	8	40.0	간결성	4	20.0
	고유어	0	0	13	20.6	9	15.3	공통	10	21.3	고유성	33	41.3
합	한자어	53	88.3	23	36.5	21	35.6	새로	11	23.4	투명성	24	30.0
계	혼종어	7	11.7	27	42.9	29	49.1	남	11	23.4	정확성	15	18.7
								북	15	31.9	간결성	8	10.0

(24)에서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남북한 문법 용어 통일안을 추출해 보았다. 이것들을 갖고 (25)에서는 그 결과론적 특성이 어떠한지 수치로 제시하여 보았다. (25) 표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이나 북한이나 형태론 및 통사론의 주요 문법 용어에서 외래어 표기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한에는 한자어가 절대 다수(88.3%)를 차지하고 있었고 고유어는 전혀 없으며 고유어와 한자어가 섞인 혼종어가 11.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비해 북한에는 혼종어가 거의 과반(42.9%)이었고 한자어가 그 다음으로 36.5%, 고유어가 20.6%이었다. 네 가지 기준(원칙)에 따라서 통일안을 모색해 본 결과, 혼종어 49.1%, 한자어 35.6%, 고유어 15.3%로 집계되었다.

둘째, 형태론과 통사론을 나누어서 그 특징을 보도록 한다. 남한은 형태론 문법 용어에서 한자어 비중이 압도적으로 97.5%, 이미 통사론에서도 용어가 70%나 된다. 형태론이나 통사론이나 순수 고유어는 전혀 없다. 한편, 북한은 형태론에서 한자어가 26.3%에 불과하고 혼종어가 52.6%가 되며 고유어도 2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통사론 분야의 한자어 52.0%, 혼종어 28.0%, 고유어 20.0%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의 문법 용어 통일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선정 기준(원칙)은 고유성이다. 형태론 및 통사론 모두 합한 결과를 보면, 고유성 41.3%, 투명성 30.0%, 정확성 18.7%, 간결성 10.0%이다. 이는 다분히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한민족의 동질성을 고유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로 해석된다.

넷째, (25)에서는 남북한 문법 용어 통일안을 결과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남북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21.3%이고 새로 만든 용어가 23.4%이다. 그리고남한 쪽 용어가 선택된 것은 23.4%이고 북한 쪽 것은 31.9%이다.

# 5. 나아가기

지금까지 남북한 형태론과 통사론의 문법 용어로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차이 나는 것들이 어떻게 단일화로 선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남북한에서 언어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지, 또 문법 용어라는 전문 용어가 선정되는 기준 혹은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폈다. 그리하여 투명성, 정확성, 간결성, 고유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의 통일 문법 용어를 시안성격이나마 도출해 보았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00년에 제시한 전문 용어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절성 혹은 친숙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것을 선정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그것은 본고가 남북한의 통일 문법 용어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기때문이다. 즉 사상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이기 때문에 언어 이질화로 인해, 어떤 문법 용어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적절성 혹은 친숙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기준으로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남북한의 통일 문법 용어 도출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고유성을 첫째 기준으로 삼게 된 것이다.

사실 고유성을 더욱 중시한다면, 이번 기회에 모든 문법 용어들을 순수 고유어로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법 용어 가운데 품사 명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남북한은 모두 한자어로 품사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들은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그림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등으로 정할 수도 있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한자어 용어가 남북한 모두에게 익숙한 상태이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과연 우리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공식적으로 보면, 현재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국어'에 속한다. 외래어의 경우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문법 용어로 선정되기에 많은 거부감이 있는 듯하다. 남북한의 학교 문법 차원의 문법 용어로는 외래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자어는 무척 많다. 하긴 한국 한자어가 따로 있으니 그것까지는 우리말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자어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들 일상생활 및 일상사고 속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도면밀히 조사를 해 볼 일이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쓰이는 문법 용어를 현 사용 실태 차원에서

살폈고, 나아가 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이론 문법으로서의 형태론 및 통사론 문법 용어와 실용 문법으로서의 문법 용어의 관계도 더욱 밀도 있게 살필 필요성을 절감한다. 일단 이 글에서는 공식적이라 할 수 있는 학교 문법 용어를 가지고 통일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는데, 이론 문법과 실용 문법의 차이를 염두에 둔 고민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보선(2018), 북한 초급중학교의 학교문법 내용 분석, 국어교육 161, 한국어교육학회, 119-157쪽.

강보선(2020), 통일 대비 문법 교재 개발의 쟁점 -내용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38, 한국 문법교육학회, 69-98쪽.

강보선·권순희·주재우·정진석·김진숙(2017), 남북한 초등학교 문법교육 내용 비교, 우리말글 72, 우리말글학회, 31-65쪽.

고영근(1989), 북한의 문법 용어, 말과 글 38.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길벗).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1977), 조선문화어문법규범, 과학원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2013), 국어 1(초급중학교 1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2014), 국어 2(초급중학교 2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2015), 국어 3(초급중학교 3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교육위원회(2013), 제1차12년제의무교육강령, 교육위원회 주체102(2013)년.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6), 한국어 문법 총론 Ⅱ, 집문당.

구본관·박재연·이선웅·황선엽(2015), 한국어문법총론 I, 집문당.

권재일(2006),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 분류 체계 수립을 위하여, 한글 274, 231-266쪽.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연구, 역락.

김광수(2005),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205(4),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3-17쪽.

김동찬(2005), 조선어단어조성론, 사회과학출판사.

김두봉(1916), 조선말본, 《역문》122.

김두봉(1922), 깁더 조선말본, 《역문》 123.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김미형(2019), 전문용어 표준화 연구: 대상어 선정과 순화 기법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7-4, 사회 언어학회, 37-64쪽.

김민수·이상억·송민·서정수·성백인·안병희(1984), 공동토론: 국어학의 용어문제 -언어학 용어의 통일문제, 언어학 술어(術語)의 도입과 정리, 국어학과 일본어학 술어(術語)의 대비

- (Discussion), 국어학 13, 국어학회, 277-299쪽.
- 김백련(2005), 조선어문장론, 사회과학출판사,
- 김병문(2016), 「북한의 규범문법 성립 과정에 관한 연구 -'자리토'와 '끼움토'의 설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67-294쪽.
- 김병문·주영훈(2017), 「남북 통합 국어사전에서의 언어학 용어 처리 방안 연구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7-40쪽.
-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2, 국립국어원.
- 김옥희(2005), 조선어품사론, 사회과학출판사.
- 김용구(1986), 조선어리론문법: 문장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일성(1964), 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1968, 《문화어학습》 2, 1-7쪽 전재).
- 김일성(1966),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 (1968, 《문화어학습》 3, 1-9쪽 전재).
- 김진숙 외(2016),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Ⅱ): 총론, 국어, 사회를 중심으로(RRC 2016-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리기만(2005), 조선어문장성분론, 사회과학출판사.
- 문화체육관광부(2005), <국어기본법>.
- 박삼서(2020), '학교 문법 용어'의 변천과 교육의 변화 -'학교 문법 용어' 자료 제시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47,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249-335쪽.
- 박재현·김은성·김호정(2008), 국어 문법 교육 용어 계량 연구(2): 단어, 국어교육연구 21,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69-193쪽.
- 박재현·김은성·남가영·김호정(2008), 국어 문법 교육 용어 계량 연구(3): 문장, 새국어교육 80, 한 국국어교육학회, 227-249쪽.
- 서상규 외(2005), 북한의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 성낙수(2010), 학교 문법 품사 설정 및 용어 결정의 과정과 문제점,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229-269쪽.
- 신중진 외(2017),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오현아(2019), 통일 대비 남북 교과 전문 용어 비교 분석 연구에 대한 시론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82, 우리말글학회, 59-96쪽.
-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2019), 한국어표준 문법, 집문당.
- 이관규(1997), 남북한의 규범 문법에 대한 연구, 수련어문논집 23, 수련어문학회, 147-187쪽.
- 이관규(1999). 북한 학교 문법의 체계와 내용. 화법 연구 1. 한국화법학회. 371-438쪽.
- 이관규(2012), 학교문법론(3판), 월인.
- 이관규(2014), 외솔 문법과 학교 문법, 한글 304, 한글학회, 177-211쪽.
- 이관규(2017), <우리말본>과 학교문법, 나라사랑 126, 외솔회, 72-101쪽.
- 이관규·박경희·신호철·신희성·이동석·정지현·하성욱(2019), 언어와 매체, 비상교육.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주행(2004), 남한과 북한의 규범 문법 비교 연구, 국어교육 113, 한국어교육학회, 589-627쪽.
- 임홍빈(1997), 북한의 문법론 연구, 한국문화사.
- 임홍빈.한재영(2003), 국어학 용어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정순기(2005), 조선어형태론, 사회과학출판사.
- 정순기(2006), 규범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북과 남의 차이에 대하여(형태론과 품사론을 중심으로), 제5차 겨레말큰사전 편찬회의 자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1-15쪽.
- 정순기 · 리금일(2001), 조선어문법편람, 도서출판 박이정.
- 정종수(2015 ¬), 남북한 전문용어 통합 기준에 관한 연구 -초, 중등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00,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37-358쪽.
- 정종수(2015L), 남북한 교과서 전문용어 통일 기준 위계 연구, 인문학논총 39, 경성대학교 인문학연구소, 51-574쪽.
- 조진수(2017),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방식 유형화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2-1, 국어교육학회, 464-494쪽.
- 조대린(2017), 통일 시기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 정책에 대한 소고, 사회언어학 25(3), 한국사회언어 학회. 29-326쪽.
- 최기선 외(2001),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 최기선 외(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 최기선 외(2003),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 최기선(2001), 전문용어 표준화는 통일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통일한국 208, 평화문제연구소, 40-43쪽.
- 최기선(2007), 전문 용어의 표준화 -남북 표준에서 시맨틱 웹까지, 새국어생활 17-1, 국립국어원, 11-24쪽.
- 최기선·송영빈(2000), 전문용어연구. 1: 한국에 있어서의 전문용어 연구와 방향, 홍릉과학출판사.
- 최준영·서재길·류병설(1996, 2001), 고등중학교 국어문법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최준영·서재길·류병설(1996, 2001), 고등중학교 국어문법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최준영·서재길·류병설(1996, 2001), 고등중학교 국어문법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하치근(1993), 남북한 문법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 한재영(2018), <표준 국어 문법> 용어의 현황과 문제점,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언어와 정보사회 33, 435-469쪽.
- 허재영(2015), 전문용어 정책의 역사, 어문학 125, 한국어문학회, 117-145쪽.
- 홍종선(1999), 남·북한 국어 문법의 통일,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창간호, 3-33쪽.
- ISO(2000), Terminology work -Principles and methods, INTERNATIONAL STANDARD, ISO 704:2000.
- UNESCO(2005), GUIDELINES FOR TERMINOLOGY POLICIES,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erminology policy in language communitie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is.

# 남·북한의 '음운론·의미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1. 음운론(음성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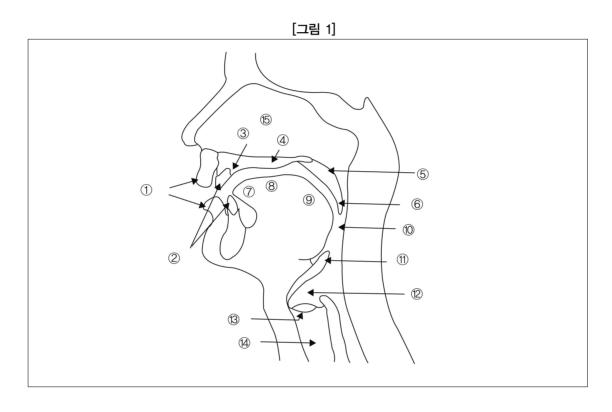
북한에서는 1966년 이후 말다듬기 운동을 통해 모든 영역에 걸쳐 고유어 사용을 적 극 권장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북한의 음운론(음성학) 용어에는 고유어가 절대적으로 많다. 대한민국 교육부 편수자료의 경우 적어도 음운론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가대등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결과와 관련되는 '한국어표준문법(2018)' 등 대한민국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보면 한자어 비중이 압도적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남북한의 음운론(음성학) 용어 사용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용어 통일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논의의 진행은 발음기관, 소리, 음운 현상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아울러 이 글은 개론서 수준의 용어 비교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남북한에서 이루어진 학술 논문은 용어법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닌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남한의 음운론(음성학) 용어는 최근 간행된 '한국어표준문법'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국어음운학(1985)', '국어학개설(2000)'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아울러 '한국어표준 문법' 외 참고 도서에서 추출한 용어에는 단어 앞에 \* 표시를 하여 구별했다. 북한 용어는 '조선문화어문법(1979)'과 '조선어어음론(2005)'을 통해 정리되었다. '조선어어음론'이 음성학에 치중한 경향이 있어 일차적으로 '조선문화어문법'의 '어음론' 부분에서 용어를 추출하였고 필요한 경우 '조선어어음론'의 용어를 \*\* 표시를 하여 추가하였다. 아울러 남북한 학문 분화 이전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 '우리말본(1937)'의 용어법을 함께 조사해 비교하였다.

# 1.1. 발음기관

사람의 발음기관은 아래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속의 각 부위에 번호를 붙이고 각각의 번호에 해당하는 명칭을 남한과 북한 그리고 '우리말본' 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丑 1〉

	남한	북한	우리말본
1	윗입술, 아랫입술	입술	입술
2	윗니, 아랫니	0]	0]
3	치조	이몸	잇몸
4	경구개	앞천장(**굳은입천장)	센이붕
5	연구개	뒤천장(**무른입천장)	여린이붕
6	목젖	목젖	목젖
7	혀끝	~lob	혀끝
8	전설	혀앞	혓바닥
9	후설	혀뒤	혀뿌리

10	인두벽(인두)	목안벽 **목안울림통, 인두강	목머리(목안, 인두)
11	후두개	**울대덥개	울대마개
12	후두	울대	울대머리
13	성대	목청	목청
14	기도	기관, **숨통	
15	비강	**코안울림통	코굴(코안)
16	구강	**입안울림통	입굴(입안)
17	능동부, 조음체	능동적 발음기관	
18	수동부, 조음점	수동적 발음기관	
19	발동부	**발성기관	숨쉬는 데
20	발성부	] 발생기판	소리내는 데
21	조음부	**발음장치	소리고루는 데

위 내용은 용어법 자체의 차이뿐 아니라 남북한의 이론적 입장 차이도 일부 보여준다. 우선 남한의 경우 '혀'를 혀끝, 전설, 후설 셋으로 나누었고 북한은 혀끝과 전설을 구분하지 않고 '혀앞'으로 합하였다. 아울러 남한에서 발음기관을 크게 날숨을 만드는 발동부, 소리의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는 발성부 그리고 다양한 소리로 분화시키는 조음부로 나누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발동부와 발성부를 묶어 '발성기관'으로 통일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남한보다 북한 용어에서 고유어를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이 모두 말다듬기 운동을 펼쳤으나 북한의 경우 국가 차원의 강력한 추진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대학에서 오랜 시간 국어학개론 과목을 강의하면서 경구개, 연구개, 인두, 비강과 같은 한자어 용어들이 대학의 국어국문학 전공생들에게도 상당히 부담됨을 확인한 바 있고, 이들을 입천장, 목안, 코안 등 적절한 고유어 용어로바꿀 경우 이해와 기억에 있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위에 제시한 '우리말본'의 용어가 모두 고유어이고 이들은 남한 학자들에게도 크게 낯설지 않은 만큼 '우리말본' 용어를 바탕으로 남북한 용어를 통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다.

### 1.2. 소리

#### 1.2.1. 자음

〈丑 2〉

	남현	<u> </u>	북한	우리말본
1	자음	<u>)</u>	자음	닿소리
2	조음위	치	조음위치, 발음위치	나는 자리
3	양순	음	입술소리	입술소리
4	치조	<u> </u>	=101 x -1 01-21-21 x -1	혀끝소리
5	경구기	H음	혀앞소리, 입천장소리	혓바닥소리
6	연구기	H음	혀뒤소리	혀뿌리소리
7	추음	<u>)</u>	목구멍소리	목청소리
8	조음병	}법	발음방식	내는 법
9	장애	<u>0</u>		
10	공명	<u>은</u>		
11	유성음		울림소리, 청있는소리	울림소리, 흐린소리
12	무성음		울림이 없는 소리(막소리), 청없는소리	안울림소리, 맑은소리
13	파열음		터짐소리	터짐소리
14	불파음*		속터짐소리 **막힘소리	닫침소리
15	마찰	<u>o</u>	스침소리	갈이소리
16	파찰	<u> </u>	터스침소리	터짐갈이소리
17	평음		순한소리	예사소리
18	경음		된소리	된소리
19	유기음		거센소리	거센소리
20	비음		코소리	코소리
21	0.0	탄설음	튀김소리	7.3) 4 7)
22	유음	설측음	혀옆소리	굴림소리

위의 <표 2>는 남한, 북한, 그리고 '우리말본'의 자음 관련 용어법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북한과 우리말본의 용어법이 고유어 중심으로 짜여 있는 반면 남한에서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모두 한자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많이 사용하는 '파열', '마찰' 등의 한자어를 포함한 용어들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

을 수 있으나, '경음', '유기음', '공명음', '불파음' 등 낯선 한자어는 이해와 학습에 부담이 된다. 2015년에 마련된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나 현행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와 같은 고유어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남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최대한 살려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이해하기 쉬운 고유어 용어를 새로 찾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은 남북한의용어 통일에도 자연스럽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혀와 관련된 소리를 남한에서는 '치조음', '구개음', '연구개음'으로 나누고 있음에 반해 북한에서는 '혀앞소리'와 '혀뒤소리'로 양분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핀 발음기관 분류 와 직결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즉 북한에서는 치조와 경구개의 조음위치 차이가 국어 에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듯하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과 같이 장애가 많은 자음을 '장애음'으로 부르고 그렇지 않은 비음과 유음을 '공명음'으로 칭하는 것은 남한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용어법을 북한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북한에서는 비음과 유음을 '울림소리'라 하여 나머지 자음과 구분하고 있다. 비음과 유음도 장애음이고 비음, 유음이 아닌 자음도 유성음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남북한의 용어법 모두 일정 부분 문제를지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학술 용어인 만큼 용어 사용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용어 통일에는 이러한 측면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는 멈춰 서있는 조음점을 기준으로 조음위치의 명칭을 결정한다. 따라서 전설음이라 하지 않고 경구개음이라 하고 후설음이라 하지 않고 연구개음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혀앞소리'와 '혀뒤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입천장소리'라는 용어법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용어 사용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준점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은 용어 통일에 반영되어야 한다.

#### 1.2.2. 모음. 반모음

〈丑 3〉

	남한	북한	우리말본
1	모음	모음	홀소리
2	단모음	홑모음	홑홀소리
3	전설모음	앞모음	앞 홀소리
4	후설모음	뒤모음	뒤 홀소리

5	*중설모음		가운데모음, **불인정		가운데 홀소리
6	고모음		높은모음	2	닫은 홀소리
7	*반고모음	중모음	중간(**반) 높은모음	**중간	반닫은 홀소리
8	*반저모음	9 <del>1- 1</del> -	중간(**반) 낮은모음	모음	반연 홀소리
9	저모음		낮은모든	2	연 홀소리
10	원순모음		둥근모든	<u>)</u>	둥근 홀소리
11	11 평순모음		보통모음, **	불인정	1년 0 중 시키
11			길죽모든	<u>)</u>	넓은 홀소리
12	반모음 반모음			반홀소리	
13	*성절음		마디소리	4	주장소리
14	이즈미	٥	겹모음		거중소기
14	이중모음		준겹모음, ** <sup>7</sup>	기술안함	겹홀소리

위 <표 3>은 모음 및 반모음 관련 용어법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도 북한과 '우리 말본'이 고유어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남한의 용어법은 한자어로 일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다듬기와 남북한 용어 통일의 당위성을 생각할 때, 남한에서 고유어 사용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둥근모음, 길죽모음, 마디소리, 주장소리 등의 고유어 용어는 용어의 내용을 보여주는 데 있어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자어를 새로운 고유어 용어로 다듬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음과 반모음 부분에서는 남북한의 용어법이 대체로 일 대일대응하고 있다.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를 기준으로 앞, 가운데, 뒤로 나누는 모습이 남북한 모두에서 보이는데 남한의 경우 중설은 객관적인 소리 특징으로 인정될 뿐국어 사용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앞과 뒤로만 구분되는 것으로 기술된다. 북한에서는 '조선문화어문법(1979)'에서 앞, 가운데, 뒤로 기술되던 것이 '조선어어음론 (2005)'에 와서 앞과 뒤로 바뀜으로써 남북한의 입장이 같아지게 되었다. 혀 최고점의위와 아래 위치를 기준으로 한 고모음, 반고모음, 반저모음, 저모음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에서 반고모음과 반저모음은 객관적인 특징으로만 인정된다. 언중의 인식을 바탕으로한 변별적 특징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기술된다. 북한의 경우 '조선문화어문법'의 4단계 기술이 '조선어어음론'으로 오면서 3단계 기술로 바뀌어 남한과 같아지게 되었다.

유사한 내용이 이중모음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조선문화어문법'이 '겹모음'과

'준겹모음'을 구분한 바 있다. 겹모음은 모음이 겹친다는 뜻이기에 온전한 모음이 두 개겹친 '의'만이 겹모음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반모음과 온전한 모음이 겹친 것이기에 '겹모음'이 아닌 '준겹모음'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조선어어음론'은 준겹모음을 체계에서 뺌으로써 남한과 체계의 일치를 이루게 된다.

#### 1.2.3. 운율적 자질

〈丑 4〉

	남한	북한	우리말본
1	*악센트	**소리마루	올림
2	강약악센트	**세기마루 (강약악센트)	힘올림
3	고저악센트	**높이마루 (고저악센트)	가락올림
4	음장	**길이마루 (장단악센트)	길이
5	운소	소리마디마루 (**소리마디악센트)	
6	억양	억양	
		중간억양	
7	문말억양	끝맺음억양	끝남법
8	휴지	끊기	

위 <표 4>는 소리의 세기, 높이, 길이 등 운율적 자질 관련 남북한의 용어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도 북한과 '우리말본'은 일관되게 고유어에 집중하는 반면 남한에서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세기, 높이, 길이의 현저한 특징을 '마루'라고 부른다. 고유어 '마루'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짐에 착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운율적 자질 즉 운소를 음절을 뜻하는 '소리마디'와 '마루'를 합성한 '소리마디마루'로 부르고 있다. 특정 음절에 현저한 운율적 자질을 더해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구별한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북한에서도 '억양'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고 남한에서 사용하는 '문말억양'은 '끝맺음억양'이라 부르고 있다. 참고할 만한 용어법이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조선문화어문법'이 억양을 '중간억양'과 '끝맺음억양'으로 나누었는데 '조선어어음론'에 와서는 '중간억양'이라는 용어법이 보이지 않는다. 굳이 '문말억양' 이전의 억양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 1.2.4. 그 외

〈丑 5〉

	남한	북한	우리말본
1	음성	말소리, 낱소리	
2	으는	뜻소리, **음운	
3	변별적	구별적	
	변이음	**음운의 변종	
4	음절	소리마디	낱내
5	어절	소리토막	
6		소리매듭	
7		소리동강	
8	초성	첫소리	
9	중성	앞가운데소리	
10	ক' ४	가운데소리	
11	종성	끝소리	
12	음성상징(민족대백과)	소리빛갈, **말소리빛갈	소리바꾼 뜻바꿈

위 <표 5>는 앞에서 살핀 것 밖의 내용들이다. 우선 남한에서 '음성'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사람의 말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중의 주관이 개입되는 '음운'이 아닌 객관적인 소리로서의 '음성'이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문화어문법'에서는 이런두 가지 의미를 '말소리'와 '낱소리'라는 두 개의 용어법을 사용해 구분하고 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소리'는 사람의 말소리라는 뜻이고 '낱소리'는 '음운'과 상대되는 '음성'을 뜻한다. 아울러 '조선문화어문법'의 '뜻소리'는 '음운'을 뜻한다. 이후 '조선어어음론'은 '뜻소리' 대신 남한에서 사용하는 '음운'이라는 용어을 사용했다. 학술 용어가 그의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개념을 용어 구분을 통해 칭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 용어 통일에 참고할 만하다.

소리 단위를 구분함에 있어 북한은 나름의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남한에서 사용하는 음절, 어절에 한 호흡으로 발음되는 '소리매듭'과 한 문장 전체 소리 인 '소리동강'을 더해 '소리마디(음절)', '소리토막(어절)', '소리매듭', '소리동강'이라는 체계로 기술하고 있다. 음절을 이루는 소리들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앞 가운데소리'를 하나 더 더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모음 중성에서 분리되는 반모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는 의성어, 의태어 등에 나타나는 음성상징을 '소리빛갈' 또는 '말소리빛갈'이라 부르고 있다.

# 1.3. 음운현상

〈丑 6〉

	남한	북한	우리말본
1	대치	소리바꾸기	
2	경음화	된소리되기	
3	유기음화	거센소리되기	
4	동화	소리닮기	소리의 닮음
5	*순행동화	앞소리닮기	앞닮음
6	역행동화	뒤소리닮기	뒤닮음
7	인정안함	서로닮기	서로닮음
8	인접동화	이웃닮기	
9	원격동화	건너닮기	건너닮기
10	*완전동화	완전닮기	
11	*부분동화	부분닮기	
12	구개음화	입천장소리되기	
13	원순모음화	**둥근모음되기	
14	이모음역행동화(전설모음화)	앞모음되기	
15	이화	같은소리피하기	
16	탈락	소리빠지기,**어음빼기	
17	첨가	소리끼우기,**어음첨가	
18	모음조화	모음어울림,**모음조화	
19	양성모음	밝은모음	
20	음성모음	어두운모음	
21		중간모음, **중성모음	
22	모음 축약	**모음의 합침	
23	평파열음화	**어음의 중성화	

'음운현상'에서도 남한의 용어들이 모두 한자어인 반면 북한 용어의 대부분은 고유어

들이었다. 필자의 직관이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음운현상을 뜻하는 고유어 용어들이 내용 파악에 있어 한자어보다 수월하다. 앞으로 남한에서 이 부분에 관한 적극적인 말다듬기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용어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운현상의 경우 남북한의 실제적인 체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북한에서는 양성도 음성도 아닌 '중성' 혹은 '중간' 모음을 인정함이 다를 뿐이다.

#### 1.4. 정리

남북한의 음운론(음성학) 용어 비교는 남한이 주로 한자어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우리말본'과 마찬가지로 고유어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말다듬기와 남북한 용어통일의 당위성 그리고 이해와 학습의 편이를 위해 남한의 용어법을 쉬운 고유어 중심으로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의 용어법은 모두 각각의 학문 체계의 얼개를 보여주는데, 남한과는 다른 북한의 체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한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의미론(어휘의미론)

어휘의미론으로 시작된 의미론은 통사의미론, 화용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왔으며 남한에서는 이들 분야와 관련된 활발한 저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어휘의미론 밖의 다른 분야에 관한 북한의 연구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sup>33)</sup> 여기서는 북한의 '조선어 어휘 의미론(2005)'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남한의 '국어의미론 강의(2013)'와 비교하되 '국어의미론(1992)', '한국어의미론(2018)', '새로 펴낸 국어의미론(2020)' 등을 함께 참고하려 한다. 논의는 '의미의 뜻매김'으로 시작하여 '의미의 종류', '의미소, 어휘소, 의미성분' 그리고 '의미관계' 순으로 진행한다. 주된 비교 대상인 '조선어 어휘 의미론'과 '국어의미론 강의' 밖의 자료에서 추출한 용어에는 \* 표를 붙여 표시하였다.

<sup>33)</sup> 국립국어원에서 2003년 간행된 '북한의 우리말 의미 연구 자료집'에서 보인 북한의 의미론 연구 대부분은 어휘의미론 연구였다.

### 2.1. 의미의 뜻매김

〈丑 7〉

	남한	북한
1	의미삼각형	의미기본삼각형
2	케티션	심적영상설
3	개념설	관념설
4	지시설	지시대상설
5	행동설	반응설
6	용법설	용법설
7	*의의관계설	의미관계설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방증하듯 의미의 뜻매김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의미를 보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위 <표 7>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남북한의 의미론 개론서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아울러 남북한의 용어법 자체도 매우 유사하다. 남한 안에서도 '지시설'을 '지시이론' 등 일부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상 남북의 의미론 용어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남한의 '개념설' 즉 심리주의의미론은 북한에서 '심적영상설'과 '관념설'로 갈리는데, 이들 각각은 심리주의의미론을 이루는 소쉬르의 기호이론과 오그덴과 리차드의 이론을 나누어 서술한 것이므로 남북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없다.

### 2.2. 의미의 종류

〈丑 8〉

	남한	북한
1	개념적의미	개념적의미, 인식적의미
2	연상적의미	뜻빛갈
3		직접적의미
4	비유적의미	간접적의미
5	유연성	유연적의미
6	무연성	무연적의미
7	민간어원	민간어원
8	기본의미	기본의미

9	*파생의미	갈라진 의미
10	어원	본뜻(시초적인 뜻)
11	이런	밑뜻(유연적인 뜻)
12		바탕뜻 (상대적 개념, 파생의미의 바탕 )
13		기둥뜻(다의어의 핵심의미들)
14	맥락의미	문맥적의미(일시,개인적)
15		반뜻 (뿌리 내린 뜻과 맥락의미 중간 존재)
16		옹근뜻(뿌리 내린 뜻)

위의 <표 8>은 의미의 종류 즉 의미의 하위분류에 관한 남북한 용어법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남한보다 의미의 종류를 더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 '직접적의미'와 '간접적의미'의 구별, '본뜻'과 '밑뜻'의 구별, '옹근뜻'과 '반뜻'의 구별 및 '바탕뜻'과 '기둥뜻'의 설정 등에서 의미 종류를 나누는 다양성을 실감할 수 있다.

## 2.3. 의미소, 어휘소, 의미성분

⟨표 9⟩

	남한	북한
1	의미소	의미소
2	의미성분, 의미자질	의미특징
3	어휘소	어휘소
4		실질적 의미특징(기본적 의미특징)
5		덧붙은 의미특징 (문법, 문체, 사회문화적 속성)

의미소, 어휘소, 의미성분과 관련된 남북한의 의미론 용어들도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하다. 다만 북한에서는 의미성분을 어휘적이고 기본적인 '실질적 의미특징'과 문법, 문체, 사회문화적 특징을 뜻하는 '덧붙은 의미특징'으로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 점이 특이할 뿐이다.

#### 2.4. 의미관계

〈丑 10〉

	남한	북한		
1	의미관계	의미구조		
2	상하위관계	포함구조, 포함관계		
3	동의관계(동의어)	겹침구조(뜻같은말), 뜻같은관계		
4	반의관계(반의어)	상반구조(뜻반대말), 뜻반대관계		
5	유의관계(유의어-임), 동위어, 등위어	련접구조(련관어), 동위관계		
6	부분전체관계	부분전체관계		
7	다의관계(다의어)	다의구조(다의어)		
8	동음어	소리같은말		
9	성분분석	성분분석		
10	의미장	의미마당		
11	개념마당	개념장		
12	마당이론	장이론		

마지막으로 의미관계에 대한 남북한의 용어법 비교인데 여기서도 고유어와 한자어의 차이 등 용어 사용이 일부 다를 뿐 남북한의 체계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2.5. 정리

의미론(어휘의미론) 관련 용어법에서 남북한의 체계와 용어 사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의미와 의미성분의 하위분류에 있어 북한이 더 다양한 분류와 이에 따르 는 용어 체계를 선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앞에서 살핀 음운론 및 음성학 분야와 달리 북한의 의미론(어휘의미론)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들이고 일부 용어에서만 고유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운론(음성학) 분야의 경우 최현배 등 선각자들이 만들어 쓴 고유어 용어법을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의미론 분야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다만 앞으로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 진행에 따라 의미론 분야의 북한 용어법도다시 한 번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남한의 경우 '허 웅'의 '국어학(1983)'은 의미론 용어를 다듬은 일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음어'를 '소리같은말'이라 하고 동의어, 유의어, 다의, 의미성분, 의미장 등의 한자어 용어를 아래와 같이 고유어로 바꿔 사용했다.

〈丑 11〉

	한자 용어	다듬은 고유어 용어		
1	동의어	한뜻말		
2	유의어	뜻비슷한말		
3	다의	뭇뜻		
4	의미성분	뜻바탕		
5	의미장	낱말밭		

이들 용어 중 '낱말밭'은 의미론 연구자들에게는 한자어 용어인 '의미장'만큼 익숙한 것으로서 의미론 용어의 고유어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3. 맺음말

이 글에서는 남북한의 음운론(음성학)과 의미론(어휘의미론)의 용어 사용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음운론(음성학)의 경우 북한이 고유어 중심의 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남한의 현실은 한자어 중심의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자어 중심의 낯선 용어 체계는 무엇보다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양순'이나 '경구개', '연구개' 보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입술'이나 '입천장'을 이용해 '입술',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등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언젠가 이루어질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남한의 한자어 중심 용어 체계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파열음', '마찰음' 등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어를 포함한 일부 용어와 이에 대응되는 '터짐소리', '갈이소리' 등 고유어 용어 사이에서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써야 하는지 다소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남북한의 의미론 용어 비교는 북한의 의미론 연구가 어휘의미론에 한정됨에 따라 어휘의미론 용어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비교 결과 남북한 의미론 용어 자체나 그 체계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용어 통일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의미론 분야 용어가 남북한 모두 한자어에 치우쳐 있

는 만큼 한자어를 고유어로 어떻게 다듬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낱말 밭'등 일부 고유어 용어가 뿌리를 내린 만큼 의미론 용어를 고유어로 바꿔 나가는 일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므로 남북한이 용어법을 두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Ⅱ-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2』, 국립국어원.

김성근(2005), 『조선어어음론』, 사회과학출판사.

김영황(1979), 『조선문화어문법』,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민현식 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유현경 외(2018), 『한국어표준문법』, 집문당.

윤평현(2013), 『국어의미론 강의』, 역락.

윤평현(2020), 『새로 펴낸 국어의미론』, 역락.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 학연사.

이혂복(1995), 남북하 언어학 및 음성학 분야 학술 용어의 비교 연구, 「하글 229, 하글학회,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임지룡(2018), 『한국어의미론』, 한국문화사.

전수태(2003), 『북한의 우리말 의미 연구 자료집』, 국립국어원.

조춘옥(2005), 『조선어어휘의미론』, 사회과학출판사.

최현배(1937~1984),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허 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허 웅(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남・북한 맞춤법 차이점과 그 통일 방안

-두음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한 겨레의 문화(文化) 창조(創造) 활동은, 그 말로써 들어가며, 그 말로써 하여 가며, 그 말로써 남기나니:(중략) 그러므로, 조선말의 말본을 닦아서, 그 이치를 밝히며, 그 법칙을 드러내며, 그 온전한 체계(體系)를 세우는 것은 앞사람의 끼친 업적(業績)을 받아 이음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아, 계계승승(繼繼承承)할 뒷사람의 영원한 창조 활동의 바른 길을 닦음이 되며, 찬란한 문화 건설의 터전을 마련함이 되는 것이다."(최현배 (1937),『우리말본』'머리말' 앞부분에서)

외솔 최현배 선생이 강조하신 말본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우리 말의 본(문법)을 연구하고, 그 이치와 체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후손이 창조 활동을 하고, 문화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국어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국가 어문정책이고, 어문정책 중 문자 표기의 구체적 방안을 국가 차원의 규정으로 세운 것이 맞춤법이다.

남북한의 어문 규정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어학회에서 마련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방 후에도 1446년, 1980년 부분 개정이 있었지만 이 규정이 대체로 지켜지다가 한국에서는 1970년, 1979년 부분 개정, 1984년 부분 개정, 1987년 개정을 거쳐, 국가 차원에서 국어 심의위원회를 거쳐 문교부 고시로 확정한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88)'1)을 따라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 발표 이후, 1954년, 1956년 부분 개정이 있고, 이후 '국어사정위원회' 주도로 1966년, 1987년, 2010년까지 다섯 차례 어문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sup>1)</sup> 남북한 철자법 변천에 관한 것은 기세관, 최호철(1993) 참조. 남한의 맞춤법 통일안의 부분 개정 경위와 내용에 관한 것은 이은정(1989) 참조.

하고 있다. 해방 후 60년이 흐른 뒤, 2006년 1월에 남북한의 언어 규범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되어, 겨레말의 통합과 통일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을 해왔다. 이 사전은 달라진 남북한의 말과 글을 통일하기위해서 기존의 남북한 국어사전에 실리지 않은 지역 방언이나 문헌에 새로 나타난 낱말 10만여(최종 7만 7천) 개를 더해 대략 30만 7천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표기와 낱말 풀이를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20여 회 공동편찬회의를 열어 사전 편찬 일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 남북 협력 사업이 중단되어 공동편찬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2) 2013년에 마무리하기로 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이 완전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글에서는 맞춤법 가운데 먼저 총칙과 자모 관련해 두드러진 몇 가지 차이를 살펴보고,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에서 20여 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두음법칙, 사이시옷 표기 규정을 중심으로 남북한 맞춤법 차이를 살펴보고자한다. 특히 사이시옷과 두음표기 방식은 남북한이 여러 차례 철자법 규정을 변경하면서도 1948년 이후 표기에서 일관되고,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기본적인 자모의 순서, 이름, 문법 용어, 문장 부호 등의 남북한 차이를 다시 정리하고 통일 방안을 생각해 본다. 남한에서 맞춤법 총칙에 포함한 띄어쓰기도 북한에서는 띄어쓰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띄어쓰기도 함께 살펴서 남북통일 언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한다.

# 2. 남북한 맞춤법 차이점과 통일 방안

# 2.1. 맞춤법 '총칙'과 '자모' 관련한 차이

해방 후 남북한이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서 맞춤법을 비롯한 어문 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2020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맞춤법을 비롯한 남북한 어문 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총칙, 자모의 이름과 순서, '-리까/리가, --리꼬/-리고, -리쏘냐/-리소냐' 같은 일부 어미의 된소리 표기, '가까워/가까와, 고마워/고마'와 같은 모음조화 유지 여부와 '개어/개여, 베어/베여, 쥐어/

<sup>2)</sup>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에 관한 정보와 합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 찬사업회 홈페이지 https://www.gyoremal.or.kr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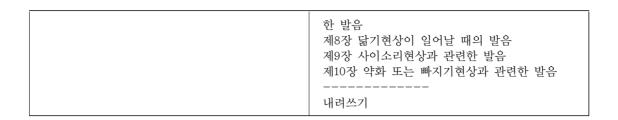
쥐여, 희어/희여' 같이 모음동화 반영 여부, '잇몸/이몸, 콧병/코병, 숫자/수자' 같은 사이시옷 표기, '역사/력사, 여자/녀자' 같은 한자어 두음 /ㄴ,ㄹ/표기, 한자어의 '몌,폐''몌/메, 폐/페' 표기, 인용표지 등 몇 가지 문장 부호에서 차이가 있다.3)

먼저, 총칙과 자모의 이름과 순서 차이를 살펴보면, 남한(한국)에서<sup>4)</sup> 국가 차원에서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전면 개정하여 고시한 '한글 맞춤법(1988,문교부 교시안)'은 모두 6개의 장과 [부록]으로 되어있다. 북한(조선)의 『조선말규범집』(1988)의 맞춤법은 총칙과 7개 장으로 되어 있고,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문화어발음법이 맞춤법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 한글 맞춤법(1988-현재)	(북한) 조선말규범집(1988-2010-현재)	
한글 맞춤법	맞춤법	
제1장 총칙	총칙 제1장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제2장 자모	제2장 형태부의 적기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2절 구개음화 제3절 'ㄷ'소리 받침 제4절 모음	제3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 제4장 합친말의 적기 제5장 앞붙이와 말뿌리의 적기 제6장 말뿌리와 뒤붙이(또는 일부 토)의 적기 제7장 한자말의 적기	
제5절 두음법칙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2절 언간과 어미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장 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2장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3장 동사,형용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4장 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제5장 특수한 말, 특수한 어울림에서의 띄여쓰기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5절 준말	 문장부호법 총칙(제1항~제20항)	
제5장 띄어쓰기		
제6장 그 밖의 것	문화어발음법 총칙	
[부록] 문장 부호	제1장 모음의 발음 제2장 첫 소리 자음의 발음 제3장 받침자모와 관련한 발음	
	제4장 받침의 어어내기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5장 받침의 끊어내기 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6장 된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7장 《ㅎ》과 어울린 거센소리되기현상과 관련	

<sup>3)</sup> 남한의 '표준어발음법'과 북한의 '문화어발음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여기서는 '맞춤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국한하고자 한다.

<sup>4)</sup> 공식 국가 명칭은 남한은 '대한민국(한국)'이고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조선)'이지만, 이글에 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관례를 따라 '남한, 북한'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남한의 맞춤법의 첫머리 제1장 총칙은 제1항("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의 총칙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로 규정하고 있다. '어법(語法)이 언어의 조직이나 운용에 관한 법칙이라는 점에서, 결국 '단어의 형태소의 기본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조선말규범집』 총칙은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습관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로 되어있다.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원칙을 추구하는 북한 총칙의 표기원칙과 남한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말할 때 발음을 중시하는 표음주의보다는 형태소를 기준으로 삼는 형태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춤법 총칙의 표기 원칙은 남북한 모두 형태주의를 지키고 있다.5)

남한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라고 해서 '표준어'와 '표준발음'을 강조하고 있다. 표준어의 개념을 "한 나라 안에서 지역적, 사회적(계층적, 집단적) 차이를 초월하여, 가장 바람직한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서 통일되고 규범화(規範化)된 말을 표준어(標準語)라고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규범화되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정리된 지시(指示))의 체계를 말한다."로 하여 자연 형성 언어로 의사소통에 통용하고 있는 말이란 뜻의 '공통어(共通語)'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표준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정부가 정한다는 뜻이다. 현재『한국 어문 규정집』에는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고 총칙에서 밝히고 있다. '표준어'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런 표준어 개념을 버리고, "평양말을 바탕으로 근로 인민 대중의 생활 감정에 맞게 가꾸어진 언어를 규범

<sup>5)</sup> 우리말 표기법을 처음 규정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인데 발음 우선이고, '언문철자법'(1930)에서 형태주의 표기 방식으로 바뀌었다.

화해서 '평양말'과 '근로 인민 대중의 생활 감정'을 강조한 '문화어(文化語)'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6)

남한에서는 음성언어(입말)을 '한국말(한국어)'이라고 하고, 한국말 적는 글자(글말)를 '한글'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조선말(조선어)'라고 하고, '한글'이라는 용어 대신에 '조선글자(조선글, 조선문)'이라고 한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통일된 국가의 명칭이 무엇으로 정해지는가에 따라 한반도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이름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남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자모의 수를 24자(자음 14, 모음 10)로 규정하는데, 북한에서는 자음의 된소리 계열과 모음의 복모음을 별도의 자모로 인정하여 40자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 글자를 몇 글자로 할 것인가는 겹글자, 복모음 등을 기본 글자와 다른 개별 자모로 분리할 것인지 여부에 달린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제1장에 자모의 이름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데, 남한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남한의 제2장 자모 제4항의 자모의 이름과 순서와 북한의 제1항의 자모 이름과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 '쌍기역'과 같이 '쌍'을 붙이는 이름을, 북한에서는 '된기 윽'과 같이 '된'을 붙이는 점이 다르다. 남한에서는 'ㄱ(기역), ㄷ(디귿), ㅅ(시옷)'을 북한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부르지 않고, '기윽, 디읃, 시읏'이라고 부르는 점도 다르다.

	٦	⊏	٨	דד	Ш	НН	м	ᄍ
남한	기역	디귿	시옷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싸시옷	쌍지읒
북한	기윽	디읃	시읏	된기윽	된디읃	된비읍	된시읏	된지읒

사전에 올리는 자모의 순서도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는 된소리를 기본소리 다음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된소리를 기본글자 맨 뒤로 배치한 점이 다르다.

자음	남한	ココレビエゼロ日昭人 0 ス 及 え ヲ E 立 ゔ
	북한	コレビ己ロ日人 O ス え ヲ E 立 ゔ 用 ㄸ 昍 从
모음	남한	┞╫╞┤╢╡ <u>╣</u> ╌ᆦᅫᅬ╨┯ᆔᅴᅪᆏᆒᆔ╥ <u></u> ᆜ┃
	북한	┣╒┧╡ <u>┸</u> ╨┯╥ᅴ╫ᅤ╢╣ᅬᆔᅴᅪᅯᅫᅫᆌ

<sup>6)</sup> 북한이 '문화어' 개념을 공식화한 것은 1966년부터라고 봐야 한다. "'標準語'라고 하면 마치 서울말을 標準으로 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理解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읍니다. 社會主義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革命의 首都인 平壤말을 基準으로 하여 發展시킨 우리 말을 '標準語'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옳읍니다. '文化語'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 것이 낫습니다."(김일성,1966) 이관규(2016) 재인용.

받침	남한	ココスし以はこに己却却出み走西お口日以人从Oス及ヨE立方
	북한	コルレ区はビ己打泗祖改進拉法ロ日队人OスヲE立方用从

모음에서는 복모음의 순서를 남한에서는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복모음의 순서를 기본 모음 뒤에 배치하면서 덧붙인 모음 'ㅣ(ㅐ ㅒ ᅦ ᆌ ᅬ ᅱ ᅴ), ㅏ(ᅪ), ㅓ(ᅯ), ᅦ(ᅰ)'의 순서로 바꾸었다. 받침의 겹자는 남한에서는 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 통일안' 순서를 따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ㄳ,ㄴኧ,ㄹ་,ㄹㅂ,ㅄ' 등은 앞 자음 뒤에 배치하고, 하나의 음소로 다루고 있는 된소리 계열의 'ㄲ,ㅆ'은 맨뒤에 배치하고 있다.

### 2.2. '사이시옷' 표기의 차이

사이시옷은 훈민정음의 사이소리(ㄱ, ㄷ, ㅂ,ㅸ,ㆆ,ㅅ) 표기에서 비롯한 것인데, 그 기능은 발음과 의미, 통사적 차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다. 원칙적으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ㄴㄴ'이 덧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후에 'ㅅ'으로 통일되었다. 일제 강점기 '언문철자법'(1930)부터 사이시옷 표기를 규정에 두었고, 1933년 조선어학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에서 앞말이 모음인 경우만 앞말에 붙이도록 했다가, 1940년 다시 '뒤ㅅ간, 움ㅅ집'처럼 중간에 모두 사이시옷을 쓰도록 했다가, 1946년 다시 '뒷간, 움집'으로 바뀌는 등 혼란을 겪었다.7)

1933년 '한글 마춤법 통일안' 제30항에 나오는 사이시옷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複合名詞 사이에서 나는 사이人은 홀소리 아래에서 날 적에는 우의 홀소리에 人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모지 적지 아니한다.

例 홀소리 밑

뒷간 곳집 나뭇배 담뱃대 잇몸 깃발

<sup>7)</sup> 최현배 『한글갈』(1940:491-2)에서도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訓民正音」의 사잇소리의 나타내는 법과 적는 법이 다 簡單하고 整然하지 못하였다. 이는 곧 사잇소리의 解釋 및 處理의 문제가 근본 容易한 것이 아님을 보이는 바이다. 우리 조선어학회에서 그「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토의할 적에, 이 사잇소리의 處理에 關하여는, 그 意見의 顯著한 決定的 對立도 없으면서, 衆議의 歸結을 얼른 보지 못하여, 여러 번 飜案하였음에도 이 문제의 難處性을 보이는 것이요, 그 決定된 案도 在來의 적는 버릇과 찍는 便宜를 보아서 된 一種의 假案에 불과한 것이니, 결코 아주 잘된 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아니한다. 그 뒤에 다시 고친 案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여 조선어학회「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이 정연하지 않고 복잡함을 불만스럽게 표현했다.

제30항의 이른바 '사이 ㅅ' 규정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낱말의 어종(순우리말, 한자어, 외래어 등) 구분이나 뒤에 오는 소리의 경음, 격음 여부, 'ㄴ/ㄴㄴ'의 첨가 여부 등 음운 의 여러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혼란이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글 마춤법 통일안(새판)'(1940)'에서는 합성어를 구성할 때, '사이ㅅ'을 붙이 는 경우와 안 붙이는 경우를 따로 구분해서 제시했다. 또 '사이ㅅ' 표기도 받침에 쓰는 것이 아니라 두 어근 사이에 끼워 '뒤ㅅ간(廁間), 코ㅅ날(鼻線), 손ㅅ등(手背), 초ㅅ불 (燭火), 고ㅅ집(倉庫)'처럼 적도록 했다. 앞의 말이 받침이 있어도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 '등ㅅ불(燈火), 발ㅅ새(趾間), 움ㅅ집(土幕)'처럼 '사이ㅅ'을 중간에 쓰 도록 했다. 다만, 끝소리가 全淸(예삿소리:ㄱ,ㄷ,ㅂ,ㅅ,ㅈ), 次淸(거센소리:ㅊ,ㅋ,ㅌ,ㅍ)로 되었거나 뒷말의 첫소리가 全濁(된소리:ㄲ, ㄸ. ㅃ. ㅆ. ㅉ)이나 次淸(거센소리)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된소리,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감안하여 그 경우에는 '사이 人'을 표기하지 않고 앞말의 끝소리가 'L, □, □, ㅇ' 의 경우 '등ㅅ불(燈火), 발ㅅ새(趾 間), 움ㅅ집(土幕)'처럼 '사이ㅅ'을 표기하도록 했다. '-ㄹ(을)'을 어미로 가진 어간과 어울리어 한 명사로 익은 것도 '들ㅅ것(擔架), 굴ㅅ대(轉軸), 들ㅅ숨(吸息), 날ㅅ짐승(飛 禽), 디딜ㅅ방아(足春), 쥘ㅅ손(把所), 길ㅅ짐승(走獸)'과 같이 '사이ㅅ'을 표기하도록 하 였다. 1940년 새판에서는 'ㄴ'이나 'ㄴㄴ', 'ㄹ' 덧날 때 '사이ㅅ'을 적는 규정도 덧붙여, '아래人이, 대人잎, 물人약, 들人일'처럼 표기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그런데 1946년 맞 춤법 규정을 일부 고쳐서 "複合名詞나 또는 複合名詞에 준할 만한 말에서 두 말 사이에 된소리가 나거나 또는 다시 口蓋音化한 'ㄴ'이나 'ㄹ'소리가 나는 것은, 윗말의 끝소리가 홀소리인 경우는 ㅅ을 받치어 적고, 닿소리인 경우는 이를 表示하지 아니한다."라고 하 여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길가, 손등, 들것, 쥘손, 권수(卷數), 집일, 물약, 쌀엿' 처럼 사이시옷을 쓰지 않도록 고쳤다.

남한의 『한국어문규정』에 나오는 '한글 맞춤법(1988)'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4절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30항에 사이시옷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밥, 나룻배, 모깃불, 찻집, 킷값
  - (2)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뒷머리, 아랫니, 잇몸, 빗물
  - (3)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일, 베갯잇, 나뭇잎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머릿방, 사잣밥, 샛강, 전셋집, 콧병, 햇수
- (2)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 (3)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욋일, 예삿일, 홋일
-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남한의 현재 사이시옷 표기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문제점이 있다.8) 한자어나 외래어와 결합하는 합성어의 경우는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ㄴ.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도 '사이시옷'을 받치지 않고, 적어도 합성어의 어느 한쪽이 순우리말이고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한다는 것인데, 전문가조차 혼란스럽고 어렵다. 두 음절 한자어 6개 단어만 사이시옷을 표기하게 한 것도 불합리하다. '개수(個數)', '초점(焦點)',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은 '갯수', '촛점', '기찻간', '전셋방'으로 표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잿빛, 햇빛'은 사이시옷을 쓰고, '오렌지빛'은 쓰지 않는다. '만둣집, 두붓집'은 사이시옷을 쓰고 '피자집'은 쓰지 않는다. '선짓국, 김칫국, 등굣길'은 '선지국, 김치국, 등교길'로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해님, 대가(代價)' 등은 '햇님, 댓가'로 쓰는 사람이 더 많았다.9)'소수'의 경우, '少數'와 '小數'가 의미도, 발음도 다른데 한자어라는 이유로 같은 '소수' 표기를 쓰도록 하고 있다. '석윳값/석유가', '전셋값/전세가', '진달랫과/장미과'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에서는 1948/1950년 「조선어 신철자법」 규정을 만들었다.10)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1948)을 제정하면서 합성어에 이른바 '절음부(')'를 끼워넣도록 함으로써 남한 과는 달라졌다. '조선어 신철자법' 규정에서는 사이시옷 대신 된소리 표지인 '절음부(')'를 사용하도록 했다. 1954년에 '절음부'라는 명칭을 '사이표'라고 바꾸고, 앞말이 끝소리가 닿소리인 경우와 한자어인 경우에도 된소리 현상, 'ㄴ/ㄴㄴ' 덧나기 현상이 있으면 '사이표'를 사용하였다. 형태소 표기 우선주의를 강조한 『조선말규범집』(1966)을 출간하면서 사잇소리 현상을 낱말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발음 규정을 두어 된소리, 'ㄴ.ㄴㄴ' 덧나기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11) 1988년, 2010년 '조선말 규범집'에서는 사이시옷 관련

<sup>8)</sup>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해설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s://www.korean.go.kr/) '어문규정보기' 제4장 '형태에 관한 것')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9) 박동근(2014:67) 참조.

<sup>10)</sup> 남북한 사이시옷 표기 규정 차이에 대한 정리는 고영근(2000), 이관규(2016), 정혜현(2018) 참조.

<sup>11) 1966</sup>년 『조선말규범집』이후 '사이시옷'이나 '사이표(')'를 쓰지 않기로 한 것은, 최정후(2005:155-7)에서 "우리 언어학자들은 조선어에서의 소리끊음현상과《된소리화》법칙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사이시》현상은 어디까지나 말소리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말소리변화현상의 한 형태라는 것을 밝히고 맞춤법에서는 《사이시》를 첨가하거나 《사이표》(')를 첨가하는것이 불필요하다는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다."라고 밝히고,"《사이시》이나 《사이표》를 쓰지 않고 언어생활을 해오지만 이 문제에 대하

규정이 없다. 『조선말 규범집』(2010개정)」에서는 사이시옷에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낱말 표기에서 형태소의 일관성과 간결성을 강조하면서 된소리 등을 표기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12) 사잇소리는 개별 낱말의 발음 현상으로 보아, '문화어발음법'에서 "단어나 단어결합에서 사이소리가 끼여나는 경우"로 정리하고 있다.13) '사이소리'를 발음 현상으로 다루고 맞춤법에서 '사이표'나'사이시옷'을 쓰지 않음으로써 표기법이 오히려 혼란이 줄고, 된소리 현상도 줄어드는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형태소 표기 일관성을 강조한 북한 맞춤법 사이시옷 표기도 역시 문제가 있다. '바닷가, 시냇가'를 '바다가, 시내가, 이몸'으로 적음으로써 '바다+가(조사), 시내+가(조사)' 구분이 어렵고, '잇몸, 아랫니'를 '이몸, 아래이'로 적으면서 [인몸], [아랜니]로 발음하는 데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형태소 표기의 일관성, 과학성을 주장하면서도 어쩔수없이 고유어 가운데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샛별/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오면서 부는 바람)/비바람(비와 바람)' 과 같이 일부 낱말의 경우사이시옷을 적도록 허용하고 있다. '냇가, 베갯잇, 잇집(볏집), 잇꽃'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에서 20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맞춤법 규정에 합의했지만, 사이시옷 표기 문제는 두음법칙 표기 문제와 함께 통일된 표기 원칙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14) 사이시옷 표기 규정(북한의경우 된소리, /ㄴ, ㄴㄴ/ 소리 덧나기 규정)에 관한 한,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발음과표기 모두 쉽지 않고 혼란스럽다. 가능하면 남북한이 하나의 맞춤법 규정에 따라 표기하도록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어느 한쪽 규정에 따라 통일하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또 언중들의 의식이나 사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남북한 언중 모두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지금까지 지켜온 관습이 있고, 남북한 당국자나 학자들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여서 합의가 쉽지 않지만 언중의 말 사용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언중의 인식 조사를 거쳐 객관적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본

여 혼돈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특히는 우리 말에서 된소리화현상 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이로》(')폐기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sup>12) 2010</sup>년 《조선말규법집》의 개정 내용과 남북한 어문 규정의 차이에 관한 것은 최호철(2012) 참조.

<sup>13) 『</sup>조선말규범집(개정)』(2011)에 나오는 '문화어발음법' 사잇소리 관련 내용 정리는 정혜현(2018:150) 참조.

<sup>14)</sup> 겨레말큰사전 편찬 회의 기록은 https://www.gyoremal.or.kr 참조. 남북한 철자법 변천 역사는 기세관·최호철(1993)참조.

다. 과거에는 광범위한 언어 사용 자료나 사용자 인식 조사가 어렵고 품이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방송 등의 언어 자료를 컴퓨터를 활용한 말뭉치 구축이나 인 공지능 등을 활용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 조사와 다층적인 인식 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 2.3. 두음법칙 표기의 차이

두음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한 소리가 출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남한에서는 두음법칙을 표기법에 반영하여 '두음법칙'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두음법칙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 한글 맞춤법 제5절 10항, 11항, 12항은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이다.15)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여자(女子)/녀자, 유대(紐帶)/뉴대, 연세(年歲)/년세, 요소(尿素)/뇨소, 익명(匿名)/닉명' 같은 한자어에서 앞의 것을 취하고, 뒤의 것을 버린다. '녀, 뇨, 뉴, 니'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ㄴ'이 나타나지 못하여 '여,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이러한 두음법칙의 내용을 적용하여 적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한자어 음절이 '녀, 뇨, 뉴, 니'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존명사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냥, 냥쭝, 년' 등과 같은 의존명사는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쓰지만 언제나 의존하는 대상과 하나의 단위로 쓰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말들은 독립된 단어로 잘 인식되지 않아 '일 년(의존명사), 2020 년도(의존명사)'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年', '年度'처럼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두음법칙의 적용에서 차이가 난다. '년, 년도'가 의존명사라면 '연, 연도'는 명사이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양심(良心)/량심, 용궁(龍宮)/룡궁, 역사(歷史)/력사, 유행(流行)/류행, 예의(禮儀)/례의, 이발(理髮)/리발'에서 앞의 것을 취하고 뒤의 것을 버린다. 다만,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몇 리냐? 그럴 리가 없다.'처럼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단어 첫머리가 아니어도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나렬, 분열(分裂)/분렬, 치열(齒列)/치렬, 선열(先烈)/선렬, 비열(卑劣)/비렬,

<sup>15)</sup>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kornorms.korean.go.kr '한국어 어문 규범'참조.

진열(陳列)/진렬, 규율(規律)/규률, 선율(旋律)/선률, 백분율(百分率)/백분률'에서 앞의 것을 취하고 뒤의 것을 버린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낙원(樂園)/락원, 뇌성(雷聲)뢰성, 내일(來日)래일, 누각(樓閣)루각, 노인(老人)로인'에서 앞의 것을 취하고 뒤의 것을 버린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의 경우, '반-나체(半裸體)사상-누각(沙上樓閣)실-낙원(失樂園)중-노인(中老人)육체-노동(肉體勞動)'와 같이 두음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북한에서는 한자어 'L, 리'이 첫소리로 오는 경우라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은 'L,리'을 첫소리로 가진 한자어를 적을 때는 낱말의 첫소리이든 중간이든 한자의 원음을 밝혀적고 그대로 발음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말규범집』 (1988, 2000) 제25항: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자어는 형태음소적 조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더라도 원래 한자 발음대로 적는다는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어의 첫소리에 'L, 리'을 그대로 두어, '녀자, 뉴대, 락원, 래일,로동, 로인, 루각, 량심, 료리'과 같이 표기한다. 1966년《조선말규법집》 해설에서는 어두의 'L, 리' 발음이 새로이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발음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한자말 소리가 변한 경우는 소리대로 적는다고 하여 '나사/라사,노(櫓)/로,요기/료기,나팔/라팔,오뉴월/오륙월,궁냥/궁량'에서 앞의 것을 취하고, 뒤의 것을 버린다.

두음법칙 규정에 관해 남북한 차이를 이해하고 통일하려면 남북한 주민이 발음하는 현상이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총칙에서 형태주의를 취하고 발음주의를 보조로 하거나 버린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현재 남한의 맞춤법의 두음 법칙 규정은 3개 항에 붙임이 10개(10항 3개, 11항 5개, 12항 2개)나 붙어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고 규정대로 쓰기가 어렵다. 남한과 북한의 맞춤법 통일을 위해서 맞춤법의 표기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자어의 경우 한자의 원음대로 어두에 'ㄴ, ㄹ' 표기를 허용하고 그 발음이 형태음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것은 발음의 영역으로 넘겨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원래 한자음에서 발음이 분명히 달라져 어두뿐 아니라 어중에서도 다르게 발음이 되는 것은 한자어의 발음을 고치거나 복수 발음을 인정해서 표기하도록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본다. 실제 중국의 조선족 경우에는 어두에 'ㄴ, ㄹ' 표기를 하고 발음은 서울 표준말 발음처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좋은 사례라고 본다.16)

### 2.4. 띄어쓰기 표기의 차이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을 해설하면서 '문장을 어절 단위로 띄어쓴다.'라고 기본 띄어쓰기 원칙을 제시했지만, '어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형태론, 통사론 등 다층위에 걸친 복잡한 문제여서 실제 띄어쓰기를 하려면 기준 적용이 간단하지가 않다. 문장 표기에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언뜻 보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컴퓨터로 어절을 인식하고 말뭉치를 구성하고, 자료를 검색하고, 국어 자료 통계를 처리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남한에서는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의 띄어쓰기 규정을 따르다가 1940년, 1946년, 한글학회 일부 개정안, 1949년 문교부 교과서 편수 지침용 '한글 띄어쓰기', 1964년 문교부 '교정편람', 1980년 한글학회 '맞춤법 개정안', 1988년 정부 고시 '한글 맞춤법',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기준 등으로 개정하면서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이 수정 변경되었다. 대체로 '단어별로 띄어쓰되 경우에 따라 붙여쓰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는쪽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한글 맞춤법 제5장에 41항부터 50항까지 띄어쓰기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46년 '조선어 신철자법'부터 띄어쓰기 규범이 여러 차례 변하여 1948 년, 1954년, 1966년, 1988년, 2000년, 2003년에 걸쳐 여러 차례 규범이 수정 변경되었다. 17) 남북이 여러 차례 띄어쓰기 규정을 수정 변경했지만 '단어 단위로 띄어쓴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다. 18)

띄어쓰기의 변천 과정을 보면, 한문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다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띄어쓰기는 한문에서와 같이 한글도 모두 붙여서 쓰고 대신 둥근 고리점(권점)을 두어 구, 절 단위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읽고 글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그러다가 18세기 불경 언해에 띄어쓰기를 한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세기에는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1896), 이봉운의 『국문정리』(1897), 서양 선교사들의 영문법이나 성경 번역서 등에서 빈칸 띄어쓰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시경 『국어문법』(1910)에서는

<sup>16)</sup> 고영근(1994),130-131쪽 참조.

<sup>17)</sup>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은 '국어사정위원회(2010),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출판사.' 참조. 남북한의 띄어쓰기 규정 세부 변경 사항은 최호철(2004), 양명희(2013)을 참조.

<sup>18)</sup> 띄어쓰기는 '어절(語節)'과 관련이 깊다. 조사를 단어(낱말)로 인정하면서 '단어 단위로 띄어쓴다'고 하기 곤란해져 생긴 개념이다. 주시경(1908)의 '듬난(문장을 나눈 것)'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정렬모(1946)에서는 어절이라는 말 대신 '감말(명사+조사, 어간+어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어절'의 개념은 '명사+조사', '어간+어미' 결합 형태 뿐 아니라 합성어, 구, 절 등의 개념과 얽혀 있어 복잡하다. 어절의 개념에 관한 것은 김양진(2015) 참조.

'o'를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표시하였다. 주시경 선생은 분석주의 문법론을 주장하셨기에 조사와 어미도 '씨'로 보고 띄어쓰기를 했다.

해방 후 남북한이 처음에는 조선어학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띄어쓰기 규정을 따르 다가 북한이 1946년 '조선어 신철자법'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공표하면서 달라지기 시작 했다. 띄어쓰기 항목별로 남북한 규정과 표기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남한의 붙여쓰기 규정은 한글 맞춤법 41항부터 50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 여쓴다. 1933년 '한글 마춤법 통일안' 이후 남북이 어미와 조사를 앞말에 붙여쓴다는 것 은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 다. 의존명사(불완전명사)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열거하는 말 등이다. 독립적으로 쓰 이지 않지만 단어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와 같이 쓴다.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 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 루, 집 한 채'와 같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 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 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과 같이 쓴다. 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과 같이 쓴다. 45 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 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와 같이 쓴다.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 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과 같이 쓴다. 47항: 보 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 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잘도 놀아 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 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처럼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처럼 띄어 쓸 수 있다. 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워칙으로 하되,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한국대학교 사범대학'처럼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50 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만성 골수성 백혈병/만성골수성백 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중거리탄도유도탄'처럼 붙여 쓸 수 있다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은 '한글 마춤법 통일안' 방식을 따르다가 1966년 규정부터 이

전에 띄어쓰던 것들을 붙여쓰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였다.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자모를 음절단위로 묶어쓰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어휘부류 는 붙여쓰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사회주의건설속도, 만경대위생편의봉사사업소, 리 옥희아주머니, 교육문화보건사업, 칠것, 말할나위, 가져온만큼, 떤난지, 쓸어버리다, 물어 보다. 가르쳐주다, 읽는가싶다, 가고말고 등'과 같이 붙여쓰기를 강화했다. 그런데 2000 년 띄어쓰기 규범은 그 반대 방향으로 수정 개정이 이루어져서 1966년 이전 규범과 비 슷하게 바뀌었다. 2003년 개정한 '띄여쓰기규정' 1항. "토뒤의 단어나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는 띄여쓴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어를 단위로 띄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을 읽고 리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에는 붙여쓴다."라고 띄어쓰기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띄 어쓰기를 토가 붙은 단어와의 관계와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 기본선을 세우 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품사별로 띄어쓰도록 하고, 보조동사도 띄어쓰는 것을 워칙으로 정하였다. 관형사도 명백하게 띄어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완전명사(단 위명사포함)는 앞 단어에 붙여 쓰되, 그 뒤에 오는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고 규정하여 '갈바를'과 같이 붙여쓰게 하였다. 또 하나의 대상, 행동, 상태를 나타내 는 경우 품사가 달라도 '때이르다, 기쁨어리다, 별말씀, 아침저녁, 모내는기계, 붉은색, 여러말할것없이, 아니나다를가, 무엇보다먼저'처럼 붙여쓰도록 한 것은 남한과 다른 점 이다. 숫자는 백, 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쓰게 함(오천 오백 오십오만 오천 오백 오 십오)으로써 남한(오천오백 오십오만 오천오백오십오)과 다른 방식으로 띄어쓰게 되어 있다.

띄어쓰기는 어느 방식이 더 쓰기 편하고, 읽을 때 쉽게 해독이 가능한가는 사람에 따라,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또,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도록 하고 있지만 두 단어인지, 하나의 합성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앞으로 가칭 '통일사전편찬위원회'같은 남북 통합 공식 기관을 세우고, 방대한 자료수집과 언중의 의식 조사를 하고,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표제어를 결정해 사전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겨레말큰사전 남북통합준비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작업하던 '겨레말큰사전'이 편찬되면 사전에 표제어로올라있는 것을 단어로 인정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2.5. 문장 부호 차이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그런데 맞춤법 규정에서 모든 문장 부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규정의 간결성, 편의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한글 맞춤법'에서는 "「한글 맞춤법」(1988)의 부록으로 제시된 종전 규정에서는 수학이나 언어학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부호의 용법까지 다루었다. 분수를 표시하는 빗금, 단어 구성 성분을 표시하는 붙임표 등이 그런 예이다. 그런데 이런 용법까지 규정에 담으면, 각종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다른 부호들도 모두 담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새 규정에서는 주로 일상의 글에서 사용되는 부호들 가운데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부호들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라고 일상 글에서 사용하는 부호 가운데 문장 구조,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는 기호로 제한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남한의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 제시된 문장 부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마침표(.): (온점)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 지 않음을 워칙으로 한다.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1919. 3. 1.)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 다.(8.15광복, 3.1운동)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물음표(?), 느낌표(!), 쉼표(, 반점), 가운뎃점(·), 쌍점(:)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희곡 등에서 대화의 말할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분할 때 쓴다. 65:60처럼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빗금(/), 큰따옴표 (""), 직접대화 표시, 인용할 때 쓴다. 작은따옴표(''), 인용한 말 안의 인용한 말, 마 음 속으로 한 말에 쓴다. 소괄호(( )), 주석이나 보충 내용, 원어 표기, 생략할 수 있는 요소, 대화 분위기 동작, 내용이 들어갈 빈자리, 항목의 순서를 나타내는 문자 등에 쓴 다. 중괄호({ }),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묶을 때, 열거 항목 중 하나를 선택 할 때 쓴다. 대괄호([ ]), 괄호 바깥에 괄호가 필요할 때,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표 기, 원문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겹낫표(『』)와 겹화살괄호(《》), 책의 제 목이나 신문 이름, 홑낫표(「」)와 홑화살표(〈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 같은 예술 작 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줄표(-),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 제 앞뒤에 쓴다. 붙임표(-), 차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을 때, 두 개 이상의 어 구가 밀접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때 쓴다. 물결표(~), 드러냄표(')와 밑줄(\_), 문장 내

용 중에서 주의할 곳, 중요한 부분을 드러낼 때 쓴다. 숨김표(○, 동그라미표와 ×, 가위표), 금기어나 드러내기 어려운 비속어, 비밀 등 글자 수만큼 쓴다. 빠짐표(□), 옛 비문 등 불분명한 글자,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만큼 쓴다. 줄임표(·····), 할말 줄임, 말 없음, 머뭇거림 표시, 생략할 때 쓴다.

북한 어문 규정에 사용하는 문장부호는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부 부호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는 맞춤법의 [부록]으로 문장부호를 다루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별도의 절항(3. 문장부호법)을 만들어 규정하고 있다. 문장부호법 '총칙'에 "현대조선말의문장부호는 문장들, 문장안의 각 단위들을 뜻과 기능에 따라 갈라주기 위하여 친다."라고 부호 설정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문장부호법'에서 제시하는 부호들을 보면 다음과같다. 점(.), 두점(:), 반점(,), 반두점(;), 물음표(?), 느낌표(!), 이음표(-), 풀이표(-), 줄임표(…), 인용표(《》), 거듭인용표(〈〉), 쌍괄호(()), 꺾쇠괄호([〕), 밑점(……), 숨김표(ㅇㅇㅇ,×××, □□□), 같음표("), 물결표(~) 항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있다. 쌍점(:)을 두점이라 하고, 남한에는 없는 반두점(;, 세미콜론: 문장 안에 이미 반점(,)으로 구분된 말이 여러개 잇달아 있고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의 말이 런달아 올 때더 크게 묶어지는 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칠 수 있다.)을 설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남한의 드러냄표(')와 밑줄(\_) 대신 글자의 아래 부분에 점을 치고 밑점(……)이라고 이름한 것이 다르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인용부호이다.

남한: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영철동무는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계획된대로 내밀자.》고 토론했다.19)

남한에서 인용에 사용하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대신 겹화살괄호(《》)와 홑화살표(〈〉) 를 '인용표(《》)'와 '거듭인용표(〈〉)'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점이 특이하다. '같음표(")'를 설정하여 '같은 말이나 같은 표현이 겹쳐나올 때 두번째부터의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쓸수 있다.'라고 하고 긴 경우 《一 " ─》로도 표시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0항: 대목이나 장, 절, 문단 등을 가르는 부호와 그 차례(그 이름도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에서 일, 이, 삼 등은 남한과 같이 부르지만 (1)을 쌍괄호일, ㄱ, ㄴ. ㄷ을 '그, 느, 드'라고 부르도록 하고, ※을 '참고표', △를 삼각, ※를 '꽃표'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점도 남한의 문장부호 해설과 다르다.

<sup>19)</sup> 국립국어원(2007), 『한국 어문 규정』64쪽. 국어사정위원회(1988),70쪽.

또 한 가지 남북한 차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모음 어미 '아/어/여'나 '았/었/였'의 결합 조건이다. 남한에서는 한글마춤법 통일안 규정을 그대로 따라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이면 '아, 았'을 결합하고, 그 밖의 모음이면 '어/었'을 결합하되, 어간 '하-' 다음에는 '여, 였'을 결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간이 'ㅣ, ㅐ, ㅔ, ㅚ, ㅢ'로 끝나는 경우에 모음동화 현상의 발음을 반영하여 '기여, 개여, 세여, 되여, 희여'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발음 현상을 맞춤법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형태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표기이지만 아직 그대로 쓰고 있어 조선어학회 '한글마춤법통일안'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3. 맺음말

분단 상황이 길어지고 남북한의 어문 규정이 서로 다르게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맞춤법 차이도 상당히 커졌다. 2005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20여 차례 협의회를 가졌지만 남북한의 맞춤법 규정을 바꾸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 맞춤법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들 가운데. 총론과 자모 이름과 순서, 사이시옷, 두음법칙 표기, 문장 부호 사용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상황에 서는 남북이 단일 통일안을 내기가 쉽지 않다. 형태주의 워칙을 지키되, 동음어가 생긴 경우나 관습적으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중이 여기는 것들만 예외로 인 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당장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복수 표기를 인정하되, 말뭉치 자료 분석과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하면 단일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를 영국식 표기 'colour', 미국식 표기 'color' 처럼 양쪽 을 인정하는 것도 해결 방식이다. 복수 방안을 사용하다가 보면 어느 한쪽으로 선호가 결정될 것이다. 띄어쓰기는 종래 붙여쓰던 것들도 붙여쓰는 쪽으로 가거나 허용하는 방 향으로 가고 있는데, 인터넷 빅데이터 자료 수집과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붙여쓰기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철자법의 기준 '맞춤법' 통 일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다시 협의회를 가져 마무리하지 못한 사전 편찬 작업을 마무리하고, 통일된 '한글 맞춤법' 규정도 마련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합의가 어려운 사이시옷, 두음법칙 같은 경우 처음에는 복수안을 두고 선택해서 사용토록 하다가 어느 한쪽으로 비중이 쏠리면 점차 단일안으로 통합하는 것 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의 학자들이 연구해 온 업적과 이론, 사상이 달라서 맞춤법, 띄어쓰기, 발음법 등에서 당장은 통일된 단일안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합의된 부분만 통 일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국어 정보 수집과 인공지능 등을 활 용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쟁점이 있는 부분도 합리적 해결이 가능한 날이 오리 라 믿는다.

일제 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한글을 연구하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민족어 연구와 발전에 기울였던 정성을 생각하면, 오늘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까지 왔다고 본다. 남북 전문가들이 다시 만나 서로 차이가 많은 부분은 미루어 두더라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 사전, 교과서, 학교 교육 자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차이가 있고 서로 양보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공통점과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협력하고, 남북한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맞춤법'도 자연스럽게 합일점을 찾는 시기가 올 것으로 믿는다.

## 참고문헌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길벗.

국어사정위원회(1988,2010),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출판사.

기세관·최호철(1994), '남북하 통일 맞춤법을 위하여', 한국언어화회, 언어화16, 231-250쪽,

김광수·강옥설(2015), '한국과 조선 그리고 중국조선어 맞춤법의 비교 연구', 조선어문연구 2015-(2), 7-16쪽.

김양진(2015), '띄어쓰기의 성립과 어절의 개념',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171, 5-39쪽.

박동근(2014), '웹 검색을 이용한 맞춤법 오류의 변화 양상 연구: 사이시옷 표기를 중심으로', 한국문 법교육학회, 문법교육 21, 67-93쪽.

양명희(2013), '띄어쓰기 변천을 통해 본 의식 연구',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163, 197-223쪽.

- 이관규(2016), '남북한 어문정책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176, 63-90쪽.
- 이관규(2016), '남북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표기법과 발음법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문법교육학회, 문법 교육 28, 135-164쪽.
- 이석린(1935), '띄어쓰기는 우리글의 생명이다', 한글학회, 한글3-10, 10-12쪽.
- 이은정(1989), '남북한 맞춤법 비교 검토', 한글학회, 한글205, 165-192쪽.

이은정(1988), 개정한(1988.1.14. 문교부 고시) 한글맞춤법 표준어 해설, 대제각.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최현배(1940), 한글갈, 정음사.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최호철(2004), '남북 띄어쓰기 규범의 통일에 대하여', 한국어학회, 한국어학 25, 343-364쪽.

홍종선(2012), '겨레말 큰사전의 성격과 과제', 한글학회, 한글 295, 135-161쪽.

홍종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립국어원, http://kornorms.korean.go.kr '한국어 어문 규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https://www.gyoremal.or.kr '자료마당'.

# 집현전 학술대회 발자취 (1회~12회)

장소 : 경복궁 수정전

시간 : 2009년 10월 9일(목) ~ 10월 10일(금)

# 563돌 한글날 기념 제1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 한글의 정보화, 산업화

	첫째 날			
제1부	개회 및 기조강연			
개 회	육철희(외솔회 사무국장)			
개회 말씀	최기호(전 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			
축하 말씀	유인촌			
격려 말씀	김승곤, 박종국			
	내빈소개			
기조강연	최기호(전 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			
제2부	주제: 한글을 지키고 빛낸 분들	사회: 윤명철(동국대학교 교수)		
14:00 ~ 14:30	주시경과 국어운동	유영인		
	토론	성낙수		
14:40 ~ 15:10	물불 이극로의 한글운동	박용규		
	토론	김정수		
15:40 ~ 16:10	히못(白淵) 김두봉의 삶과 활동	이준식		
	토론	심순기		
16:20 ~ 16:50	외솔 최현배의 항일독립운동	김동환		
	토론	김두루한		
17:00 ~ 17:30	외솔 최현배의 사상과 나라사랑	박영신		
	토론	김슬옹		

	둘째 날	
제3부	주제: 한국어 정보화의 향후과제와 원격 교육의 문제	사회: 김광옥(수원대학교 교수)
09:30 ~ 09:50	중국 조선어 정보 기술 표준화의 국내, 국제협력의 절박한 문제	현용운
투	론: 키르키즈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	배순호
10:00 ~ 10:20	나라 밖의 한국말 교육 현황과 문제	이대로
	토론: 한국어 원격 교육 시스템	김성환
10:30 ~ 10:50	공병우 박사의 업적과 당면	송현
토론: 인	마태 소리글판의 한글과 중국어 입력방식	안마태
	쉬는 시간	
11:20 ~ 11:40	5거화 봉수에서 전화기 쪽글판까지 : 정음_ 한글 정보학의 미래 전망	진용옥
토론: 인터넷 시	니대에 한국어와 관련된 지역 실별자 및 통합대응	김국
12:00 ~ 12:20	한국어 기반 응용언어학과 미주 지역의 한국어 교육	김남길
	토론: 한국에서 이중언어 교육	이길원(동아대 교수)
제4부	주제: 한글의 산업화	정재환(한글문화연대 부회장)
14:00 ~ 14:20	한글디자인 -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백승정
	토론	표언북
14:30 ~ 14:50	한글과 디자인	류명식
	토론	석금호
15:20 ~ 15:40	한글 문화상품을 위한 제언(도자문화를 중심으로)	박선우
	토론	김미형
15:50 ~ 16:10	한글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화	이건만
	토론	박원길
16:20 ~ 16:40	문화산업으로서의 한글 디자인: 전망과 과제	신승일
	토론	하재열

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광화문 청사 5층 회의실

시간 : 2010년 10월 7일(목) ~ 10월 8일(금)

# 564돌 한글날 기념 제2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세상과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첫째 날	
제1부	개회 및 기조강연	김두루한(외솔회 사무국장)
개회사	성낙수(외솔회장)	
축 사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격려사	김종택(한글학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정	당)
기조강연	세상과 잘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성낙수(외솔회장, 교원대 교수)
제2부	주제: 세계와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사회: 조일규(평택대학교 교수)
10:20 ~ 10:50	몽골의 한국어 교육	최기호(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
	토론	에르덴수렝(몽골 인문대 교수)
10:50 ~ 11:20	아프리카 • 중동의 한국어 교육	송향근(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	김정숙(고려대학교 교수)
11:20 ~ 11:50	중국의 한국어 교육	김성란(베이징 중앙민족대 교수)
	토론	이대로(전 월수외대 교수)
11:50 ~ 12:20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실태와 전망	이영숙(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김재욱(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제3부	주제: 다문화 사회와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이정택(서울여대 교수)
14:30 ~ 15:00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김선정(계명대학교 교수)
	토론	육효창(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15:00 ~ 15:30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기본 어휘 교육	이창덕(경인교대 교수)
	토론	임소영(연세대학교)

15:40 ~ 16:10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	김흥범(한남대 교수)
	토론	박형우(교원대 교수)
16:10 ~ 16:40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최용기(국립국어원 부장)
	토론	조항록(상명대 교수)
17:00 ~ 18:00	종합 토론	
	둘째 날	
제4부	주제: 종교와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사회: 이원승(동서울대 교수)
10:00 ~ 10:30	2005년 성경 한글번역 그 이후	강대인(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
	토론	조원형(인하대학교)
10:30 ~ 11:00	불교와 만난 한글	김슬옹(동국대학교)
	토론	이전경(연세대학교)
11:10 ~ 11:40	유학과 만난 한글	최봉영(항공대 교수)
	토론	김영환(부경대 교수)
11:40 ~ 12:10	개신교와 만난 한글	나채운(전 장신대 교수)
	토론	임희국(장신대 교수)
제5부	주제: 겨례 삶과 어울리는 한국어와 한글	오동춘(한글학회 이사)
14:00 ~ 14:30	공공 언어의 오늘과 내일	남영신(국어단체연합회장)
	토론	김형배(국립국어원)
14:30 ~ 15:00	학술 및 전문 용어의 오늘과 내일	김정수(한양대 교수)
	토론	이재현(동덕여대 교수)
15:10 ~ 15:40	언론 출판 용어의 오늘과 내일	최인호(한겨례말글연구소장)
	토론	이경우(한국어문기자협회장)
15:40 ~ 16:10	교육 과정 용어의 오늘과 내일	김두루한(경기상업고등학교 교사)
	토론	염시열(전주 만수초 교사)
16:30 ~ 17:30	종합 토론	
17:30 ~ 19:00	함께 기리는 한글 사랑, 나라 사랑의 뒤풀이 - 외솔 최현배 선생을 추모하는 동영상 감상	

장소 : 한글회관 얼말글교육관

시간 : 2011년 10월 6일(목) ~ 10월 7일(금)

# 565돌 한글날 기념 제3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세계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일	정	등록 및 개회			사회: 0	정택(서울여대)
	09:20 ~ 09:30	대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개회식	09:30 ~ 09:4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 기념사회업회 회장	)		
	10:30 ~ 10:20	기조 강연	문학과 한글이 만나다(정현기: 재단법	법인 외솔	호 이사	. )
분과	발표	주저	1 : 고전문학과 한글의 만남	발	H	토론
	10:20 ~ 10:50	향가와 한 적 정서	향가와 한글 : 향찰의 한글 해독에 나타낸 시 적 정서			박재민(관동대)
1부 사회 :	10:50 ~ 11:20	한문학의	한문학의 한글 해독이 지닌 가치와 문제			김종서(한중연)
시외 : 이정택 (서울여대)	11:20 ~ 11:50	고려가요오 정성	고려가요와 한글 : 고려가요의 한글 정착과 서 정성			양태순(서원대)
	11:50 ~ 12:20	고전소설교	· 한글 : 한글 창제와 고전 소설	김흥규(	고려대)	최재남 (이화여대)
12:20 ~	13:30		점심			
2부	13:30 ~ 14:00	시조와 한	글 : 모국어의 시어로서 정착(1)	설성경(	연세대)	조세형(서울시립 대)
사회 :	14:00 ~ 14:30	가사와 한	글 : 모국어의 시어로서 정착(2)	박연호(	충북대)	신경숙(한성대)
자외 : 김홍범 (한남대)	14:30 ~ 15:00	궁중문학교	이형배(	고려대)	권순회(교원대)	
(2011)	15:00 ~ 15:30	서간문과 한글 : 실용 문학과 한글의 만남 성낙수(교원대) 박무영(연세다			박무영(연세대)	
15:30 ~	15:40		휴식			
15:40 ~	16:40	<b>종합토론</b> 사회   김홍	범(한남대)			

분과발표		주제 2 : 현대문학과 한글의 만남	발표	토론
	10:20 ~ 10:50	한글 소설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	권영민(서울대)	오탁번(고려대 명예교수)
사회 : 박형우	10:50 ~ 11:20	시적 정서와 한글	유성호(한양대)	강연호(원광대)
(교원대)	11:20 ~ 11:50	한글의 대중성과 수필 문학	윤제천(중앙대)	김성춘(시인)
	11:50 ~ 12:20	평론과 우리말	김영민(연세대)	이재복(한양대)
12:20 ~	13:30	점심		
분과	발표	주제 3 : 세계문학과 한글의 만남	발표	토론
	13:30 ~ 14:00	영미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김준환(연세대)	허정애(경북대)
사회 : 박동근	14:00 ~ 14:30	프랑스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전혜정(알리앙스 프랑세즈)	이철(전남대)
(건국대)	14:30 ~ 15:00	중국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정경원(외국어대)	김현철(연세대)
	15:00 ~ 15:30	일본문학과 한글이 만나다	방교영(한국외대)	성혜경(서울여대)
15:30 ~	15:40	휴식		
15:40 ~	16:40	<b>종합 토론</b> 사회   박동근(건국대)		
폐회식	16:40 ~ 16:50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 회   이창덕(경인교대)		

장소 :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시간 : 2012년 10월 5일(금) 09: 00 ~ 18:10

# 566돌 한글날 기념 제4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류시대, 한글문학의 세계화

일	정		등록 및 개회	사회: 김	김슬옹(세종대)	
	09:00 ~ 09:30	개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개회식	09:30 ~ 09:4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축 사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홍종화(연세대학교 문과대학장)			
	09:40 ~ 10:20	기조 강연	한류시대의 한글문학(설성경: 연세다	명예교수)		
			주제	발표	토론	
	10:20 ~ 11:00	한류를 통	한 한글문학의 세계화 방안	박태상(통신대)	오윤선 (한국교원대)	
오전 사회 :	11:00 ~ 11:40	세종학당을	을 통한 한글문학 보급	김재욱(한국외대)	박성태(성균관대)	
시되 . 이정택 (서울여대)	11:40 ~ 12:20	향찰의 한	글 해독에 나타난 시적 정서	고운기(한양대)	박재민(관동대)	
an (e)	12:20 ~ 13:00	한국 한문	학의 한글 번역과 문학성	안대회(성균관대)	이강엽(대구교대)	
13:00 ~	14:30		점심			
	14:30 ~ 15:10	한국 시문	학의 세계화	유성호(한양대)	오문석(조선대)	
오후 사회 :	15:10 ~ 15:50	한국 소설	문학의 세계화	정현기(연세대)	김의규(작가)	
기외 : 김홍범 (한남대)	15:50 ~ 16:30	외국문학의	u 한글 번역과 세계화	다와따신이치로 (히로시마대학)	김현철(연세대)	
	16:30 ~ 17:10	한글문학과 문화 콘텐츠 최혜실(경희대) 최민성(한신			최민성(한신대)	
17:10 ~	17:20	휴식				
17:20~	18:00	<b>종합토론</b> 사회   유성	- !호(한양대)			
폐회식	18:00 ~ 18:10		남수(외솔회 회장)  창덕(경인교대)			

장소 :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시간 : 2013년 10월 11일(금) 09: 00 ~ 17:40

# 567돌 한글날 기념 제5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우리말과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찾아서

일	정	등록 및 개회				
개회식	09:00 ~ 09:10	대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창덕	09:10 ~ 09:3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1부	발표	주제 1 : 옛날 자료 가치	들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발표	토론	
	09:30 ~ 10:10	<삼국유사>에 나타 -'향가'를 중심으로-	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최정선(동덕여대)	길태숙(상명대)	
1부 사회 :	10:10 ~ 10:50	<악장가사> 등에 L 가치 -'청산별곡'을 중심의	H타난 고려 시대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으로-	최기호(몽골, 울란나타르대학)	고창수(한성대)	
김홍범 (한남대)	10:50 ~ 11:30	한글과 한글날에	대한 국민 관심도	이원승 (동서울대학교)	이재성 (서울여대)	
	11:30 ~ 12:10	판소리에 쓰인 우리	리말과 글의 아름다움과 가치	손태도(한예종)	김현양(명지대)	
12:10 ~	14:00		점심			
2부	발표	주제 2 : 우리 겨레의 이름다움과 2	삶에 나타난 우리말과 한글의 가치	발표	토론	
2부	14:00 ~ 14:40	일상 생활에서 명	사로 쓰이는 상징어의 활용 양상	김홍범.박동근 (한남대.건국대)	조민정(연세대)	
사회 :	14:40 ~ 15:20	땅이름에 쓰인 우	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박병철(서원대)	성희제(한밭대)	
이정택 (서울여	15:20 ~ 16:00	'가사, 시조' 등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가치	권순회 (한국교원대)	박애경(연세대)	
대)	16:00 ~ 16:40	조선시대 '언간'에 가치	나타난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과	김슬옹(동국대)	박연호(충북대)	
16:40 ~	16:50	휴식				
16:50 ~	17:30	<b>종합토론</b> 사회   이정택(서울	여대)			
폐회식	17:30 ~ 17:40	폐회사   성낙수(외 사 회   이창덕(경	36 St. 40 St. 64-64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시간 : 2014년 10월 7일(화) 09: 00 ~ 17:40

## 568돌 한글날 기념 제6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의 무한한 확장성

일	정	등록 및 개회				
개회식	09:00 ~ 09:10	대 회 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창덕 (경인교대)	09:10 ~ 09:30	축 사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정	<u>;</u> t)		
1부 탈	발표	주제 1 : 한글의 - 과학,	무한한 확장성 예술, 경제면에서 보는 한글	발표	토론	
	09:30 ~ 10:10	한글과 시각기호		안호은(연성대)	김나무(한경대)	
사회 :	10:10 ~ 10:50	ICT 중심사회와	한글	이재호(경인교대)	이봉규(연세대)	
김홍범 (한남대)	10:50 ~ 11:30	한글, 사체로의 :	조형성 탐색과 확산적 활용방안	박병천 (전 경인교대)	최영희 (성균관대)	
	11:30 ~ 12:10	한글의 시각적 등	풍경	최범 (디자인 평론가)	김슬옹 (Washington Global Uni.)	
12:10 ~	14:00	점심				
2부 발	발표	주제 2 : 한글의 - 한글의	무한한 확장성 의 미래와 세계화의 가능성	발표	토론	
	14:00 ~ 14:40	한글과 애니메이	션: 한글에 생명을 불어넣다	노승관(한양대)	김정우(한성대)	
사회 : 이정택	14:40 ~ 15:20	한글의 기계화와	세계 문자화	신부용 (KAIST IT융합연구소)	이재성 (서울여대)	
(서울여대)	15:20 ~ 16:00	한글의 아름다움	-한글구체시를 중심으로	고원(서울대)	김경선(서울대)	
	16:00 ~ 16:40	글자, 이미지, 타	이포그라피	안병학(울산대)	김두섭(홍익대)	
16:40 ~	16:40 ~ 16:50 휴식					
16:50 ~	17:30	<b>종합토론</b> 사회   박동근(건국	국대)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9 사 회   이창덕(8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시간 : 2015년 10월 8일(목) 09: 00 ~ 17:40

# 569돌 한글날 기념 제7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우리 생활 속의 한글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	택(서울여대)
09:00 ~ 09:10	대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10 ~ 09:30	축 사	최홍식(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김석득(전 연세대 부총장)		
제1부	주제1:	자연ㆍ겨레의 삶과 한글	사회: 김홍	범(한남대)
09:30 ~ 10:10	식물의 C	이름과 한글	발표: 임소영(연세대)	질의 • 응답
10:10 ~ 10:50	동물의 C	비름과 한글	발표: 김정남(경희대)	질의 • 응답
10:50 ~ 11:30	간판 상호	호 언어의 실태에 대한 고찰	발표: 김진희(한남대)	질의 • 응답
11:30 ~ 12:10	상품 이름	류과 한글	발표: 윤천탁(한국교원대)	질의 • 응답
12:10 ~ 13:30	점심			
제2부	주제2:	배움 놀이 도구와 한글	사회: 김홍	범(한남대)
13:30 ~ 14:10	즐겁게 기	나르치고 배우는 한글, 한국어	발표: 전나영(연세대)	질의 <b>·</b> 응답
14:10 ~ 14:50	유아 단계	계의 매체활용 한글교육	발표: 이경우(이화여대)	질의 · 응답
14:50 ~ 15:30	유아 한글	글 교구의 현황과 전망	발표: 박심덕(한솔교육)	질의·응답
15:30 ~ 16:10	생활 속	실물을 통한 한국어 수업 사례	발표: 오경숙(서강대)	질의 <b>·</b> 응답
16:10 ~ 16:30		휴식		
16:30 ~ 17:00	종합토론		사회: 김홍	범(한남대)
17:00 ~ 17:1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	택(서울여대)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시간: 2016년 10월 6일(목) 10:30 ~ 17:40

# 570돌 한글날 기념 제8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국 고전의 현대 언어학적 해석의 의의와 문제점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30 ~ 10:40	대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10:40 ~ 10:50	축 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제1부	주제1: 한글고전의 역주와 우리말의 구조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50 ~ 11:40	한글고전의 역주에서 나타나는 음운·어휘론적 문제점	발표: 한재영(한신대 교수) 질의·응답
11:40 ~ 12:30	한글고전의 역주에서 나타나는 형태·통사론적 문제점	발표: 홍현보(세종대왕기념사업회) 질의+응답
12:3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한국 한문 고전의 국역과 학문적 통	사회: 김홍범(한남대)
14:00 ~ 14:40	의학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엄동명(원광대 교수) 질의∙응답
14:40 ~ 15:20	과학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남문현(건국대 명예교수) 질의용답
15:20 ~ 16:00	종교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김무봉(동국대 교수) 질의•응답
16:00 ~ 16:10	휴식	
16:10 ~ 16:50	역사 관련 고전 국역의 의의와 문제점	발표: 백승철(연세대 국학연구원) 질의 응답
16:50 ~ 17:30	학술 전문 용어와 한글	발표: 강현화(연세대 교수) 질의+응답
17:30 ~ 17:4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시간 : 2017년 10월 12일(목) 10:30 ~ 17:40

## 571돌 한글날 기념 제9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과 한국인의 삶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00 ~ 10:10	대회사 성낙수 회장		
10:10 ~ 10:20	축 사		
제1부	주제1: 언어규범과 전통성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30 ~ 11:10	우리말본과 언어 이론	발표: 서상규(연/	네대)
11:10 ~ 11:50	우리말본과 국어정보학	북대)	
11:50 ~ 12:30	우리말본과 학교문법	려대)	
12:30 ~ 13:10	우리말본과 한글맞춤법	날대)	
13:1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인공지능 시대와 한글		사회: 김홍범(한남대)
14:00 ~ 14:40	인공지능과 자연언어 처리	발표: 이기황(다음	음소프트 기술이사)
14:40 ~ 15:20	sns의 활용과 보급	글코리아)	
15:20 ~ 16:00	5:00 빅데이터의 활용 발표: 백경혜(다음소프트)		
16:00 ~ 16:40	트렌드(관련어 검색)의 허와 실	기버)	
16:40 ~ 17:20	종합토론		사회: 김홍범(한남대)
17:20 ~ 17:3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시간 : 2018년 10월 11일(목) 10:00 ~ 17:30

# 572돌 한글날 기념 제10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한글의 탄생과 우리 겨레의 삶

		등록 및 개회식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10:00 ~ 10:10	개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10:10 ~ 10:20	축 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10:20 ~ 10:40	기조강연	강연 최기호(전 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		
제1부	주제1:	제1: 한글 창제와 우리 겨레의 삶		사회: 김홍범(한남대학교)
10:40 ~ 11:20	한국지성/	성사로 본 '문자와 문학'의 정체성(1) 설성경		영(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1:20 ~ 12:00	고려가요	나요와 한글 고운기		(한양대학교)
12:00 ~ 12:40	훈민정음	정음의 한글문자 생성 구조와 서체적 응용 박병천(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선(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12:40 ~ 14:00				
제2부	주제2: 한글 창제에 도움을 준 이들의 이모저모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14:00 ~ 14:40	성삼문의	<훈민정음>해례본 저술과 보급 공로	김슬옹(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문위원)	
14:40 ~ 15:20	집현전 회	학자 최항의 활동과 업적	문동석(서울여자대학교)	
15:20 ~ 16:00	정인지의	생애와 훈민정음	장윤희(인하대학교)	
16:00 ~ 16:40	훈민정음	창제에 도움을 준 왕실의 인물들	성낙수(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16:40 ~ 17:20	종합토론 사회: 이정택(서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17:20 ~ 17:3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시간 : 2019년 10월 10일(목) 10:00 ~ 17:50

# 573돌 한글날 기념 제11회 집현전 학술대회 주제: 지난 백 년의 우리 생활·문학과 한글

		등록 및 개회식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10:00 ~ 10:10	대회사	배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10:10 ~ 10:20	축 사	사 강현화(세종학당재단 이사장)			
10:20 ~ 10:40	기조강연 박영신(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제1부	주제1: 생활 속의 한글 사회:		사회: 심혜령(배재대)		
10:40 ~ 11:20	예술로 보는 한글 한기		한재준(	한재준(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1:20 ~ 12:00	국어사전(말모이)의 탄생과 발전 김호		김한샘(	연세대학교 교수)	
12:00 ~ 12:40	어문 규범의 변화 조남호(명지대학교 교수)		명지대학교 교수)		
12:40 ~ 14:00	점심				
제2부	주제2: 문학 속의 한글			사회: 김홍범(한남대)	
14:00 ~ 14:40	한용운의 민족정신과 한글 사랑		김광식(동국대학교 교수)		
14:40 ~ 15:20	) 민족 저항시인으로서의 윤동주		유성호(한양대학교 교수)		
15:20 ~ 16:00	방정환의 민족주의와 우리말글 사랑 정신		염희경(한국방정환재단 연구부장)		
16:00 ~ 16:40	해방 이후 민주주의자 최현배의 활동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6:40 ~ 17:40	종합토론			사회: 김홍범(한남대)	
17:40 ~ 17:50	폐회식	폐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이정택(서울여대)	

장소: 한글회관 403호

일시: 2020년 **10월 6일(화)** 09:30 ~ 18:00

# 574돌 한글날 기념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

대 주제: '우리말 사용의 실태 그리고 순화와 표준화'

		등록 및 개회식	사회: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09:30 ~ 09:40	대회사	성낙수(외솔회 회장)	
09:40 ~ 10:00	축 사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강현화(세종학당 이사장)		
제1부	주제1:	전문 분야의 용어 사용 실태와 순화의 방안	사회: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10:00 ~ 10:30	이용・미용	용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김진희(경남대학교 교수)
10:30 ~ 11:00	건축 분야 용어의 순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 및 순화 실천 방안		윤천탁(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1:00 ~ 11:30	출판·인소	내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이재성(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1:30 ~ 12:00	의복·양지	H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태와 순화의 방안	권경일(연세대학교 강사)
12:00 ~ 13:30	점 심		
제2부	주제2: 방송에서의 말·글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		사회: 박형우(한국교원대학교)
13:30 ~ 14:00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문제점		김홍범(한남대학교 교수)
14:00 ~ 14:30	방송의 예능 뉴스 등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이종구(방송인)
14:30 ~ 15:00	방송극에서 나타나는 말과 글의 문제점 오셔		오세곤(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15:00 ~ 15:20	휴 식		
제3부	주제3: 남·북한 국어학 용어의 통일 방안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15:20 ~ 15:50	남·북한의 '형태론·통사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15:50 ~ 16:20	남·북한의 '음운론·의미론' 분야 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이정택(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6:20 ~ 16:50	남·북한 맞춤법 차이점과 그 통일 방안 -두음법칙, 사이시옷,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이창덕(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6:50 ~ 17:30	종합토론 : 취소(비대면 강의 준비시간으로 대체)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17:30 ~ 17:40	폐회식	폐회사 : 성낙수(외솔회 회장)	사회: 전나영(연세대학교)

#### 574돌 한글날 기념 제12회 집현전 학술대회 우리말 사용의 실태 그리고 순화와 표준화

 펴낸 이
 성
 낙
 수

 펴낸 곳
 외
 솔
 회

 박은 곳
 동방인쇄공사

 펴낸 날
 2020. 10. .

서울 종로구 종로12길6, 6층 우)03189

전화: 02-734-5048 전송: 02-734-5049

휴대전화: 82-(0)10-9434-2046

누리집: www.oesolhoe.org